

연구보고 2016-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최근 육아정책에서 아버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5-2020)'인 "브릿지플랜(BRIDGE PLAN) 2020"에서 D는 daddy의 약자로서, 가정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정착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학문적으로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명,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 삼촌 등 남성이 양육을 함께 하였다. 양육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된 것은 근대사회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산업혁명을 거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재편되면서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터라는 이분법적 역할이 중산층 가정 중심으로 규범화되면서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전적인 책임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일터에 한정되었던 남성이 가사일과 육아에 동참하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최근 TV 등의 매체에서 아빠 육아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는 여전히 드물고,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이보다 더 적었다. 아버지의 양육역량 평가에서도 지역, 직업, 학력 등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아버지 본인의 자기 평가에 비해 배우자의 남편 평가가 낮아서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아버지 교육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아버님과 어머님들, 그리고 자문회의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 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5
4. 용어정의	23
II. 연구배경	25
1. 국내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	25
2. 국외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	48
3. 선행연구	57
III. 아버지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 지표개발	65
1. 2013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분석	65
2. 본 연구의 지표 개발 과정	70
3. 본 연구의 지표 구성 내용	78
IV.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수준 평가	84
1. 본 조사 참여 가구 특성	84
2.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87
3. 자녀연령별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수준 평가	100
4. 영역별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수준 평가	110
5. 지원 요구	129
6. 소결	133
V. 아버지 양육역량 강화 지원방안	136
1. 지원방향	136
2. 실행방안	140
참고문헌	146

Abstract	152
부록	155
부록 1.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영아용)	157
부록 2.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유아용)	167
부록 3.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초등학생용)	177
부록 4.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영아용)	187
부록 5.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유아용)	196
부록 6.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초등학생용)	205
부록 7. 아버지 양육참여 면담지	214
부록 8. 현장전문가 양육참여 면담지(건강가정센터장용)	217
부록 9. 현장전문가 양육참여 면담지(육아종합지원센터장용)	219
부록 10. 2013년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	221

표 차례

〈표 I-3- 1〉 아버지 면담참여자 일반적 특성	16
〈표 I-3- 2〉 아버지 면담참여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16
〈표 I-3- 3〉 현장전문가 면담참여자 일반적 특성	17
〈표 I-3- 4〉 설문조사 개요	18
〈표 I-3- 5〉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모집단 인구수	19
〈표 I-3- 6〉 영유아 및 초등 1, 2학년 표본수: 아버지	20
〈표 I-3- 7〉 영유아 및 초등 1, 2학년 표본수: 어머니	20
〈표 I-3- 8〉 본 조사 설문내용	21
〈표 II-1- 1〉 중소기업 신규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27
〈표 II-1- 2〉 대기업 등 신규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28
〈표 II-1- 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34
〈표 II-1- 4〉 2015년 2016년 서울시 ‘아이조아 아빠교실’ 사업 변경사항	35
〈표 II-1- 5〉 서울시 ‘아이조아 아빠교실’ 사업 추진 내용	36
〈표 II-1- 6〉 2016년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간 사업 진행 일정(안)	36
〈표 II-1- 7〉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달라진 주요 내용 일부	38
〈표 II-1- 8〉 2016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38
〈표 II-1- 9〉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집합교육	40
〈표 II-1-10〉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사례	41
〈표 II-1-11〉 시·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전국 현황	42
〈표 II-1-12〉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역량 관련 업무	43
〈표 II-1-1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버지 학교참여 활동 목록	44
〈표 II-1-14〉 제주시 인화좋은아버지회 활동 실적	46
〈표 II-1-15〉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 일반연수 심화과정 중 아빠교육	48
〈표 II-2- 1〉 스웨덴 육아휴직 할당기간 및 양성평등보너스 개정 전후 비교	54
〈표 III-1- 1〉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66
〈표 III-1- 2〉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6개 영역 추출 과정	66
〈표 III-1- 3〉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최종 선정 과정 일례	68
〈표 III-1- 4〉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최종 선정된 공통문항수 구성	68

〈표 III-1- 5〉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영아·유아용 공통 및 비공통 문항 구성	69
〈표 III-1- 6〉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신뢰도 분석	70
〈표 III-2- 1〉 2013년도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영아용)	71
〈표 III-2- 2〉 유사 문항 및 영역 간 통합	74
〈표 III-2- 3〉 2013년 문항 중 삭제 일례	75
〈표 III-2- 4〉 2013년과 2016년 동일 문항의 문구 수정 일례	76
〈표 III-2- 5〉 2016년 자녀연령별 문구 차이 일례	77
〈표 III-2- 6〉 2016년 신규 문항	77
〈표 III-2- 7〉 2016년 신규 개발한 ‘아버지와의 관계’ 실태 문항	78
〈표 III-3- 1〉 2013년과 2016년 체크리스트 비교표	79
〈표 III-3- 2〉 2016년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 영역과 문항수 구성	79
〈표 III-3- 3〉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발달과 놀이영역	80
〈표 III-3- 4〉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	81
〈표 III-3- 5〉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가족관계 영역	82
〈표 III-3- 6〉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영역	83
〈표 IV-1- 1〉 본 조사 참여 본인(아버지) 및 남편 특성	85
〈표 IV-1- 2〉 자녀 특성	86
〈표 IV-2- 1〉 본 조사 참여 아버지 근무 실태: 아버지 응답	88
〈표 IV-2- 2〉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및 아버지교육 현황	89
〈표 IV-2- 3〉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자녀양육시간	90
〈표 IV-2- 4〉 발달과 놀이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92
〈표 IV-2- 5〉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94
〈표 IV-2- 6〉 가족관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95
〈표 IV-2- 7〉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97
〈표 IV-2- 8〉 본인 양육방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	97
〈표 IV-2- 9〉 본인 아버지와의 관계	99
〈표 IV-3- 1〉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영아	101
〈표 IV-3- 2〉 영아 아버지 사회경제적 배경별 양육역량	102
〈표 IV-3- 3〉 영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103
〈표 IV-3- 4〉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유아	105

〈표 IV-3- 5〉 유아 아버지 사회경제적 배경별 양육역량	106
〈표 IV-3- 6〉 유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107
〈표 IV-3- 7〉 초등부모 대상 영역별 전반적 현황: 영아	108
〈표 IV-3- 8〉 초등 아버지 사회경제적 배경별 양육역량	109
〈표 IV-3- 9〉 초등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110
〈표 IV-4 1〉 발달과 놀이 양육역량별 현황	111
〈표 IV-4 2〉 발달과 놀이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112
〈표 IV-3- 3〉 발달과 놀이: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113
〈표 IV-4 4〉 발달과 놀이: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115
〈표 IV-4 5〉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역량별 현황	115
〈표 IV-4 6〉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117
〈표 IV-4 7〉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118
〈표 IV-4 8〉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119
〈표 IV-4 9〉 가족관계 양육역량별 현황	120
〈표 IV-4-10〉 가족관계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121
〈표 IV-3-11〉 가족관계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123
〈표 IV-4-12〉 가족관계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124
〈표 IV-4-13〉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양육역량별 현황	125
〈표 IV-4-14〉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126
〈표 IV-4-15〉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127
〈표 IV-3-16〉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128
〈표 IV-5- 1〉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	129
〈표 IV-5- 2〉 실천가능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130
〈표 IV-5- 3〉 현재 아버지 상(像): 1순위	131
〈표 IV-5- 4〉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132

그림 차례

[그림 I-3-1] 연구절차	23
[그림 II-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31
[그림 II-2-1] 아버지센터 아빠카페 모임	50
[그림 II-2-2] 아버지센터 아빠-아이의 오후놀이 프로그램	50
[그림 II-2-3] 덴마크 코문 아빠놀이방(Fars Legestue)	56
[그림 III-2-1] 2013년도 체크리스트 요인분석 결과(영유아발달 영역)	73
[그림 IV-2-1] 본인 아버지와의 관계	100
[그림 IV-3-1] 영아 아버지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101
[그림 IV-3-2] 유아 아버지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105
[그림 IV-3-3] 초등 아버지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108
[그림 IV-4-1] 발달과 놀이 양육역량별 본인과 남편 평가 비교	111
[그림 IV-4-2]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역량별 본인과 남편 평가 비교	116
[그림 IV-4-3] 가족관계 양육역량별 본인과 남편 평가 비교	121
[그림 IV-4-4]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양육역량별 본인과 배우자 평가 비교	125
[그림 IV-5-1] 현재 아버지 상(像) 집단 간 비교	132
[그림 IV-5-2]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 집단 간 비교	133
[그림 V-2-1]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연계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	145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2013년도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유아용)	221
---	-----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왔으며, 최근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버지 양육의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였음.
- 정부 정책도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는 추세임. 2016년부터 실시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이름은 “브릿지플랜(BRIDGE PLAN) 2020”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아버지 양육 참여가 그 중심에 있음.
-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오자,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는 이제 일반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지금까지 정책연구들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용이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에서 아버지의 양육역량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직업, 소득, 지역, 자녀연령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양육역량을 측정하고 강점과 약점을 변인별로 유형화하여 맞춤형 양육역량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유관 선행연구를 분석, 정리함
- 정부의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 제도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함. 2016년부터 실시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 1, 2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중심으로 분석하고,

육아휴직제도 등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령을 살펴봄.

- 국내·외의 아버지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함.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함.
- 생후 12개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 양육실태 및 역량 수준을 조사함. 또한 같은 연령 집단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실태 및 역량수준을 평가하게 하여 비교 분석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아버지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양육역량강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 실무협의회의임.
 - 면담조사는 아버지 대상 면담조사와 현장전문가 대상 면담조사로 나누어지며, 아버지 11인, 현장전문가 14인으로 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설문조사는 전국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1, 2학년)을 둔 부모 3,000명(아버지 1,500명, 어머니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라. 용어정의

- 아버지 ‘양육역량’은 장혜진 외(2013)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차용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능뿐 아니라 양육자로 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잠재력까지를 포함함.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역량 요소에 인식, 실행과 더불어 성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2. 연구배경

가. 국내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제도들을 법제화하여 왔음.
- 과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육아를 부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아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등을 통한 지원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국외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

- 독일 사례의 경우, ‘파파라덴’(Papaladen, ‘아빠들의 공간’을 뜻함)인데, 이를 통해 육아정보와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열린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연 및 상담 프로그램과 여행프로그램, 육아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최근 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제도의 의무할당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음.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임.
- 덴마크는 아이가 출산하면 아버지에게 2주간의 부성휴가가 주어짐. 부성휴가는 출산 후 14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또한 일부 지역 코문(Kommune, 가장 작은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아빠놀이터(Fars Legestue)”가 운영 중임.

다. 선행연구

- 국내연구로는 아버지 양육 참여의 효과성 연구와 아버지 양육 관련 척도 개발 연구,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로 나누어서 제시함.
 - 최근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연구들은 영아발달특성, 영유아 행복감, 유

아의 학습행동,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정서조절능력, 사회성, 학교준비도, 학교생활적응, 또래유능성 등 영유아의 전반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음.

- 아버지 양육관련 척도 개발 최근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척도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대단위 검사로써의 객관성에 대한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 현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지원,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 많은 연구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국외연구로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과성에 관한 연구보다는 아버지 양육태도와 접근방법(교육)에 관한 연구(Michelle, 2012)나 젊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Richard, 2012)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3. 아버지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 지표개발

가. 2013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분석

- 2013년도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 개발 목적은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체크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있음.
- 국내 지표로는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 국외 지표는 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복지,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를 고찰함.
-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의 영역은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됨. 영유아발달, 놀이, 건강과 안전,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생활지도, 지역사회연계의 6개 영역을 추출하였음
- 문항은 최종적으로 67개의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각 영역 내 인식, 실행, 성장의 역량으로 구성됨.

나.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 기존 2013년도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결과의 문항분석을 실시함. 문항변별도

검사를 통하여 변별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구성영역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문항 양호도를 검토함.

- 2013년도의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의 기본 틀을 토대로 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영역과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함.
 - 총 문항수가 많아지면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문항 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유사 문항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영역끼리 통합하였음.
 - 2013년 자료의 신뢰도 분석에서 낮게 나온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유사 문항이 많은 영역과 통합하였음.
 - 물리적·물질적 환경과 지역사회 연계 두 영역을 통합하여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로 명명하였음. 물질적 환경은 곧 물리적 환경으로 수렴되므로 물리적 용어로 통합하였고, 이를 지역사회 연계와 구분되도록 ‘가정 내’라는 수식어를 붙였음.
 - 기본적인 문항이거나 응답하기가 애매한 문항, 중복되는 문항들은 삭제하였고,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명료화하였으며 용어도 응답자 중심으로 수정하였음.
- 신규영역 및 문항추가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까지 확대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용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를 추가 개발하였음.
 - 일부 영역에서 아버지 면담조사 및 문헌자료를 통한 신규문항을 추가함.
 -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아버지의 양육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함.

다. 2016년 아버지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구성 내용

- 2016년도의 아버지 양육실태 및 역량 체크리스트의 영역은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로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문항 수는 51개임.
 - 2016년의 체크리스트는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 대상으로 하므로 총 3종으로 구성됨.

-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한정적이라 판단, 2016년에는 영아용에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를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하였음.

□ ‘발달과 놀이’ 영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식역량에서는 아버지가 연령별 발달 특성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해 놀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지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실행역량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균형 있는 발달성장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성장역량에서는 자녀와 놀이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행복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은 총 15개 문항(유아는 16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버지가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비상약품의 위치,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문제행동을 할 시(때부리거나 울거나 할 때) 대처방법이 있는 지를 인식역량으로 구성하였음.
- 실행역량은 실제 실천하는 행위를 묻는 문항으로써 연령에 상관없는 공통 문항과 연령별에 따른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성장역량은 자녀의 문제행동이 자신의 양육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지를 성찰해 보는지, 음주와 흡연을 자녀를 위해 자제하는지를 문항으로 선정하였음.

□ 가족관계 문항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식역량으로는 행복한 부부관계와 양육방식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실행역량은 함께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부부갈등, 개인시간 할당, 데이트, 애정표현 등을 묻는 문항으로써 연령에 상관없는 공통 문항과 연령별에 따른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성장역량은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성찰

해 보는 문항을 선정함.

-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문항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식역량으로는 육아정보 또는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의 인식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유아와 초등학생의 자녀의 경우 친한 친구의 이름을 묻는 문항을 추가로 만들었음.
 - 실행역량은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는지 여부와 함께 집 청소, 스마트기기 사용 여유, 육아정보 기관 이용 및 활용, 자녀 또래 부모들과 교류 여부, 알람장 확인 등 실제 부모가 하는 행동 중심의 문항으로 구성함.
 - 성장역량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선정하였음.

4.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현황

가. 아버지 자녀양육실태

- 아버지 전반적 특성 분석
 -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거주 지역을 보면, 중소도시 거주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고, 대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은 영아, 유아 자녀의 아버지는 30대가 70%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초등 자녀의 아버지는 40대가 61.7%로 가장 많았음.
 - 4년제 대졸 아버지가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아버지 직업은 화이트칼라(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가 75~77%로 가장 많았고, 블루칼라(판매/영업/서비스직, 농/임/어업) 종사자가 10%대로 2순위로 많으며 자영업, 기타(무직/퇴직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아버지의 근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76~77%로 대다수를 차지했음.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20% 정도이며 5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는 약 20%로 내외로 사용하지 않은 아버지가 대다수였음.

-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보다 적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0~15%이내 아버지 정도가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중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 아버지 본인은 2~4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음.
- 본인(아버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부모,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나타남.

나. 자녀연령별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 영아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역량에서는 대체적으로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영역이 3.5점으로 동일하며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을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 대졸 이상의 화이트 칼라 직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가구의 아버지 양육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에서는 아버지 본인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여부, 아버지교육 이수여부, 주당 초과근무횟수, 본인아버지와 관계,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역량을 분석하였고, 각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유아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역량에서는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영역이 가장 높은 3.5점을 나타냈으며,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3.1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유아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양육역량을 조사한 결과,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및 월 소득 500~700만원의 고소득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3.6점), 아버지교육을 이수한 아버지(3.7점), 주당 초과근무횟수가 1~2회 정도의 아버지(3.5점), 유년시절 본인아버지와

의 관계가 좋았던 아버지(3.7점)가 양육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역량도 영아, 유아와 동일하게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영역이 가장 높은 3.6점을 나타냈으며,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3.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아버지의 역량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역량점수가 높게 나왔음. 직업은 화이트칼라와 자영업 종사자 아버지의 역량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교육을 이수한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양육점수가 높았음. 주당 초과근무횟수가 3회 이상 하는 아버지의 양육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유년시절 본인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양육점수가 높게 나타남

다. 영역별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 발달과 놀이 영역에서 아버지 양육역량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적으로 성장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인식, 실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에서도 발달과 놀이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장역량의 평균이 실행 및 인식역량 보다 높게 나타났다.
- 가족관계는 모든 연령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 실행 성장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는 앞의 3개 영역과 다른 경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앞의 3개 영역은 성장역량 점수가 높고, 인식, 실행은 이보다 대체로 낮은데 비해 이 영역은 인식역량이 높고, 성장역량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라. 소결

-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양육역량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읍면 보다는 도시거주, 대졸 이상의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가구의 아버지 양육역량이 높게 나타났음.

-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심으로 고찰했을 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아버지, 주당 초당근 무시간이 적은 아버지, 유년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4개 영역 중에서, 대체로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왔음.
- 4개 영역 모두 본인(아버지)과 배우자(어머니) 간의 인식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남. 다시 말해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본인이 응답한 점수와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응답한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유년기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게 나온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본인과 배우자 대부분이 아버지 교육은 필요하다고 했으며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5. 아버지 양육역량 강화 방안

가. 지원방향

- 아버지에게 일-가정 양립의 균형적인 삶을 지원한다
 - 30~40대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등 일-가정 양립의 욕구가 강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아버지 개인 변인에 따른 역량 격차를 줄인다
 -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거주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별에 따른 양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함.
- 생산직 종사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한다
 - 공공기관, 대기업의 화이트 칼라 종사자 아버지 위주로 육아휴직제도가 활

성화되고 있음. 생산직 종사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아버지 교육을 다양화 방식으로 실시한다
 - 아버지 직업 및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함
-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을 제공한다
 -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 양육역량 점수나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이 필요함.
- 아버지 교육내용은 실천(실행) 중심으로 편성, 운영한다
 - 아버지 교육 내용을 실행역량 강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자녀와 함께 체험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편성, 운영함.
-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 남성과 여성의 양육에 대한 태도, 인식, 실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상호 이해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학부모 교육이 아닌 부모교육을 지향한다
 - 자신의 양육관, 양육방식은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으므로 본인수양 교육이 아버지 교육에 편성, 운영되어야 함.

나. 실행방안

- 제도적 지원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아빠의 달, 근무시간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 조건(비용 확대 포함)을 완화 및 현행 유급 5일의 출산휴가를 자녀수를 고려하여 확대 시행을 제안함.
 - 혼인,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에 따라 아버지 교육을 제공함. 책자를 제작해서 산부인과(건강검진)나 주민자치센터(출생신고) 등에 비치하고, 가정양육수당 받을 때, 아버지 교육 이수자 자녀에게 국공립 기관 입학 시 가산점 부여 방안을 제안함.
 - 남성이 많은 직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준에 아버지 교육 실시를 필수

또는 가점 지표로 넣음.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함.

□ 교육적 지원

- 양성평등 의식 교육을 남성이 많은 집단(군대, 남학생이 많은 학과, 예비군, 민방위 훈련 등) 대상으로 실시함.
- 현재 산재되어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 교육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할 것을 제안함. 교육대상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비아빠를 포함함.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목표는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빠”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중핵교육과정 방식으로 구성함. 아버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며 이수 시, 수료증을 발급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TV에서 어린 자녀와 다정하게 놀아주는 남자 연예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며 놀이터, 마트, 놀이공원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아버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왔으며, 최근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버지 양육의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정부 정책도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2016년부터 실시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이름은 “브릿지플랜(BRIDGE PLAN) 2020”이다. “브릿지플랜(BRIDGE PLAN) 2020”의 D는 Daddy의 약자로 ‘아빠의 가사분담 문화 확산’을 의미한다(그림 II-1-1 참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아버지 양육 참여가 그 중심에 있다. 브릿지플랜에는 현재 5% 수준인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중을 2030년 30%까지 제고, 공공기관 평가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반영, 아빠의 달을 올해부터 종전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운동 등의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연구를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오자, Parke(2000)가 연구에서 명명한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는 이제 일반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¹⁾

아버지 본인도 자녀양육 참여가 자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3.90점/5점), 부부 사이도 원만하게 한다(3.92점/5점)고 인식하고 있으며(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106), 다음의 인용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을 받아서 이왕이면 제대로 양육하고 싶은 욕구도 갖고 있다.

1) 4절. 선행연구를 참조바람.

아버지 모임 등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층을 형성하고, **성별이 다른 자녀(여아) 육아에 대한 남성 육아매뉴얼이나 교육이 필요해요**(‘15.9월, 워킹대디 조사: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2016: 74 재인용)

그러나 부모교육, 아버지교육과 같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훨씬 많으며(유해미 외, 2013: 148) 어머니의 양육역량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아버지 양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개인의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약 80%가 친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16년 8월 21일자,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0/0200000000AKR20160820044000017.HTML>; 검색일 2016년 11월 11일). 친부가 아동학대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의 대물림’이란 측면에서 아버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역량의 중요한 영역으로 아버지 본인의 유년시절의 양육경험, 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책연구들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이 용이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도남희·이정원·김문정, 2012; 유해미 외, 2013; 홍승아·이인선, 2013), 본 연구는 아버지 개인적 차원의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 선행연구를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 정부의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 제도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2016년부터 실시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에서 1, 2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 중심으로 분석하고, 육아휴직제도 등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령을 살펴본다.

셋째, 국내·외의 아버지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시사점을 모

색하였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장혜진 외, 2013)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하여 아버지의 양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다섯째, 생후 12개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같은 연령 집단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의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 수준을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자녀양육실태로는 육아휴직제도 사용 유무, 아버지 교육 이수 유무, 주중·주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역량 지표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역량 수준을 자녀연령별(영아기, 유아기, 초등저학년생), 영역별로 양육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아버지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정부발간의 정책자료, 통계, 법령 등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국내·외의 유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는 서적 및 인터넷으로 수집하였다.

나. 면담조사

가) 아버지 대상

영유아 및 만 8세 이하 자녀 이하(법적으로 육아휴직제도 대상 자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 중에서 거주 지역, 직업특성, 가정유형을 고려하여 총 11명을 실시하였다. 이들 모두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며, 연령은 34세부터 47세까지 나타났다. 대부분 도시 거주자의 회사원 및 제조업 종사자였다. 11사례 중 9사례는

맞벌이 가정이었고, 2사례만이 외벌이 가정이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게 나왔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표 1-3-1> 아버지 면담참여자 일반적 특성

번호	연령	학력	본인직업	배우자직업	월평균가구소득
1	34	대졸	전문직	간호사	800만원
2	46	대학원이상	회사원	은행원	800만원
3	47	대학원이상	전문직	교육	1000만원
4	38	대졸	회사원	교사	800만원
5	37	대졸	회사원	회사원	700만원
6	36	대졸	회사원	교사	700만원
7	36	대졸	회사원	은행원	1000만원
8	35	대졸	자영업	회사원	500만원
9	35	대졸	제조업	제조업	300만원
10	34	대졸	제조업	가사	250만원
11	38	대졸	제조업	가사	300만원

아버지 면담 대상자의 해당 자녀들은 출생연도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들이다. 자녀의 주양육자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 주로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벌이의 경우는 배우자가 주양육자이었으며,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8명이 첫째 자녀고 2명은 둘째 자녀였으며, 쌍둥이도 있었다. 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없었다.

<표 1-3-2> 아버지 면담참여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번호	출생년도	자녀성별	출생순위	주양육자	기관재원여부	기관종류
1	2013년	남자	첫째	친조부모	○	어린이집
2	2010년	남자	첫째	외조부모	-	-
3	2008년	여자	첫째	외조부모	○	초등학교
4	2011년	여자	둘째	외조부모	○	어린이집
5	2010년	남자	첫째	외조부모	○	어린이집
6	2013년	여자	둘째	외조부모	○	어린이집
7	2011년	남자	첫째	외조부모	○	유치원
8	2013년	여자	첫째	외조부모	○	어린이집
9	2009년	여자	첫째	본인	○	초등학교
10	2013년	여자	첫째	배우자	○	어린이집
11	2011년	남자	쌍둥이	배우자	○	유치원

나) 현장 전문가 대상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에서 아버지 양육프로그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센터의 실무자(또는 센터장) 및 기타 부모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연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는 총 14명이며 아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센터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다. 센터경력은 6개월에서부터 9년 4개월까지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관에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 시작년도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는 응답부터 2015년도에 시작한 기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3-3> 현장전문가 면담참여자 일반적 특성

번호	연령	최종전공	기관	경력	아버지교육 시작년도
1	60	사회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월	2008
2	51	보육학아동학	육아종합지원센터	5년 3개월	2014
3	50	유아교육학	육아종합지원센터	9년 4개월	2014
4	50	보육학아동학	육아종합지원센터	10개월	2014
5	43	유아교육학	육아종합지원센터	7년 1개월	2009
6	46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8년 11개월	2009
7	37	유아교육학	육아종합지원센터	2년 2개월	2014
8	40	보육학아동학	육아종합지원센터	6년 8개월	2010
9	무응답	보육학아동학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월	2015
10	48	교육학	전국학부모지원센터	3년	-
11	39	행정학	전국학부모지원센터	2년	2014
12	48	교육학	전국학부모지원센터	4년	2011
13	50	교육학	전국학부모지원센터	5년	2010
14	51	교육학	전국학부모지원센터	3년	2012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의견조사

2013년 Self-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연구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및 장·단점, 본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관 선행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 방향과 내용, 전반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의 영역과 문항 검토를 위해 부모역량 척도를 개발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및 유관 전공자, 부모교육 전문가 등 1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서면검토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연구진이 분석한 후, 체크리스트 문항을 재조정하고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라. 예비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친 ‘아버지 양육역량 Self-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20명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Self-체크리스트를 최종 확정하였다. 참고로 영아기 자녀의 아버지는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영아 자녀는 생후 12개월 이후부터로 제한하였다.

마. 설문조사

1) 개요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실태 및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을 둔 아버지 1,5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12일 ~ 8월 22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온라인 패널조사로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 본인이 평가하는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과 배우자가 바라보는 남편의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1~2학년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 1,500명 대상으로 배우자(남편)의 양육역량을 평가하였다.

<표 1-3-4>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자료수집 도구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아버지 양육역량 Self-체크리스트 ²⁾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조사
조사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군지역 포함)
표본추출방법	권역별 도시규모별 인구비례할당(분석시 사후가중치 적용)
조사시기	2016년 8월 12일 ~ 8월 22일(약 10일)
표본수	영아 자녀, 유아 자녀,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00사례 (영아 아버지 500사례, 유아 아버지 500사례, 초등 아버지 500사례 + 영아 어머니 500사례, 유아 어머니 500사례, 초등 어머니 500사례)
비고	- 영아는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으로 한정함 -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응표집(Paired Sampling)은 아님

2)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아버지 양육역량 Self-체크리스트’의 개발 과정은 III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2) 모집단 현황 및 표본추출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2016년 6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의 1~9세 인구가 다(표 I-3-5 참조). 전국적으로 영아를 가진 부모의 수는 1,351,284명이었고, 유아를 가진 부모의 수는 1,870,307명이었으며, 초등 저학년인 1학년~2학년에 다니고 있는 부모는 956,317명이었다.

<표 I-3-5>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모집단 인구수

단위: 명

구분		영아기 (12~36개월미만)	유아기 (36개월~취학전)	초등 1~2학년
전국		1,351,284	1,870,307	956,317
서울특별시	대도시	233,332	308,295	158,698
경기/인천	대도시	80,501	110,781	55,833
	중소도시	360,065	507,207	260,317
	읍/면	4,529	6,621	3,428
대전/세종/ 충청	대도시	41,999	58,373	30,475
	중소도시	92,023	127,709	63,982
	읍/면	16,800	24,815	13,071
광주/전라	대도시	40,321	59,166	31,155
	중소도시	66,678	96,538	50,026
	읍/면	24,706	33,814	17,157
대구/경북	대도시	60,484	84,459	44,161
	중소도시	56,575	75,505	37,931
	읍/면	10,993	14,262	7,210
부산/울산/ 경남	대도시	116,196	154,990	76,951
	중소도시	84,653	117,496	58,643
	읍/면	8,648	12,903	6,792
강원/제주	중소도시	44,574	65,659	34,184
	읍/면	8,207	11,714	6,303

자료: 2016년 6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 자료를 활용하여 권역별, 도시규모별로 인구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 목표 표본수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0\%p$ 이다. 실제 조사된 표본과 분석 시 사후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은 다음 <표 I-3-6>과 같다. 사후 가중치를 적용한 이유는 단순한 인구비례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총 표본수에 읍면지역의 숫자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통계적인 검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표 1-3-6> 영유아 및 초등 1, 2학년 표본수: 아버지

단위: 명

구분		영아기 (12~36개월미만)		유아기 (36개월~취학전)		초등 1~2학년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전국		505	500	539	500	523	500
서울특별시	대도시	90	86	102	82	87	83
	대도시	30	30	31	30	29	29
경기/인천	중소도시	132	132	142	135	151	136
	읍/면	3	3	3	3	3	3
대전/세종/ 충청	대도시	17	16	16	16	16	16
	중소도시	33	33	33	33	32	32
	읍/면	7	7	11	7	7	7
광주/전라	대도시	15	15	16	16	16	16
	중소도시	24	24	28	25	27	26
	읍/면	10	10	10	10	9	9
대구/경북	대도시	22	22	23	23	23	23
	중소도시	21	21	20	20	20	20
	읍/면	4	4	5	4	4	4
부산/울산/ 경남	대도시	43	43	42	42	41	40
	중소도시	31	31	32	31	33	31
	읍/면	3	3	3	3	4	4
강원/제주	중소도시	17	17	19	17	18	18
	읍/면	3	3	3	3	3	3

<표 1-3-7> 영유아 및 초등 1, 2학년 표본수: 어머니

단위: 명

구분		영아기 (12~36개월미만)		유아기 (36개월~취학전)		초등 1~2학년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전국		515	500	522	500	539	500
서울특별시	대도시	86	86	82	82	99	83
	대도시	30	30	30	30	29	29
경기/인천	중소도시	141	132	150	135	143	136
	읍/면	3	3	5	3	8	3
대전/세종/ 충청	대도시	16	16	16	16	16	16
	중소도시	34	33	35	33	34	32
	읍/면	8	7	8	7	7	7
광주/전라	대도시	15	15	16	16	16	16
	중소도시	25	24	25	25	27	26
	읍/면	10	10	10	10	9	9

(표 I-3-7 계속)

구분		영아기 (12~36개월미만)		유아기 (36개월~취학전)		초등 1~2학년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실제조사 표본	가중치 적용표본
대구/경북	대도시	22	22	23	23	27	23
	중소도시	22	21	20	20	21	20
	읍/면	4	4	4	4	4	4
부산/울산/ 경남	대도시	44	43	42	42	40	40
	중소도시	31	31	32	31	33	31
	읍/면	4	3	4	3	4	4
강원/제주	중소도시	17	17	17	17	19	18
	읍/면	3	3	3	3	3	3

3) 설문내용

설문내용은 가구특성(아버지 및 자녀 특성), 아버지의 자녀양육 실태, 정부에 게 바라는 정책, 아버지의 자녀양육역량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 별로 아버지와 어머니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묻는 내용과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양육방식에 대한 내용 및 응답자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로 응답하는 양육역량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표 I-3-8> 본 조사 설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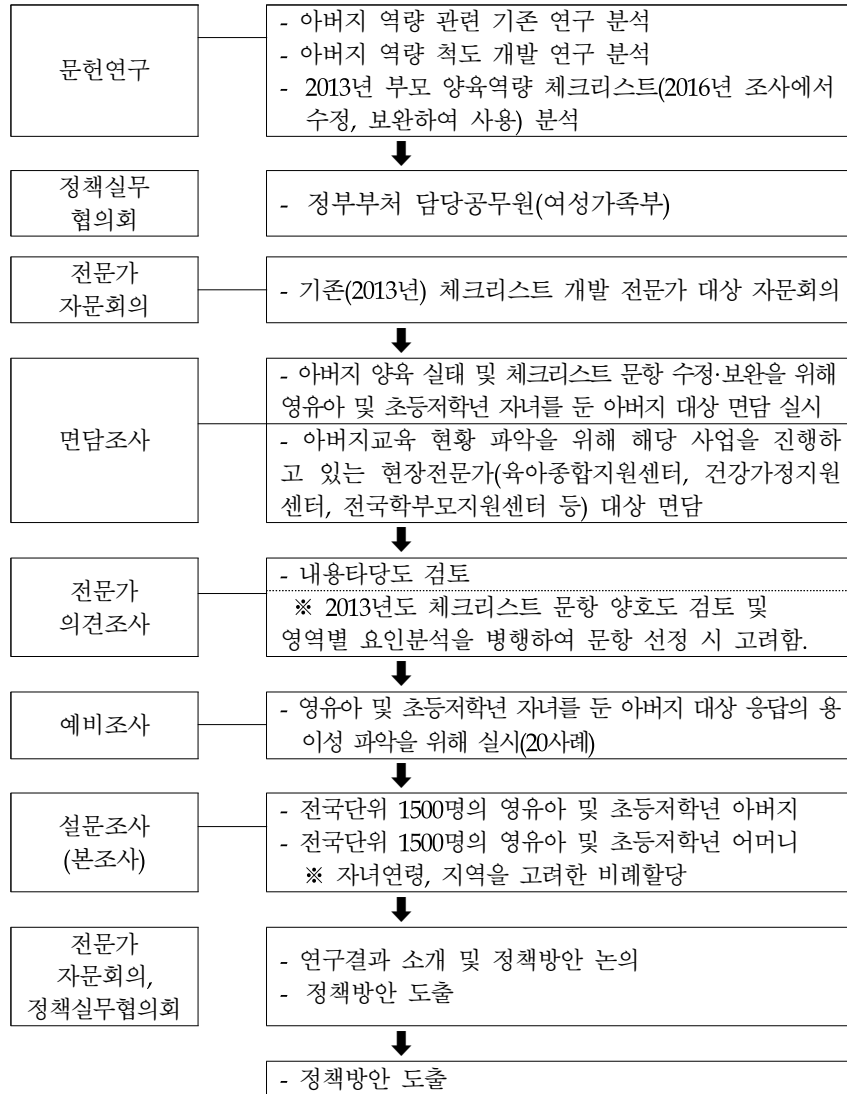
구분	설문내용	응답자	
		아버지	어머니
가구특성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월 가구소득	공통	
자녀특성	출생년도, 성별, 형제관계 자녀가 다니고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종류	공통	
양육참여 실태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및 사용 기간	공통	
	아버지가 주중/주말 자녀를 돌보는 시간		
	아버지 교육 이수 여부 및 횟수		
	아버지 주당 근무 일수		
	아버지 평소 출퇴근 시간		
아버지의 지난 한달 기준 주당 평균 초과 근무 횟수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 정책	양육방식(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해당	비해당
	본인 아버지와의 관계	해당	비해당
	현재 아버지상	공통	
	이상적인 아버지상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아버지 교육 실시방법			

(표 I-3-8 계속)

	구 분	공통		
		영아	유아	초등
양육역량	설문내용			
	발달과 놀이 영역 척도 문항	13	13	13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 척도 문항	15	16	15
	가족관계 영역 척도 문항	11	11	11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척도 문항	12	11	12
	계	51개 문항		

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연구의 방향, 설문지 검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3-1] 연구절차

4. 용어정의

‘역량’은 ‘능력’이란 용어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어떤 과업을 해내는 총체적인 특성을 지닌다(장혜진 외, 2013: 26).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역량’은 장혜

진 외(2013)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차용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능
뿐 아니라 양육자로 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잠재력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역량 요소에 인식, 실행과 더불어 성장을 포함한다.

II. 연구배경

1. 국내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제도들을 법제화하여 왔다. 과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서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육아를 부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 법제도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장의2에서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법 제19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번갈아가며 사용한다면 한 자녀에 대해 2년간 돌봄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제도 역시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이며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분할 횟수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용노동부, 2016: 213). 한편,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② 연장근로의 제한, ③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④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9조의5).

그 밖에도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법 제18조의2).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수당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을 적용 받는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다만, 1년 동안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은 무급이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6항). 또한 아빠의 달 인센티브(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공무원은 최초 3개월 동안 월 봉급액 전액을 지급받는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다(법 제7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받을 수 있지만,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한편, 2014년에 도입된 “아빠의 달, 급여 인센티브”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상한액 15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동법 시행령 제95조의2). 도입 시에는 첫 1달에 대해서만 지원했다가 2015. 12. 4. 개정을 통해 3개월로 확대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지원한다(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휴직제를 포함한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3호), 동법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법 제15조 제1항),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³⁾ 특히, 2015년에는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시행된다(법 제15조 제7항).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13호) 제1호 가목).

〈표 II-1-1〉 중소기업 신규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0
가족친화제도 실행(6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5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	5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3)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가족친화 지원사업 안내 사이트(<http://ffm.mogef.go.kr/business/reviewDescription.do>) 참조 (검색일: 2016년 11월 1일)

(표 II-1-1 계속)

분야	심사항목	배점
가점 (최대 15)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1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5
	가족돌봄휴직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연차 활용	3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대체인력 채용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총계	

주1: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주2: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자료: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13호, 2016. 3. 7. 전부개정, 2016. 3. 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II-1-2> 대기업 등 신규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가 족 친 화 제 도 실 행 (6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복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5
유연근무제도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0)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표 II-1-2 계속)

분야	심사항목	배점
가·감점 (최대 10)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2
	연차 활용	1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0.5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2
총계		100 (가·감점 제외)

주1: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을 말함.

주2: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 이용 대상자가 있는 심사항목만 평가한 뒤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 내에서 점수 비례 환산)

자료: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13호, 2016. 3. 7. 전부개정, 2016. 3. 7.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인증 통과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인증 심사기준에서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신규인증을 받을 수 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가목). 다만, 이 경우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 나목).

4)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또한, 자녀양육지원의 강화를 위해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제1항).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은 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나. 정부정책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제1차 기본계획('06~'10)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와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11~'15)에서는 일·가정양립 일상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재정지출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의 수가 단기간 내 급증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정책은 여전히 여성중심적 접근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16~'20)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5%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을 2020년 15%, 2030년 30%까지 제고하여 남성의 육아분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남성육아휴직 참여를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2017년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5. 12: 2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도자료 p.4

[그림 II-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2) 건강가정 기본계획

제1,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경우 직장·가정의 양립이나 가족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과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천이 어렵고 특히 남성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8).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10). 세부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두 번째는 남성 맞춤형 정보·교육 지원, 세 번째는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58-59).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캠페인 추진 및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남성육아휴직 비율 목표도 2015년 5.5% → 2020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58).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남성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임신·출산 시기별 남성의 역할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예비아빠 수첩”을 제작하여 산모수첩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일·가정 양립, 육아참여 등 생애주기별 남성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일·가정 톡톡” 앱을 통해 종합 제공하고자 한다(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58-59).

마지막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남성들의 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 시상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남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59).

3) 기타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11년 “100인의 아빠단”을 출범한 바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2015년까지 약 770여명의 아빠들이 참여하였는데, 선정된 멘토·초보아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빠들만의 육아노하우를 공유하는 아빠 육아모임이다. 작년에 있었던 100인의 아빠단 제5기 활동계획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활동으로는 음악울동놀이, 요리, 야외활동, 그림, 만들기, 집안일, 동화이야기, 체육활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지원 당시 희망 활동 분야를 바탕으로 멘토 및 초보아빠 각 10명~15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로 멘토아빠가 제시

한 아빠 육아 콘텐츠를 바탕으로 초보 아빠가 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종료 시 우수아빠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 9. 2-7).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아빠의 육아참여와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육아하는 아빠가 멋있다 - 아이좋아 아빠좋아’ TV 공익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KBS 육아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장면을 활용한 풋티지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아버지의 학교 운영 참여와 아버지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참여, 자녀와의 교감 방법 등 워킹대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버지 교육 콘텐츠 온라인 제공 및 아버지 모임 지원과 학부모회 참여 등 자녀 교육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문화 확산 등을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5: 45-46). 이에 따라 2016년 6월에는 당시 6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82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수립하였다(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2016: 2). 이 사업은 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아빠 육아참여프로그램 제공, 공동주말육아나눔터, 워킹대디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http://workingfamily.or.kr/>, 검색일: 2016. 6. 28).

다.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은 다양한 경로로 실시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공적 기관이라 하겠다.⁴⁾ 본고에서는 각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교실,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4) 각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운영 현황은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 역량 제고 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의 pp.43~50을 참조바람.

수집·제공,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이다(동령 제7조). 현재 전국에 90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16: 225-22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정보기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에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다. 아버지교육과 관련된 가정양육지원 부문에서의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은 다음 <표 II-1-3>과 같다. 공통사업에서 부모 대상의 교육이나 상담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3>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공통사업	자체사업
가정양육지원	-부모에 대한 상담 -부모에 대한 교육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교육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에 관한 검사 제공 -부모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공간 제공 -그 밖에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39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 사업으로 ‘클로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클로버 부모교육’이란 “영유아 가정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유아 자녀 및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및 역할 인식을 위해 개발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부모교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1/d1_600062.jsp, 검색일: 2016년 6월 16일)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클로버 부모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 서울시 아이조아 아빠교실, 아이조아 놀이교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조아 아빠교실’ ‘아이조아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3-4). 2015년 사업 대비 변경된 사항은 아빠교실의 실시 횟수가 48회에서 18회로 줄어들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빠교실의 횟수는 줄어든 대신, 놀이교실

은 42회에서(2015년) 64회(2016년)로 늘리고 자치구 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일정도 2015년 대비 단축되었다.

〈표 II-1-4〉 2015년 2016년 서울시 ‘아이조아 아빠교실’ 사업 변경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운영 기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10개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교육 대상	영유아 자녀, 아버지 (중구 인근 직장 근무 및 자치구 거주)	영유아 자녀, 아버지 (중구 인근 직장 근무 및 자치구 거주)	
실시 횟수	- 아빠교실 48회 (서울센터 18회, 자치구센터 30회) - 놀이교실 42회 (서울센터 18회, 자치구센터 30회)	- 아빠교실 18회(서울센터 18회) - 놀이교실 64회(자치구센터 64회)	자치구 놀이 교실 확대
교육 일정	3월~12월	4월~11월	

자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년 ‘아이조아 아빠교실’ 추진계획. p.2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이조아 아빠교실은 연 18회, 아이조아 놀이교실은 연 64회로 편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아빠교실과 놀이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로 다둥이카드 소지자는 우선순위가 있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3).

‘아이조아 아빠교실’은 서울시청 인근의 영유아 자녀를 둔 남성 직장인들 50명 내외 대상으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카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의형으로 진행된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 점심 시간에 진행되며 참가비 5,000원(점심도시락과 강의자료 제공)이다(연구진 교육현장 참가).

‘아이조아 놀이교실’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빠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녀와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양육방법을 배우고 자녀와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 맺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4).

〈표 II-1-5〉 서울시 ‘아이조아 아빠교실’ 사업 추진 내용

주체	사업내용	비고
서울시	사업총괄, 홍보	
우리카드 채원부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 주관 아이조아 아빠교실 진행	-연 18회(정기교육 16회+특강 2회) -1회당 50명 내외 -장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청 등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아이조아 놀이교실 진행	-연64회(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별 1~12회) -1회당 10~15가정 내외 -장소: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자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16). 2016년 ‘아이조아 아빠교실’ 추진계획. p.1, pp.4~5 표 재구성

나)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버지 놀이교실

다음 <표 II-1-6>은 2016년도에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지원 부문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및 아버지교육의 연간 운영 일정(안) 사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한 부모교육인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연중 편성, 운영되고 있다. 장기적,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한 달에 4회 운영이 일반적이다. 1회 참석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버지 놀이교실로 운영하는 아버지교육은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형으로 신체, 요리, 생태, 소방안전 체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1회차 단기로 운영하며 교육방법은 워크숍, 소집단, 대집단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6〉 2016년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간 사업 진행 일정(안)

구분	교육내용	교육형식	교육기간	회차	1회인원
상 반 기	어린이집 부모사전참여교육	대집단	단기	2	200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3월)	소집단	장기	3	15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4월)			4	15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5월)			4	15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6월)			5	15
	안전교육(6월)			1	30

(표 II-1-6 계속)

구분	교육내용	교육형식	교육기간	회차	1회인원	
상반기	아빠와 함께하는 생태놀이(4월)	소집단	단기	2	10	
	자녀발달단계별 아버지역할(5월)	워크숍	단기	1	20	
	아빠와 함께하는 신체놀이(5월)	워크숍	단기	1	20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놀이(5월)	워크숍	단기	1	20	
	아버지 교실(6월)	대집단	단기	1	50	
	아빠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6월)	소집단	단기	2	10	
하반기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7월)	소집단	장기	4	15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8월)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9월)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10월)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11월)					
	클로버 부모교육프로그램(12월)					
	아버지교육	자녀발달단계별 아버지의 역할(10월)	워크숍	단기	1	20
		아빠와 함께하는 신체놀이(10월)			1	20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놀이(10월)	1		20	
		아빠와 함께하는 생태놀이(10월)	소집단		2	10
	행사	가을행사(9월)	대집단	단기	1	400
		아빠 육아퀴즈 대회(9월)	대집단	단기	1	50
아빠와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11월)		소집단	단기	2	10	

자료: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2016), <http://gncare.go.kr/index2.html>, 검색일: 2016년 4월 18일

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현황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설립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12).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를 예방, 상담, 치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였다(동령 제35조). 현재 전국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 수는 78개이다(여성가족부, 2016: 13).

2016년 사업 중 2015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들 중에서 아버지 교육 및 아버지 양육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강화, 아버지 자조모임 활성화, 요일구분 없이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가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아버지 관련 사업이

중요한 센터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7〉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달라진 주요 내용 일부

		2015년도	2016년도	변경사유
사업	사업방향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예비 직장맘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교육 내용 추가 -아버지 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활성화 -관공서·공공기관·학교·기업·군부대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활성화 -아버지 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육아정보 공유를 위해 아빠자조모임 운영·지원	찾아가는 부모(아버지)교육을 강화하고 아빠 자조모임 활성화 명시
	가족돌봄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토요일/공휴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1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운영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를 위해 요일구분 없이 사업 확대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8-9

수요자 중심의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음 <표 II-1-8>은 2016년도 전국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이다.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통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돌봄나눔 영역 내의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과 가족교육 영역 내의 남성대상 교육이 전국의 공통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II-1-8〉 2016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영역	구분	공통사업	설명
가족돌봄나눔 *3가지 사업 중 2개 선택		모두가족 봉사단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표 II-1-8 계속)

영역 \ 구분	공통사업	설명
가족돌봄나눔 *3가지 사업 중 2개 선택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1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예비/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부부교육 등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연간 20시간 등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참가자 상황 등 고려 요일변경 가능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p.8~9.

나) 서울시 ‘프렌디’ 사업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아버지교육 사업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교육 및 양육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버지교육의 운영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을 일명 ‘프렌

디'라 한다. 프렌디는 친구(friend)와 아빠(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빠, 우리 아이가 원하는 아빠의 의미를 갖고 있다(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 2016).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집합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신나는 아빠놀이터), 아빠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집합교육은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강은 균형있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꾸리기, 2강은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 3강은 코치형 아버지 되기, 4강은 스트레스 관리 3단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60분~90분이다(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 2016). 각 강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II-1-9>과 같다

집합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신나는 아빠놀이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과 실습위주로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 2016).

<표 II-1-9>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집합교육

<p>1강. 균형있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꾸리기: 일·가정 양립 : 일과 삶의 조화, 조직의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 : 가정과 조직생활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 제시</p>	<p>2강. 가정의 CEO 아버지: 아버지 사명과 역할 : 나에게 가족은? (어린시절과 현재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기) : 현재 아버지로서 역할 점검하기 : 좋은 아버지 역할 제시</p>
<p>3강. 코치형 아버지 되기 :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역할 : 코치형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방법 제시 : 코치형 방법으로 양육하면? 자녀와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p>	<p>4강. 스트레스 관리 3단계 : 스트레스 관리 3단계 : 관점변화, 활동변화, 환경변화, 연습과 실습 워크숍 :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분위기 긍정적 전환</p>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seoul.go.kr/popup/images/2015_father.jpg, 검색일: 2016년 4월 18일).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은 주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개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1-10>은 일부 운영 사례이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아버지 직장뿐 아니라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합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대 폭이 크다.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베이비마사지, 뮤직퍼포먼스, 레고스포츠활동, 요리놀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1-10〉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사례

센터	사업명	일시	대상	장소	내용
강북구	2016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4월23일(토) 10:00~11:30	어린이집 학부모 및	00어린이집 △△어린이 집	집합교육, 체험활동
		4월30일(토) 10:00~11:30	기업 내 남성근로자		
서초구	2016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4월15일(금) 11:30~13:00	(주)파리크라상 임직원	(주)파리바게 트 본사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3단계
		4월22일(금) 18:00~19:30	◇◇어린이집 아버지 학부모 및 자녀	◎◎어린이 집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3단계, 자녀와 함께 요리 만들기
	아빠와 함께 행복키움	4월23일(토) 10:00~12:00	서초구 거주 초등생1~3학 년 자녀와 아빠	2센터 서초구 열린육아 나눔터키움	*맛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 위해 아빠 - 자녀 함께하는 활동 *아빠 - 자녀 페이퍼 아트
	아버지 자조모임	4월1일~ 4월30일	서초구 관내 자녀양육에 관심있는 아빠	—	*정기 또는 상시아버지모임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녀양육 및 아버지역활세우기
	토요 프랜 대디	같이 키움	4월2일(토) 10시40분 ~11시40분	서초구 거주 6~15개월 자녀와 양육자	2센터 서초구 열린육아 나눔터 키움
사랑 키움		4월9일(토) 10시40분 ~11시40분	서초구 거주 16~36개월 자녀와 양육자	*토요프랜대디 실천을 돕기 위해 아빠랑 자녀가 함께 활동 진행 *아빠 - 자녀 뮤직 퍼포먼스 활동	

(표 II-1-10 계속)

센터	사업명		일시	대상	장소	내용
서초구	토요 프랜 대디	웃음 키움	4월16일(토) 10시40분 ~12시00분	서초구 거주 4~7개월 자녀와 아빠	2센터 서초구 열린육아 나눔터 키움	*토요프랜대디 실천을 돕기 위해 아빠랑 자녀가 함께 활동 진행 *아빠 - 자녀 레고스포츠활동
마포구	남성대상교육 '우리아빠최고'		4월14일, 21일(목)	1차 프로그램 참석한 아버지	이곡 아카데미	아버지교육 및 부-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아빠의 사랑을 신고		4월2일(토), 4월16일(토), 4월30일(토) 10시30분~1 2시30분	마포구 거주 부-자녀 (5~7세)	마포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버지자조모임 (미션복수행 및 활동준비) -신체활동(신나는 레고스포츠) -요리놀이를 통한 식습관 개선교육 -달콤한 가족파티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http://board.seoul.go.kr/dev/board/board.jsp?id=family_program,
검색일: 2016년 4월 18일)

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가) 현황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2월 14일, 국가 차원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허브 기구로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출범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검색일: 2016년 6월 16일). 현재 전국에 92개가 설치, 운영 중이다(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검색일: 2016년 6월 16일).

〈표 II-1-11〉 시·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전국 현황

구분	센터수	설치지역
서울	1	서울
부산	1	부산
대구	1	대구
인천	6	인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광주	3	광주, 동부, 서부
대전	1	대전

(표 II-1-11 계속)

구분	센터수	설치지역
울산	1	울산
경기	26	경기,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평택, 군포의왕,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충북	3	충북, 청주남부, 충주북부
충남	16	충남, 천안거점, 공주거점, 보령거점, 아산거점, 서산거점, 논산계룡거점,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전북	1	전북
전남	10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해남, 무안, 완도
경북	1	경북
경남	1	경남
제주	1	제주
세종	1	세종
계	93	

자료: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내부자료(2016).

학부모 역량 관련 업무는 다음 <표 II-1-12>와 같다.

<표 II-1-12>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역량 관련 업무

주요업무	대상 및 업무내용
학부모 역량강화	-모든 학부모 대상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로서의 역량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장 및 취약 계층 학부모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 -기관 및 문화단체 등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자녀의 학업과 생활지도에 도움을 줌
아버지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과 중요성 등 다양한 내용의 강좌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를 지원함
학부모 대학/평생교육	-모든 학부모 대상 -지역의 교육여건 및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사이버 학부모 강의	-모든 학부모 대상 -학부모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모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사이버 콘텐츠를 운영

자료: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p.44.

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아버지 학교참여 프로그램 사례

학부모지원센터의 아버지 학교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로 대상 범위가 넓지만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학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의 소개하는 2사례 중 인천광역시 사례는 초·중·고 아버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제주시 사례는 초등학교 아버지 대상으로 실시된 우수사례이다.

(1)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사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학교참여 프로그램은 캠프, 등산, 요리, 영화관람, 농촌체험 등 매우 다양하다. 강당, 과학실, 실습실, 화단, 다목적실 등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다양하다.

아버지 학교참여는 온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아빠 또는 삼촌 등 남자 친척만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운동 기술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아버지 교육기부단을 구성해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한다.

캠프, 요리왕, 농촌체험, 기차여행, 영화마당, 아빠직업 체험하기 등의 일회성의 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야간 순찰대 등 매주 일정한 요일에 진행되는 정기적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표 II-1-13 참조).

〈표 II-1-1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버지 학교참여 활동 목록

영역	프로그램 명	비고
자녀 와 함께 하는 활동	아빠와 함께하는 추억의 1박 2일 캠프	남자 친척 참여 가능, 엄마참여 원칙적 제외
	아빠와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	아버지 재능기부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	매월 정한 ○요일 저녁 7~8시에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만나서 담임교사와 아버지교육기부단 담당자가 운영
	아빠와 함께하는 트래킹(등산)	한 학기에 1회 토요일에 등산
	우리 아빠는 요리왕	평일 저녁에 과학실이나 실습실에서 실시
	온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마당	아빠포함 온 가족이 학교 강당에서 영화 관람

(표 II-1-13 계속)

영역	프로그램 명	비고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아빠와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	가정통신문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청량리역에서 출발
	온 가족 한바탕 운동회	가정통신문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가족 누구나 참여
	아빠와 함께하는 추억의 전원일기 농촌체험 활동	아빠 및 남자 친척 등 남자만 참여
	아빠와 함께하는 자전거 나들이	사진 참가 신청을 받아 토요일 오전에 실시
	아빠와 함께하는 푸른 텃밭 가꾸기	학교 화단을 이용해서 아빠 또는 남자 친척과 텃밭 가꾸기
학교 교육 참여 활동	아빠 모니터링단	학교교육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연 2회 간담회를 통해 개선의견 제시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매월 첫째주 수요일 아빠와 친구가 안아주는 프리허그 캠페인 실시(학교폭력·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학생의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직업군 파악, 1인 2개 강좌 신청 가능,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기부네트워크 활용
	우리 아빠 직업 체험하기	아버지교육기부단 일터에서 1일 직업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별 불일있는 저녁	학교운동장에서 실시
	'과학의달'아빠와 함께하는 과학상자 조립	학교다목적실에서 실시
	학교행사 도우미, 보조교사	사전에 신청받아 교통봉사, 시험감독, 야간숙소순찰, 안전지킴이 등 역할 부여
자원 봉사 활동	아빠 돌봄이	맞벌이가정 돌봄교실 운영에 아빠 돌봄이 배정, 월1회 운영
	아빠 페트롤! 야간 순찰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 자율실시,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 합동순찰 실시
	아빠 교통대	주1회(수요일)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아버지 명예기자단	사진촬영이 가능한 아버지 신청 받아 학교행사의 사진촬영
	사랑앓 김장 담그기	토요일 오전에 실습실 또는 과학실에서 실시, 담근 김치는 소외계층에 전달

(표 II-1-13 계속)

영역	프로그램 명	비고
행복한 아버지 교실	행복한 아버지 교실(아버지 역할, 대화법 등)	외부강사 초청, 총 4회 시청각실에서 실시
	도구를 활용한 자녀이해 검사	아버지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MBTI 등 전문검사지 실시

자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15). 아버지학교참여 운영매뉴얼. p.25. 비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함.

(2) 제주시 '인화좋은 아버지회' 사례

'인화좋은 아버지회' 활동사례로 제주 인화초등학교에서 2011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여자는 재학생 아버지뿐 아니라 이 학교 동문 및 지역인사도 포함하였다. 학교행사에 참여가 적은 아버지를 학교행사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지원하여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녀교육의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자녀와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에 오른 제주도 고장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도록 하며 학부모의 직업세계를 통한 학생의 진로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앞서 살펴본 인천시 서부교육청 사례와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야간선도 활동, 체육대회 도우미 및 체육대회, 요리교실, 과학캠프, 직업 체험의 날 등이 유사한 프로그램이며 '아빠와 함께하는 병영체험'이 이 학교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다. 활동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되었고, 가족의 달인 5월에 행사가 가장 많았다(표 II-1-14 참조).

〈표 II-1-14〉 제주시 인화좋은아버지회 활동 실적

시기	행사명	내용	장소
5~11월	야간선도 활동	학교 및 주변 순찰활동 (매주 화, 목)	학교 및 학교주변
4.16	세계자연유산 탐방 및 세계7대 경관 선정 홍보	-거문오름 동굴계 탐방 및 세계 7대 경관 선정 홍보 -농장에서 노루 관찰 및 여물주기	거문오름 일대 및 인근 농장
5. 9	인화 한마음 체육대회 도우미	-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및 정리 -체육대회 운영 도우미(심판) 활동	학교운동장
5.21	진로교육의 날 운영	-진로교육	본교6학년 교실
5.29	농촌 생태 체험	-지계를 저서 나뭇가지를 나르기 -비석치기 -들꽃 관찰하기	애월읍 유수암리

(표 II-1-14 계속)

시기	행사명	내용	장소
6.18	인화 동화 아버지 체육대회	-인화-동화 친선 체육대회	동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7. 2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요리하기 -엄마 초대하여 음식 대접하기	본교 급식실
7. 2	학부모 및 교직원 단합대회	-교직원 및 학부모 체육대회	본교 체육관
9.24	아빠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인공지능 로봇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신나는 과학세상 영상 시청	중문리조트
10. 1	직업 체험의 날 운영	-진로교육	본교 5학년 교실
10.22	자율 축구 지도 봉사 활동	-자율 축구 개인지도	운동장
10.22	아빠와 함께하는 병영체험	-제식훈련, 각개 전투 -화생방 훈련, 서바이벌 게임	제주93대대

자료: 2011 좋은아버지회 활동사례-제주인화초, <http://www.parents.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6년6월1일

4)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법」 의거하여 설립된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 담당을(동령 제6조) 목적으로 설치, 운영된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16개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 운영 중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교원 지원과 학부모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부모 지원을 위해 학부모 교육원 운영, 학부모 연수,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장혜진 외, 2013: 45).

앞서 살펴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비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아버지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찾기가 쉽지 않다.

다음 <표 II-1-15>는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교육원에서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재원아의 학부모 또는 조부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반 연수의 심화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아빠교육 프로그램이다. 20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하며 강의, 체험연수, 가족현장연수로 진행된다.

〈표 II-1-15〉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 일반연수 심화과정 중 아빠교육

항목	추진내용	시기	인원	비고
연수명	좋은 아빠가 만드는 행복한 가정! -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4월~11월	20명	3회 (강의, 체험연수, 가족현장연수)
	행복한 엄마! 행복한 육아! '문화 예술적 접근을 통한 유아의 인성 및 감성 지능 키워주기'	4월~11월	20명	5회(주 1회)
	연수 운영 평가 협의회	11월		

자료: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http://www.seoul.go.kr/03parents/training.asp?active=3&active=0&active=1>,
검색일: 2016년 6월 16일.

2. 국외 아버지 육아지원 제도 및 지원 정책⁵⁾

가. 독일

독일은 2007년 육아휴직 남성할당제(2개월)가 도입된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2007년 8.5%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도입 이후 2008년부터 20.8%(‘08), 23.6%(‘09), 25.3%(‘10), 27.3%(‘11)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32%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중 80%는 2개월을 사용하고 있다(David Juncke, 2013: 7; Commerzbank, 2015: 16).

한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주는 독자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은 2007년 아버지센터(Väterzentrum Berlin)를 공익재단 형태로 출범시켰다. 아버지센터는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6조⁶⁾에 근거하여 베를린 교육·지식연구부(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에서 사업비용을

5) 일본과 미국, 영국 등에서의 남성 대상 양육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유혜미 외(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p.45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별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홍승아 외(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p.37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구체적 사례(독일 파파라텐, 덴마크 코문 아빠놀이방)와 최근(2016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국가(스웨덴)를 중심으로 살펴봄.

6) 제16조 가정교육의 일반적 지원(Allgemeine Förderung der Erziehung in der Familie)

(3) 부모 및 예비부모는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제공되어 질 수 있다.
(4) 이에 대한 과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상세는 주법에 규정한다.

지원하고 있다. 아버지센터는 아버지들을 위한 공간과 교류, 모임 활성화, 공동체 형성 등의 역할을 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버지들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⁷⁾

아버지센터의 대표적 사업은 ‘파파라덴’(Papaladen, ‘아빠들의 공간’을 뜻함)인데, 이를 통해 육아정보와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열린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파라덴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육아 휴직 중인 아버지들을 위한 아빠카페’, ‘아빠-아이의 주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하는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기관과 협력하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에 있는 여러 병원을 통해 예비아버지를 위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뢰젠제 소년원에 구치되어 있는 미성년자들 중 자녀가 있는 청소년아버지들을 위한 그룹모임도 실시하고 있다.⁸⁾

이상의 주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파파라덴

아버지센터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파파라덴(Papaladen)이다. 매달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⁹⁾

가장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빠카페(Papa-Café)인데,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0세-2세까지의 영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 간에 서로 양육에 대한 정보, 경험,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류를 한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기는 하지만, 보통 아이 한 명당 5유로의 자율적 기부형식의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다.

한편, ‘가족-카페(Familiencafe)’ 프로그램도 있는데,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되며, 이 모임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서로간의 친분과 교류를 쌓고,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주선하며, 차와 식사, 놀이 등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카페 프로그램 역시 보통 자율적 기부형태로 아동 1명당 5유로의 비용을 받고 있다.

7)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1-Wir-ueber-uns>,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8)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2-Veranstaltungen>,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9)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174-Veranstaltungskalender>, 검색일: 7월 1일



자료: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23-Papa-Caf>, 검색일: 2016년 7월 1일.

[그림 11-2-1] 아버지센터 아빠카페 모임

마지막으로 ‘아빠-아이의 오후놀이(Papa-Kind-AbenteuerNachmittag)’ 모임은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놀이에 필요한 도구 및 기구에 대한 비용만을 받으며 아이와 아빠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70-Papa-Kind-AbenteuerNachmittag>, 검색일 2017년 7월 1일

[그림 11-2-2] 아버지센터 아빠-아이의 오후놀이 프로그램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크리스마스, 축구대회와 같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관련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육활동(Papa-Kind Turen)’, 예비아빠이거나 생후 첫 주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육(Craschkurs für werdende Väter)’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 아닌 경우에도, 아빠가 언제든지 아이와 함께 파파라텐을 방문하여 놀이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¹⁰⁾

2) 조언 및 상담

아버지센터에서는 이혼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혼 후 양육을 혼자 담당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법적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육아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동법적 자문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전문가에 의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아버지들을 위한 상담서(Ein Ratgeber für Väter nach Trennung)’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¹¹⁾

3) 여행프로그램

영유아기에 아이와 아빠가 깊은 교류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와 아빠가 집을 떠나 여행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3-6세, 6-10세, 10세 이상, 6-14세, 8세 이상 등)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¹²⁾

여행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따라 1년에 최소 1회 내지 2~3회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비용은 일정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연 3회 진행되는 ‘인디언 체험’의 경우 3-6세반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데, 비용은 110유로이고,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6-11세반의 경우 190유로 정도의 비교적 높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¹³⁾

4) 육아강좌

이혼한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육아지식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강

10)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2-Veranstaltungen>, 검색일: 7월 1일.

11)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5-Beratung>, 검색일: 2016년 7월 1일.

12)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77-Reisen>, 검색일: 2016년 7월 1일.

13)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80-Papa-Kind-Wochenende>, 검색일: 2016년 7월 1일.

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이혼을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연 2회 9주에 걸쳐 진행된다.

그 밖에 각종 워크샵, 세미나, 육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등 전문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개별적 등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¹⁴⁾

나. 스웨덴

1) 스웨덴의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정책¹⁵⁾

스웨덴은 복지의 선진형태로 알려진 유럽연합 내에서도 업무와 가정에 대한 의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유럽내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¹⁶⁾이 가장 높은 반면, 아동빈곤율은 가장 낮다는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특히, 아버지들도 충분히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직업과 가정 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 내에서의 양육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부모를 위해 유연한 휴직과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그 성공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아이와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는 노력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에서 양육에 관한 참여에 원인이 되고 있다.

2) 아버지 양육참여에 관한 비율¹⁷⁾

가) 시간제근무 종사

스웨덴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근무 종사자의 비율은 약 38.3%에 이르는 데, 이는 유럽전체 평균이 15.1%이고, 여성과 남성 평균이 각각 32.8%, 남성

14)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4-Experten>, 검색일: 2016년 7월 1일.

15)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검색일: 2016년 10월 23일.

16) 2014년 여성의 직업종사비율은 73.1%, 남성의 직업종사비율은 76.5%임.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2013년 기준 스웨덴의 출산율은 1.89명으로 동년대비 유럽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검색일: 2016년 10월 23일.

17)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검색일: 2016년 10월 23일.

9.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도 스웨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인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나) 아버지 육아휴직

스웨덴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8개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당 최대 16개월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6개월 중 13개월은 현재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최대 443,000 SEK(약 5천 7백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위한 최소비용은 일당 250 SEK(약 30만원)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에서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유럽전체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2005년 출생한 유아의 만 8세가 되는 시기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9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럽전체 평균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다만, 동 기간에 여성이 평균적으로 324일을 사용한 것에 비하면 사용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지 10% 정도의 아버지가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여성의 경우는 4% 정도가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양육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위한 보너스”를 도입하였다. 이 보너스는 양육수당에 대한 청구 외에 자녀 당 최대 13,500SEK(약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아버지 육아휴직과 아버지휴가

스웨덴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제도의 의무할당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이다.

2008년에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도입된 양성평등보너스제도는 각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유인책으로서, 육아휴직기간 중 각 부모에게 할당된 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을 동등하게 사용할 경우 세금 공제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의무할당 기간을 90일로 확대하면서, 양성평등보너스 혜택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양성평등보너스 혜택보다 할당기간의 확대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1> 스웨덴 육아휴직 할당기간 및 양성평등보너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육아휴직	개정된 육아휴직(2016. 1. 1.부터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
의무할당기간	부모 각각 60일(총 120일)	각각 90일(총 180일)
양성평등보너스	일 50크로나 (최대 13,500크로나)	일 50크로나 (최대 10,500크로나)

자료: 송지원(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p.84 표 1 보완

한편, 스웨덴 전문직 노조 연맹(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¹⁸⁾은 육아휴직의 남녀 동등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빠지수(Daddy’s index)”를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되는 통계는 국가 미디어는 물론 지역 신문들을 통해 보도되므로 더욱 아빠지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¹⁹⁾ 아빠 지수 산출에는 남성의 가족내 돌봄시간, 육아휴직 사용, 가사분담 태도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남녀가 똑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수가 100이 된다(홍승아 외, 2016: 8).

다. 덴마크

1) 경제적 지원 정책

덴마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양육수당의 최고액은 자녀의 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0세에서 2세 아동에게는 매년 17,616DKK(한화 약 30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3세에서 6세 이하 아동은 13,944DKK(약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6세부터 17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10,980DKK(약 19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매년 추가적으로 5,284DKK(약 90만원)과 자녀

18) 스웨덴어로 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이며 약어로 TCO로 칭한다. TCO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문 기타 자격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연맹이다. 130만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0%가 여성이다. 출처: <http://erc-online.eu/gendertoolkit-etuc/initiative/swedish-confederation-professional-employees-tco/>,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19) <http://erc-online.eu/gendertoolkit-etuc/initiative/swedish-confederation-professional-employees-tco/>,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1명당 5,184DKK(약 88만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Margit Schatzenstaller, 2014: 29).

2) 양육지원 정책

덴마크는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에게 2주간의 부성휴가가 주어진다. 부성휴가는 출산 후 14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산전 4주, 산후 14주: 총 18주)와 부성휴가 외에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는 부모 각각 32주이다.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부 합산 32주로 제한되며,²⁰⁾ 이 기간에 매주 최대 4,005DKK(약 68만원)까지 이전 소득의 100% 소득보상을 한다.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자녀를 둔 남성 중 부성휴가(의무사용) 2주만을 사용한 남성은 45%이며, 부성휴가에 더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37%, 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남성은 1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은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3~4개월에 달하며, 사회적으로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다.²¹⁾

3) 아버지양육 참여 프로그램

“Fars Legestue”는 덴마크에서 운영되는 ‘아빠놀이방’이다. 명목상으로 엄마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엄마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것은 아니고, 유럽 내에서도 아버지 양육참여의 좋은 사례로 제시되는 덴마크의 ‘아빠놀이방’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²²⁾

별도의 비용 없이 아이와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인 코문(Kommune, 가장 작은 단위의 지자체)마다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과 연계되기도 한다. 또한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놀이 후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시설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아빠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 친구들의 아빠들과 함께 어울리며

20) http://www.leavenetwork.org/fileadmin/Leavenetwork/Country_notes/2015/denmark.pdf,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21) http://www.leavenetwork.org/fileadmin/Leavenetwork/Country_notes/2015/denmark.pdf,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22) http://diepresse.com/home/bildung/schule/kindergarten/722086/Papas-Spielstube_Ohne-das-Weibergequatsche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지역 코문에서는 “아빠놀이방(Fars Legestue)”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지만, 보통 정기적으로 하루에 3시간(12시30분~15시30분) 가량 운영되며, 0~3세 사이의 아이를 둔 지역 남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시간 동안에는 보육교사가 상주해 있으며, 보육교사는 아빠들을 상담해주기도 하고, 놀이방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의사와 간호사 등이 와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²³⁾



자료: Følg Fars legestue på Facebook(<https://www.facebook.com/groups/51623911631/?fref=ts>), 검색일: 2016년 7월 1일

[그림 11-2-3] 덴마크 코문 아빠놀이방(Fars Legestue)

4) 세부 프로그램 내용

“아빠놀이방”은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달리 운영될 수 있으나, Kulturanstalten에 위치한 아빠놀이방의 개괄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아이와 리듬수업’이 있다. 이는 아이와 아빠가 악기를 통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악수업이다. 비용은 자녀 당 25DKR(한화 약 5천원)이다. 두 번째, ‘아빠와의 놀이그룹’이 있다. 이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은 없다. 세 번째 ‘토요일 리듬수업’이 있다.

23) <http://www.aarhus.dk/farslegestue/>, 검색일: 2016년 6월 17일.

이는 토요일에 개최되는 강좌로 0~16개월까지, 1세~3세까지, 6세 이상 등의 그룹을 나누어서 아빠와 함께 노래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비용은 25DKR(약 5천원)이다. 네 번째는 ‘타이거 교육’이 있다. 이는 아동 이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전투게임과 같은 모션게임과 요가, 가족체조 등과 같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목요 어린이집’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아자녀가 장난감이나 놀이를 통해 아빠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0세에서 2세까지가 대상이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늑대의 시간에 함께하는 리듬’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2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둔 아빠와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²⁴⁾

3. 선행연구²⁵⁾

가. 국내 연구

1) 아버지 양육 참여의 효과성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만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해당 아동뿐 아니라 가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이미현, 최혜순, 2014).

최근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연구들은 영아발달특성, 영유아 행복감, 유아의 학습행동,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정서조절능력, 사회성, 학교준비도, 학교생활적응, 또래유능성 등 영유아의 전반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 영아기 아버지 양육 참여 효과성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향준(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

24) <https://kulturanstalten.kk.dk/artikel/fars-legestue>, 검색일: 2016년 10월 23일

25) 양육역량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로 국한하기 보다는 ‘부모역량’ 주제로 이루어졌다. 부모역량관련 선행연구는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2013)의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가 있는데 본 연구는 동 보고서를 토대로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며, 따라서 이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3장 이하에서 다루기로 한다.

아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이 주 양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신애선, 김경후, 유지은(2015)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나들이하기, 등산, 외식, 동·식물원, 놀이터, 영화관 등에 함께 참여하는 여가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영아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자녀와 말과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자주 놀아주는 양육참여를 보일수록 사회성이 발달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으며,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여 친사회성이 발달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유아기 아버지 양육 참여 효과성

조경진, 안선희(2015)연구는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가정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유아의 원활한 발달 뿐 아니라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효과로 도금혜(2008)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학교생활적응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지도 참여가 많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으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 개방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연구로는 한누리, 문혁준(2014)의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내용 중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을 지지해 주는 '발달적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활동 하위 요인 중 '주의와 지속'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유아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유아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책을 읽는 등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면 유아는 깊이 몰두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미숙, 송순옥(2014)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 또래유능성에도 유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익새, 남은영(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척도를 최미숙 외(2014)의 연구와 다르게 적용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아버지 양육 관련 척도 개발 연구

아버지 양육관련 척도 개발 최근 연구로는 최혜순, 이미현(2015)의 연구와 양진희(2015)의 연구, 박은주, 김영희(2015)의 연구, 정계숙, 강정아, 류수민(2016)의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척도 개발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비슷하게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연구대상자와 전문가들의 자유응답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통한 척도를 제작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조사를 실행한 후,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행한 뒤 정제된 문항을 만든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제된 문항을 가지고 본조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최혜순, 이미현(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양육참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정의를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모든 과정에서의 직·간접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양육행위라고 정의하고,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 요인 및 문항수를 선행연구를 통해 7개의 요인과 52개 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결정한 최종 척도의 요인은 5요인 19개의 문항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요인은 자기성장,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서는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연구 대상의 제한적 표집(지역적 제한)과 유아기의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있으며, 신뢰도 검토 안에서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양진희(2015)의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에서는 국내 양육행동 측정도구들이 외국 선행연구들을 번안 및 수정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이 외국

선행연구들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의 사회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아버지 양육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앞선 최혜순, 이미현(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와 아버지들로부터 받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버지 양육행동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은 자율성 격려, 수용적 반응, 독립성 격려, 공감적 관심, 애정적 표현, 훈육적 지지로 총 6개 요인,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에서 척도의 문항 변별도, 타당도, 신뢰도 검증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표집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고, 각 유아교육기관장을 통한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에 따른 아버지의 특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은주, 김영희(2015)의 연구는 아동기 아버지의 역할에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역할수행 척도를 개발하고, 역할수행에 매커니즘이 되는 역할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대상이 되며, 예비조사 후 선정된 하위요인에는 역할정체감에서는 역할유능감, 역할혼란의 2가지, 역할수행에서는 조력자, 정서적 지지자, 공동양육자, 활동공유자, 경제적부양자의 5가지로 총 2차원 7가지 하위 요인에서 71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결과에서는 두 차원의 모든 척도가 타당도 및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특정 요인에서 문항 수가 적게 있는 것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할 수행이 아동기의 아버지 보다 유아기의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필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나타나있다.

정계숙, 강정아, 류수민(2016)의 연구는 어머니 대상으로 한 '부모 참 역량' 척도를 아버지 버전으로 만든 연구이다. 이 척도의 특징은 '부모 참 역량'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부모의 역량을 양육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개발된 '어머니 부모 참 역량'을 아버지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하였으며, 아버지들의 의견을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본 조사를 실행한 뒤,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이 연구 또한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타당도 및 신뢰도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양진희(2015)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원척도는 어머니 척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치원 3곳과 직장어린이집 2곳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한정시켰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대한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남성의 양육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남성의 육아참여에 관한 연구는 남성들의 양육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도남희, 이정원, 김문정(2012)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시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써, 기업 내 자녀양육 지원 제도 및 실태 요구를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의 자녀양육실태를 살펴보면, 양육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주로 부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55.5%), 세부적인 양육활동의 경우나 본인이나 다른 배우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양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23.6%), 유연근무제(17%), 사회적 인식 전환(15.6%)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시행률이 높은 제도는 출산전후 휴가제도(38.8%), 육아휴직제도(27.2%),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5.0%), 유·사산 휴가제도(14.4%) 등 순이었으며,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는 8.9%에 불과하였다. 또한, 제도 이용기간은 출산전후 휴가제도 78.2일, 유·사산 휴가제도 25.8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3.4일, 육아휴직제도는 197.7일이었으며,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는 31.9일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방향으로 적정근로시간 의무화, 남성의무휴가제도 도입, 자녀양육에 대한 양성평등 노력 제고 등을 정책과제로 도출하였다.

이정원, 도남희, 김세현, 나혜진(2012)은 가정 내 양육실태와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하고,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정 내 양육환경을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부모의 양육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일-가정 양립환경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근로시간이 짧고 다양한 시간대에 근로를 하고 있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하는데 용이하였으며, 아버지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30%가 넘어 주중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참여 실태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주중 약 1시간 35분 정도를 자녀 양육에 할애하며, 주말에는 3시간 36분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어머니의 평균 주중(약

11시간 2분), 주말(약 11시간 12분) 자녀양육 할애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취업부모의 양육 참여 가능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 계획을 통한 정시 퇴근문화의 확산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유해미, 정주영, 양유진(2013)은 영유아를 둔 남성들의 아버지 역할인식 및 욕구와 양육참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남성대상 양육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조사에는 평소 가정내 자녀 양육 참여율과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양육지원 제도 이용율과 수요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남성의 양육실태와 욕구를 살펴보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한 대응의지는 높으나, 양육기술과 훈육 방법에 대한 자신감은 낮아 인식과 실행간의 간극이 예상되었다. 남성들의 평균 양육 참여시간은 주중은 약 2시간 18분, 주말은 약 6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내가 자신보다 양육이 더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9%에 달하였다. 친구 같고 자상한 아버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7.1%와 26.4%에 달하며, 엄격하고 일을 많이 하는 아버지로 자신을 평가한 비율이 약 29.2%로, 이들 중 일부는 아버지 역할 수행 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 제도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남성의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할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서울시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문은영, 서영주, 최나리(201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남성의 가족 생활 참여 지원관련 법적근거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정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홍승아, 이인선 2013)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발전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2008~2015)에서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도와 배우자 만족도 등을 일부 조사하고 있으며(이정림 외, 2015: p.32),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1~2015)는 남성들의 양육지원제도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를 통해서도 남성들의 양육 참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김영옥 외, 2015: pp.194-195).

나. 국외 연구

Easterbrooks·Goldberg(1984)는 신생아 때부터 아버지와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한 자녀는 행후 6개월 때 베일리 영아발달 척도에서 또래보다 높은 인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유아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Yogman·Kindlan·Earls(1995)는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한 아이는 3살 때 또래보다 IQ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7)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한 자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Howard·Lefever·Borkowski·Whitman(2006)은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학업성적이 좋다는 사실과 함께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나 사회정서적 측면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Flouri(2005)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한 경우 미래에 자녀의 성공과 경제적 능력 등의 측면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자녀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좋은 교육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Biller(1993)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한 경우에는 인내심, 이해력, 사회적, 도덕적 성숙을 지닌 성인으로 자라며,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경우 자녀는 훨씬 더 긍정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Mischel·Shoda·Peake(1988)은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란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문제해결 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²⁶⁾

Parke(2000)는 아이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고유한 영향에 대해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라 하였는데, 이는 친절하고 자주 칭찬하고 도와주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를 둔 아이들보다 인지능력과 어휘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친한 아이들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잘 웃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쓰는 일이 적으며,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참을성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엄마와도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26) 이상의 내용은 Sarah Allen & Kerry Daly(2007).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 Updated Research Summary of the Evidence Inventory, University of Guelph, pp.1-5 참조.

다. 시사점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해외의 많은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의 인지 능력,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보다는 아버지 양육태도와 접근방법(교육)에 관한 연구(Michelle, 2012)나 젊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Richard, 2012)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고, 해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이미현·최혜순(2014)의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효과성을 유아기뿐 아니라 학년기 또는 청소년기까지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존재한다. 청소년 발달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이다(조선화, 2004).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성 연구들은 아버지 집단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 특정 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여러 양육참여의 효과성을 조사한 연구들에서 아버지 조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전국 단위의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최근에 아버지 양육참여를 다룬 정책연구들은 아버지 양육의 실태 및 제도 개선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이용의 애로점, 자녀양육 참여 시간 및 참여 정도, 양육 참여의 방해 요인, 요구사항 등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양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그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관심을 아버지 개인(또는 특성별로 그룹화)으로 돌려서 아버지들이 양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육역량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아버지 양육실태 및 양육역량 지표개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아버지 양육실태 및 역량 Self-체크리스트」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에 개발한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를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 수정, 보완하여 조사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먼저, 2013년도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맞춰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한 근거 및 내용을 제시한 다음, 2013년과 2016년의 체크리스트를 비교 정리하였다.

1. 2013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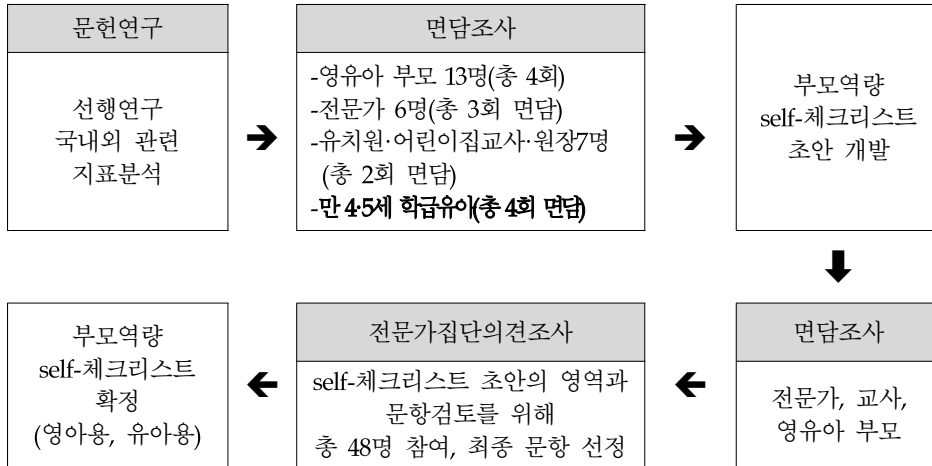
가. 개요

본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2013년도의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이하,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장혜진 외, 2013)의 개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도 부모역량 Self-체크리스트 개발 목적은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체크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모역량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관련 지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국내 지표로는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를, 국외 지표는 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복지,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등 성인 면담과 아울러 유아 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아 면담은 성인과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가능한 만 4, 5세 유아 대상으로 대집단 면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한 개인 면담, 그림그리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유아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내용을 지표개발에 반영한 것은 기존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아동 입장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지표에 담으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음의 <표 III-1-1>는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III-1-1〉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한편,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의 제한점으로는 절대적 수치로 개인의 부모역량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동일 문항에 대해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응답할 수 있다는 점(장혜진 외, 2013: 19)을 지적하였다.

나. 부모역량 영역 및 문항

1) 영역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의 영역은 총 6개 영역이다. 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웰빙지표,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의 각 범주를 유사한 내용끼리 유목화 한 결과(장혜진 외, 2013: 77),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의 6개 영역을 추출하였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6개 영역 추출 과정

구분	OECD 아동웰빙 지표	UNICEF 아동웰빙 지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 지수	한국주요 아동지표 2006	영유아 부모 역량영역
영역	물질적 지원	물질적 복지	경제여건	아동빈곤	→ 물리적·물질적 환경

(표 III-1-2 계속)

구분	OECD 아동웰빙 지표	UNICEF 아동웰빙 지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 지수	한국주요 아동지표 2006		영유아 부모 역량영역
영역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건강	건강, 안전	→	건강과 안전
	교육적 웰빙	교육복지	시간활용/ 학교	교육 및 보육		놀이
	주거와 환경	-	생활지역	가족구조 및 생활		물리적·물질적 환경
	학교의 질	-	-	-		-
	위험 행동	행동과 위험	-	비행 및 일탈		생활지도
	-	관계	가정/대인 관계	아동의사회참여와 생활		가족관계
	-	주관적 복지	자기 자신	-		-
	-	-	-	사회적보호		-
	-	-	-	아동인구		-
	-	-	-	-		지역사회 연계
	-	-	-	-		영유아 발달

자료: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p.78.

한편, 6개 영역의 각 문항에 대해 부모의 인식 역량, 실행 역량, 성장 역량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인식은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실행은 '직접 실천한다'는 의미이며 성장은 부모가 '성찰하고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이 역량은 정대현·신원애(2012)의 부모역량의 구성요소에서 일부 차용한 개념이다.

2) 문항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은 최종 문항수에 대비하여 2~3배 만큼의 문항을 준비하고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를 통해 빈도수가 가장 많은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테면, 48명의 전문가들에게 총 4개 문항을 주고, 이 중에서 2개를 표시하도록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문항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 발달' 영역에서 '인식 역량의 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중 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문항을 결정한 과정은 다음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최종 선정 과정 일례

※ 전문가 집중의견조사 검토문항 일부

구분	선택문항		문항
	수	표시	
인식 역량	공통	2	1. 나는 '애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3. 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의 균형적 발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전문가 집중의견조사에서 가장 많이 체크된 문항 최종 선정

구분	빈도	문항	
			37
인식 역량	공통	16	2. 나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27	3. 나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모습을 알고 있다.
		22	4. 나는 아이의 균형적 발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자료: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p.157, p.80 표 일부 재구성

전문가 집중 의견조사에서 신규로 나온 문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67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7개 영역과 3개 역량에 따라 문항 수 구성은 다음 <표 III-1-4>와 같다. 가족관계가 16개 문항으로 가장 많고, 놀이 영역과 건강과 안전 영역이 각각 12개, 11개로 비슷하고, 물리적·물질적 환경 9개, 영유아 발달 8개, 생활지도 7개 순이며 지역사회 연계가 4개 문항으로 가장 적었다. 역량별로는 실행역량이 43개로 가장 많고, 인식 14개, 성장 10개로 구성되었다.²⁷⁾

〈표 III-1-4〉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최종 선정된 공통문항수 구성

영역 역량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 관계	물리적 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 사회	계
인식역량	2	2	3	2	3	1	1	14
실행역량	5	8	10	6	8	4	2(2)	43
성장역량	1	1	3	1	1	2	1	10
계	8	11	16	9	12	7	4	67

주: ()은 공통문항이 아님.

27) 장혜진 외(2013) 연구의 p.79에는 총 문항수가 68개로 되어 있으나, 연령별 공통 문항수는 67개임.

영아용과 유아용 2종의 공통 문항과 비(非)공통 문항의 구성을 보면,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공통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3개 영역(건강과 안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도 인식과 성장은 공통문항이고 실행역량에서 일부 문항을 차이를 두었다(표 III-1-5 참조). 실천 내용이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건강과 안전 영역의 실행역량에서 영아용은 '나는 영아의 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 등을 고려하여 양육한다'라는 문항을 넣었다면, 유아용에는 '나는 아이에게 성폭행, 유괴 등의 위협상황을 인지시키고 그 대처법에 대해 지도한다'는 문항이 들어갔다.

역량의 개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잠재능력까지 포함된 용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I장 4절 참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실행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알고 있는 인식(지식) 역량이나 성찰적 의미의 성장역량은 잠재능력으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연령과 무관하게 공통문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II-1-5〉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영아·유아용 공통 및 비공통 문항 구성

영역 역량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	가족 관계	물리적 물질적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 사회
인식역량		공통		공통	공통		
실행역량	공통	6개 공통 3개 비공통	공통	4개 공통 2개 비공통	6개 공통 2개 비공통	공통	공통
성장역량		공통		공통	공통		

출처: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의 pp.80~85를 참조하여 공통 문항과 비공통 문항을 정리함.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놀이, 가족관계, 영유아 발달, 건강과 안전이 .800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물리적·물질적 환경은 .711로 나왔다.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추후 문항 수정이 필요하다(장혜진 외, 2013: 89).

〈표 III-1-6〉 2013년 부모역량 체크리스트 신뢰도 분석

영역	Cronbach's α		
	전체	영아	유아
영유아 발달	0.810	0.797	0.822
건강과 안전	0.804	0.779	0.825
가족관계	0.850	0.825	0.866
물리적·물질적 환경	0.711	0.653	0.757
놀이	0.855	0.830	0.875
생활지도	0.541	0.530	0.550
지역사회 연계	0.656	0.608	0.707

출처: 장혜진 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p.89.

2. 본 연구의 지표 개발 과정

가. 2013년 체크리스트 문항 검토

기존 2013년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부모 중 부(아버지) 203사례만을 뽑아서 67개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문항의 변별도 검사에서 변별력이 낮은 문항들이 나타났으며, 구성영역에서 어머니가 포함된 분석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던 영역도 3~4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사의 신뢰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검사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양호도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전반적인 문항은 체크리스트의 특징인 정적편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문항 변별도는 39번 문항(0.15)과 60번 문항(-0.03)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척도 개발 시, 이 문항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항 변별도는 0.4 이상이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0.2 미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성태제, 2004).

<표 III-2-1> 2013년도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영아용)²⁸⁾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문1	203	4.28	0.60	0.41	0.84
문2	203	4.07	0.82	0.59	0.82
문3	203	3.99	0.76	0.55	0.82
문4	203	3.96	0.83	0.65	0.81
문5	203	4.04	0.78	0.64	0.81
문6	203	3.91	0.63	0.58	0.82
문7	203	4.00	0.74	0.51	0.83
문8	203	3.93	0.95	0.63	0.81
문9	203	3.89	0.80	0.48	0.74
문10	203	3.96	0.70	0.36	0.76
문11	203	4.13	0.67	0.43	0.75
문12	203	4.26	0.75	0.37	0.76
문13	203	4.08	0.71	0.41	0.75
문14	203	3.94	0.80	0.38	0.76
문15	203	3.99	0.68	0.51	0.74
문16	203	4.27	0.70	0.42	0.75
문17	203	4.16	0.74	0.52	0.74
문18	203	3.93	0.78	0.46	0.74
문19	203	3.94	0.75	0.44	0.83
문20	203	4.20	0.63	0.31	0.84
문21	203	4.13	0.64	0.44	0.83
문22	203	3.79	0.77	0.47	0.83
문23	203	3.95	0.85	0.35	0.84
문24	203	3.98	0.78	0.49	0.83
문25	203	4.14	0.59	0.38	0.83
문26	203	4.17	0.65	0.45	0.83
문27	203	3.99	0.69	0.44	0.83
문28	203	3.73	0.88	0.48	0.83
문29	203	4.06	0.74	0.50	0.83
문30	203	4.07	0.68	0.54	0.83
문31	203	4.09	0.66	0.51	0.83
문32	203	3.78	0.85	0.53	0.83
문33	203	3.80	0.83	0.58	0.82
문34	203	4.09	0.63	0.36	0.84
문35	203	4.08	0.64	0.39	0.60
문36	203	4.02	0.60	0.35	0.61
문37	203	3.96	0.70	0.45	0.58

28) 유아용의 분석 결과는 부록으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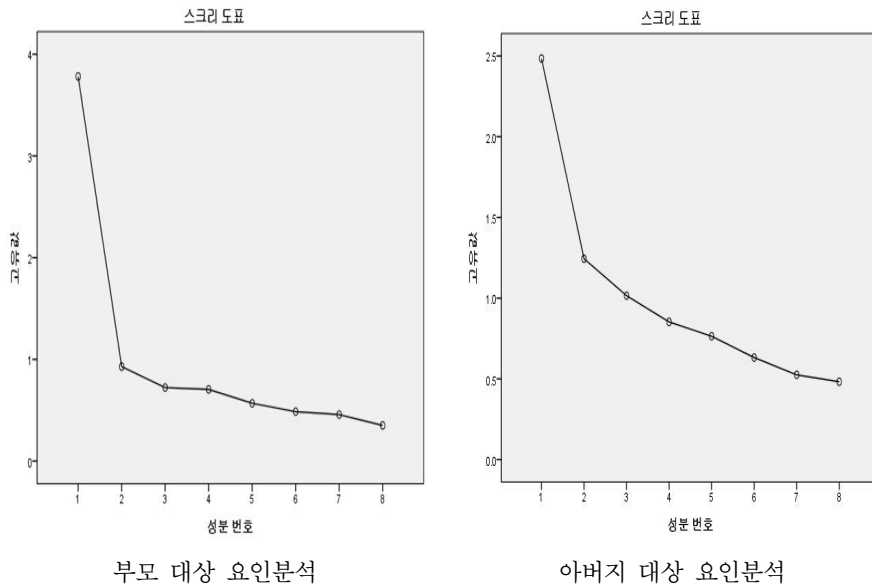
(표 III-2-1 계속)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문38	203	3.89	0.74	0.50	0.57
문39	203	4.28	1.53	0.15	0.73
문40	203	3.69	0.84	0.39	0.59
문41	203	4.05	0.72	0.39	0.59
문42	203	4.08	0.70	0.41	0.59
문43	203	3.92	0.82	0.58	0.86
문44	203	4.18	0.64	0.43	0.87
문45	203	4.17	0.68	0.37	0.87
문46	203	4.12	0.71	0.41	0.87
문47	203	3.86	0.82	0.52	0.87
문48	203	3.98	0.73	0.58	0.86
문49	203	4.01	0.77	0.55	0.86
문50	203	3.96	0.75	0.65	0.86
문51	203	3.97	0.77	0.54	0.87
문52	203	3.98	0.75	0.48	0.87
문53	203	3.94	0.78	0.62	0.86
문54	203	4.04	0.75	0.51	0.87
문55	203	3.78	0.86	0.58	0.86
문56	203	3.80	0.86	0.64	0.86
문57	203	3.89	0.72	0.41	0.49
문58	203	3.91	0.70	0.50	0.45
문59	203	4.09	0.67	0.41	0.49
문60	203	3.15	1.08	-0.03	0.70
문61	203	4.01	0.66	0.32	0.52
문62	203	3.82	0.75	0.37	0.50
문63	203	3.88	0.73	0.28	0.53
문64	203	3.57	0.93	0.61	0.72
문65	203	3.60	0.86	0.61	0.71
문66	203	3.54	0.87	0.52	0.76
문67	203	3.68	0.80	0.61	0.72
전체 신뢰도(부모)		0.95	전체 신뢰도(아버지)		0.96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의 [그림 III-2-1]에서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이 되는 성분이 하나가 존재할 때,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된다고 판단하는데(이순목, 1994),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1.0 이상의 성분이 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수렴되는 영역이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정시켰을 때, 하나 이상의 영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역 간의 통합 및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2-1] 2013년도 체크리스트 요인분석 결과(영유아발달 영역)

나. 수정·보완 방향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의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의 기본 틀을 토대로 아버지에 초점을 두고 영역과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첫째, 총 문항수가 많아지면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문항수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유사 문항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영역끼리 통합하였다. 아이는 놀이를 통해 성장, 발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영유아 발달'과 '놀이' 영역을 합쳤다. 예컨대, 발달 영역에 있는 “나는 ~~놀잇감이나 사물, 자연물을 제공한다”는 자녀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 놀이 영역에 있는 “나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놀잇감을 찾아준다”도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발달 영역으로 옮겨와도 무방한 문항이다. 아동기의 발달과 놀이는 불가분한 관계이므로 두 영역을 통합하고 중복 문항을 합치면서 문항수를 조정하였다.

둘째, 2013년 신뢰도 분석에서 낮게 나온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유사 문항이 많은 영역과 통합하였다. 앞서 2013년도 영역별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영역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생활지도’ 영역은 ‘건강과 안전’ 영역과 통합하였고, ‘지역사회 연계’는 ‘물리적·물질적 환경’과 통합하였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문항은 건강과 안전 영역에 넣을 수도 있고, 생활지도 영역에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과 안전 영역에 있는 “유아 자녀에게 칫솔질을 하루 3번 이상 하도록 지도한다”는 관점에 따라 생활지도 영역에 편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생활지도 영역의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위해 지도를 한다”라는 문항과 중복된다. 이러한 문항들이 많은 영역은 통합하고 자녀 연령별로 문구의 차이를 두고 수정하였다.

또, 물리적·물질적 환경과 지역사회 연계 두 영역을 통합하여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로 명명하였다. 물질적 환경은 곧 물리적 환경으로 수렴되므로 물리적 용어로 통합하였고, 이를 지역사회 연계와 구분되도록 ‘가정 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물리적·물질적 영역의 문항을 보면, ‘집을 정리정돈 한다’ ‘놀이감을 구비하고 있다’ ‘자녀의 생필품을 구비한다’ 등 가정 내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표 III-2-2〉 유사 문항 및 영역 간 통합

2013년			2016년
건강과 안전(유아용)	생활지도 (공통)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문 17. 나는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한다	문 58.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질서 등)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지도를 한다	→	* <u>영아용</u> 나는 자녀가 기본생활(수면 시간, 식습관, 배변 등) 습관이 들도록 지도한다. * <u>유아용, 초등저학년용</u>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칫솔질 등)을 지도한다.
※ ‘건강과 안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간의 유사 문항이 많아 두 영역을 합치면서 문항을 자녀연령에 맞게 용어를 구체화하고 문장을 명료화함.			

(표 III-2-2 계속)

2013년		→	2016년
영유아 발달	놀이		발달과 놀이
물리적·물질적 환경	지역사회 연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셋째, 너무도 기본적인 문항이거나 응답하기가 애매한 문항, 중복되는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내어 놀면서 상호 작용한다”(영아)는 “나는 아이와 놀이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공통)에 하위 문항으로 볼 수 있어서 중복 문항으로 보고, 삭제하였다. 그리고 “나는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공통) 문항은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길어서 “나는 자녀와 신나게 놀아준다”로 포괄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문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2013년 문항 분석에서 변별도가 낮게 나온 문항은 이번 체크리스트에서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였다. 변별도가 -0.03점으로 가장 낮은 60번 문항은 삭제하였다.

〈표 III-2-3〉 2013년 문항 중 삭제 일례

문항	삭제 사유
문 15. 나는 아이의 기분(마음 건강)을 살피며 확인한다	응답하기 애매함
문 17. 나는 아이가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도록 지도한다	중복(표 III-2-1 참조)
문 54. 나는 아이와 까꿍이나 잼잼 등 소리내어 놀면서 상호 작용한다	중복(표 III-2-3 참조)
문 60. 나는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난다	문항 변별도가 -0.03점임

넷째,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장을 명료화하였으며 용어도 응답자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응답자가 아버지(남성)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문항은 거의 없으나, 응급처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특화하여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로 수정했고, 인식 역량에서 실행 역량으로 이동하였다. 자녀의 예방접종을 실행하는 문항도 기존에는 부모에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었다면,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그리고 변별도가 0.2이하인 문항 39번²⁹⁾은 유아용에서는 변별도가 0.36으로

29)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의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한다’임.

나왔고, 내용타당도 검토에서 필요한 문항으로 판단, 삭제하지는 않은 대신, 문장을 명료화하여 응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2013년과 2016년 동일 문항의 문구 수정 일례

2013년	2016년
문 4. 나는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인지적 발달 지원 나는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정서적 발달 지원 나는 자녀와 신나게 놀아준다
	*사회적 발달 지원 나는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 9. 나는 아이의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인식)	나는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실행) ※아버지에 맞춰 문장을 구체화함
문 12. 나는 시기에 맞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맞춘다.	나는 자녀가 예방접종을 할 때 같이 간다 ※아버지에 맞춰 문장을 수정함
문 13. 나는 가정 내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을 위해 위험행동을 아이에게 알리고 지도한다	나는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문 26. 나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 충분히 표현한다	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문 3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부모교육 또는 아버지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문 35. 나는 아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정신적·신체적·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 39.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조절한다	나는 아이가 일정시간만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문 52. 나는 아이와 하는 놀이에 참여하며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나는 자녀와 신나게 놀아준다

다. 신규 영역 및 문항 추가

첫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까지 확대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용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를 추가 개발하였다. 영아용과 유아용의 문항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용도 공통문항이 대부분이며 특히, 유아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자녀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실행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사나 서술어를 수정하였다.

요컨대, 자녀연령에 따른 명사나 서술어의 차이를 둔 것은 응답의 정확성을 얻고자 함이며 문항의 질문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니다.

〈표 III-2-5〉 2016년 자녀연령별 문구 차이 일례

영역(역량)	자녀연령	문항
발달과 놀이 (실행)	영·유아용	나는 자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다
	초등저학년용	나는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실행)	영아용	나는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
	유아초등저학년용	나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일부 영역에서 아버지 면담조사 및 문헌자료 등을 참조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III-2-6〉 2016년 신규 문항

영역(역량)	문항	비고
가족관계(실행)	나는 아내와 양육관(교육관) 차이로 다툰 적이 있다	아버지 면담조사 반영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인식)	나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명, 반이름,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나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브로셔(2016)

셋째, 아버지 양육역량 척도 문항은 아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폭력의 대물림, 학대의 대물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자녀학대를 한 부모의 60%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뉴스, 2015년 12월 22일자).

이처럼 양육관이나 실제 양육방식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 점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들도 이러한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본인의 현재 양육관이나 양육방식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을 기억하는 문항으로 개발하

였다. 이 영역은 과거를 유추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문항 중심으로 총 10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표 III-2-7〉 2016년 신규 개발한 ‘아버지와의 관계’ 실태 문항

문항(10개 문항)	비고
나의 양육관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타 영역과 동일하게 5점 척도
나의 실제 양육방식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웠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체벌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유년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나와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한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자녀는 친밀하다	
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명절, 생신, 제사, 기념일에 찾아뵙는 것은 제외)	
나는 아버지의 양육관이나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3. 본 연구의 지표 구성 내용

가. 개요

2016년도의 아버지 양육실태 및 역량 체크리스트의 영역은 4개 영역의 문항 수는 51개이다. 2013년도의 7개 영역에서 유사, 중복이 많은 문항들이 많은 영역끼리 통합하여 4개 영역으로 재구성하고, 신규문항을 추가로 선정하여 확정하였다. 4개 영역은 2013년과 동일하게 인식, 실행, 성장 3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역량이 33개로 가장 많고 인식 11개 문항, 성장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2013년의 비율 순과 동일하다.

2016년의 체크리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까지 대상으로 하므로 총 3종으로 구성되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 한정적이라 판단, 2016년에는 영아용에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를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하였다.

〈표 III-3-1〉 2013년과 2016년 체크리스트 비교표

	2013년 버전		2016년 버전	
영역	7개 영역	I. 영유아 발달 II. 건강과 안전 III. 가족관계 IV. 물리적·물질적 환경 V. 놀이 VI. 생활지도 VII. 지역사회 연계	4개 영역	발달과 놀이(I+V)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II+VI) 가족관계(III)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IV+VII)
문항수	67문항		51문항	
종류	영아용, 유아용		영아용, 유아용, 초등저학년용	
척도	5점 척도			
비고	2016년 영아용은 생후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함.			

〈표 III-3-2〉 2016년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 영역과 문항수 구성

영역 역량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 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계
인식역량	2	3	2	4(3)	11
실행역량	9	9	8	7	33
성장역량	2	3	1	1	7
계	13	15(16)	11	12(11)	51

주: 건강과 안전 및 생활지도의 괄호안은 유아 문항수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사회지역의 괄호안은 영아 문항수임.

앞서 설명했듯이 영역과 문항수를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응답자의 신뢰로운 응답을 얻기 위함이다. 일반인 아버지 대상의 직접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너무 많은 문항 수와 한번 읽고 바로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응답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Self-체크리스트 개발에 있어 이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2013년 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하였다.

나. 영역

1) 발달과 놀이

기존의 영유아 발달 영역과 놀이 영역을 합치고 ‘발달과 놀이’로 명명하였다. ‘발달과 놀이’ 영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연령별 발달 특

성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해 놀이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지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행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균형 있는 발달성장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성장에서는 자녀와 놀이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행복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묻는 목적이 동일한 문항이라 하더라도 자녀 연령에 따라 실행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항은 용어를 연령에 맞게 수정하였다. 영유아용은 그림책으로 초등학생용은 동화책으로 제시하였고 서술어도 영유아용은 “읽어준다”라고 했다면, 초등학생은 “읽는다”로 문구를 조정하였다.

〈표 III-3-3〉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발달과 놀이영역

역량	문항	연령별 차이
인식	나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동일
	나는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동일
실행	나는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영유아용
	나는 자녀와 함께 동화책을 자주 읽는다	초등용
	나는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동일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동일
	나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낸다	동일
	나는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일
	나는 자녀의 놀잇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동일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동일
	나는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동일
성장	나는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동일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하다	동일

주: 연령별 차이 문항은 용어만 다르고 질문의 목적은 동일함.

2)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기존의 건강과 안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을 통합하고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라고 명명하였다. 총 15개 문항(유아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비상약품의 위치,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문제행동을 할 시(떼부리거나 울거나 할 때) 대처방법이 있는 지를 인식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실행역량은 실제 실천하는 행위를 묻는 문항으로써 연령에 상관없는 공통 문항과 연령별에 따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행역량 문항 9개 중에 연령에 상관없는 공통문항은 7개, 연령별에 따른 문항은 2개이다.

성장역량은 자녀의 문제행동이 자신의 양육태도와는 관련이 없는 지를 성찰해 보는지, 음주와 흡연을 자녀를 위해 자제하는지를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표 III-3-4〉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

역량	문항	연령별 차이
인식	나는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동일
	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동일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동일
실행	나는 자녀가 예방접종할 때 같이 간다	동일
	나는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동일
	나는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동일
	나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유·초 저학년용
	나는 위험한 물건들은 자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동일
	나는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동일
	나는 영아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	영아
	나는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	유·초 저학년용
	나는 자녀가 기본생활(수면시간, 식습관, 배변) 습관을 지도한다	영아용
	나는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칫솔질 등)을 지도한다	유·초 저학년용
	나는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일
나는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동일	
성장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나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동일
	나는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동일
	나는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동일

주: 연령별 차이 문항은 용어만 다르고 질문의 목적은 동일함.

3) 가족관계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인식역량 2개, 실행역량 8개, 성장역량 1개로 구성하였다. 실행역량에서 한 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8개 문항이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구로 제시하였다. 연령별 용어차이를 둔 '나는 아내와 양육관(교육관) 차이로 다툼 적이 있다' 문항은 이번 연구의 신규문항이며, 아버지 면담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면담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부부와 관련된 문항(2문항)이 추가 되었다.

〈표 III-3-5〉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가족관계 영역

역량	문항	연령별 차이
인식	나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동일
	나는 내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동일
실행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동일
	나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동일
	나는 아내와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영유아용
	나는 아내와 교육관(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초등 저학년용
	나는 아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동일
	나는 지금도 아내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동일
	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동일
	나는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동일
나는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동일	
성장	나는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동일

주: 연령별 차이 문항은 용어만 다르고 질문의 목적은 동일함.

4)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기존의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과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합쳐서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로 명명하였다. 이 영역은 12개 문항(유아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식역량에서 연령별 차이를 둔 문항은 육아정보 또는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의 인식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유아와 초등학생의 자녀의 경우 친한 친구의 이름을 묻는 문항을 추가로 만들었다.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을 알고 있는 지는 영아 아버지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아의 문항에서는 삭제하였다. 대신, 영아 자녀의 아버지는 실행역량에서 1개 문항(기저귀, 분유 등의 영아 자녀의 생필품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묻는 문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성장역량에서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활동(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III-3-6〉 2016년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영역

역량	문항	연령별 차이
인식	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일
	나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영·유아용
	나는 지역사회에서 자녀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예: 도서관)을 알고 있다	초등 저학년용
	나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유·초 저학년용
	나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기관명), 반이름, 담임 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동일
실행	나는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동일
	나는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동일
	나는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동일
	나는 자녀의 생필품(기저귀, 분유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해 둔다	영아용
	나는 지역사회 내의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영·유아용
	나는 지역사회에서 자녀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예: 도서관)을 활용한다	초등 저학년용
	나는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동일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영·유아용
나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초등 저학년용	
성장	나는 지역사회(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놀이학교)에서 제공하는 부모 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영·유아용
	나는 지역사회(초등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 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초등 저학년용

주: 연령별 차이 문항은 용어만 다르고 질문의 목적은 동일함.

IV.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양육역량 수준 평가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양육역량 실태를 아버지 본인 평가와 배우자의 남편 평가를 비교분석을 하면서 차이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양육역량의 차이 정도를 분석하였다.

1. 본 조사 참여 가구 특성

가.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본인)와 배우자(남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거주 지역을 보면, 중소도시 거주가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고, 대도시, 읍면 지역 순이다. 연령은 영아, 유아 자녀의 아버지는 30대가 70%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초등 자녀의 아버지는 40대가 61.7%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 아버지는 30대, 초등 1, 2학년 아버지는 40대가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 4년제 대졸 아버지가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2~3년)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비율이 비슷하고, 고졸이하는 한 자리수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었다. 아버지 직업은 화이트칼라(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가 75~77%로 가장 많았고, 블루칼라(판매/영업/서비스직, 농/임/어업) 종사자가 10%대로 2순위로 많으며 자영업, 기타(무직/퇴직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가구소득은 자녀연령에 따라 분포의 차이가 있다.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월 300미만이 28.2%로 가장 많고,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300~400만원 미만이 28.1%로 가장 많으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는 400~500만원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남편)의 특성을 보면, 동일한 조사구에서 표집했으므로 지역규모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배우자(남편)의 연령대는 30대가 70%대로 가장 많지만, 초등 자녀를 둔 배우자(남편)는 40대 이상이 52.5%로 가장 많았다. 자녀 연령을 불문하고 4년제 대졸 학력이 가장 많고, 직업은 화이트

칼라 종사자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블루칼라, 자영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영아 자녀를 둔 배우자(남편)은 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배우자(남편)은 400~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이상으로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의 분포가 아버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부부 대응표집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표집을 했다는 점에서 대응표집에 준하는 조사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1-1〉 본 조사 참여 본인(아버지) 및 남편 특성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지역						
대도시	42.4(212)		41.8(209)		41.4(207)	
중소도시	51.6(258)		52.2(261)		52.6(263)	
읍/면지역	6.0(30)		6.0(30)		6.0(30)	
연령						
20대	12.1(61)	15.3(77)	6.2(31)	5.0(25)	1.9(10)	1.1(6)
30대	72.7(363)	76.3(382)	70.5(353)	66.4(332)	36.4(182)	46.4(232)
40대 이상	15.2(76)	8.3(42)	23.3(117)	28.6(143)	61.7(308)	52.5(263)
학력						
고졸 이하	6.3(32)	10.5(53)	6.3(32)	13.7(68)	8.6(43)	15.0(75)
전문(2~3년)대졸	15.8(79)	18.9(94)	15.8(79)	22.2(111)	14.2(71)	17.6(88)
4년제 대졸	62.4(312)	58.1(291)	66.8(334)	55.3(277)	64.0(320)	54.1(270)
대학원 이상	15.4(77)	12.5(63)	11.0(55)	8.7(44)	13.2(66)	13.3(67)
직업						
자영업	4.5(23)	7.5(38)	5.7(28)	9.4(47)	8.0(40)	11.4(57)
블루칼라	16.2(81)	23.1(115)	17.5(87)	24.5(123)	14.1(71)	24.3(121)
화이트칼라	77.1(385)	67.0(335)	75.8(379)	63.8(319)	75.6(378)	62.2(311)
기타	2.2(11)	2.3(12)	1.1(5)	2.3(11)	2.3(11)	2.1(11)
월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8.2(141)	24.6(123)	22.7(114)	21.6(108)	17.7(89)	17.8(89)
300~400만원 미만	22.8(114)	18.6(93)	28.1(140)	20.5(103)	19.4(97)	18.3(91)
400~500만원 미만	20.8(104)	18.9(94)	20.6(103)	26.5(133)	25.8(129)	24.8(124)
500~700만원 미만	17.0(85)	22.5(114)	17.8(89)	20.9(105)	22.7(113)	24.6(123)
700만원 이상	11.2(56)	15.4(77)	10.8(54)	10.4(52)	14.4(72)	14.6(73)

나. 자녀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본인)와 배우자(남편)의 자녀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 유아, 초등 모두 남아가 더 많았다. 특히, 초등 자녀의 경우 남아 비율이 66.4%로 남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자녀수는 영아는 1명, 유아와 초등은 2명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주 3일 이상, 일일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관)의 이용 여부는 영아의 58.1%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36.8%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미이용)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49.8%는 어린이집을, 42.3%는 유치원을 다니는 것으로 응답했다. 유아기 자녀의 기관 미이용 비율을 3.2%에 그쳐, 대부분의 유아들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배우자(남편)의 자녀 특성을 보면, 자녀 성별에서 아버지의 자녀 특성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영아는 여아가 더 많고, 유아와 초등은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자녀수는 아버지 특성과 동일하게 영아는 1명이 76.5%로 가장 많지만, 유아와 초등자녀를 둔 경우는 2명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 응답과 동일하게 응답 기준이 된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아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우자(남편)의 응답 자녀도 영아는 어린이집을 절반 이상을 다니고 있었으며, 유아는 어린이집 이용자가 유치원 이용자보다 많았다. 기관을 다니지 않는 미이용의 비율이 3.2%로 아버지 응답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표 IV-1-2〉 자녀 특성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성별						
남자	56.6(283)	47.0(235)	56.0(280)	51.9(260)	66.4(332)	52.0(260)
여자	43.4(217)	53.0(265)	44.0(220)	48.1(240)	33.6(168)	48.0(240)
자녀 수						
1명	72.4(362)	76.5(382)	43.6(218)	37.7(189)	31.5(158)	26.3(131)
2명	25.0(125)	18.9(94)	51.5(258)	47.9(239)	56.6(283)	52.8(264)
3명 이상	2.6(13)	4.7(23)	4.9(24)	14.5(72)	11.9(60)	20.9(106)

(표 IV-1-2 계속)

구분	영아		유아		초등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출생순위						
첫째	95.3(476)	91.2(456)	92.8(464)	82.7(413)	80.9(405)	68.2(341)
둘째	3.0(15)	6.6(33)	5.3(27)	11.4(57)	16.8(84)	23.8(119)
셋째 이상	1.8(9)	2.1(11)	1.9(9)	4.7(24)	2.3(12)	8.1(41)
이용기관종류						
어린이집	58.1(290)	55.2(276)	49.8(249)	56.8(284)		
유치원	1.0(5)	4.4(22)	42.3(211)	38.3(191)		
유아대상영어학원	1.4(7)	1.2(6)	3.8(19)	2.3(12)		
놀이학교	1.8(9)	1.7(9)	0.9(5)	1.1(6)		
기타	1.0(5)	1.6(8)	0.0(0)	0.0(0)		
미이용	36.8(184)	36.0(180)	3.2(16)	1.5(8)		

2.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가. 아버지 직장 근무실태

본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본인)와 배우자(남편)의 근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본인)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76~7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20% 정도이며 5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무횟수(회식·야근 포함)는 3회 이상이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많았다. 초과 근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 대이며 영아 자녀를 둔 경우 19.4%가 없다고 응답해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초과근무횟수가 3회 이상이 가장 많은 집단은 초등 저학년 자녀를 아버지로 46.4%로 집계되었다.

배우자(남편)의 직장 근무 실태를 보면, 아버지(본인)과 유사하였다.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남편이 주 5일 근무를 하며,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20%대(초등 자녀 아버지 28.6%)로 아버지(본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주당 초과근무 횟수도 3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없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초과근무횟수가 많으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표 IV-2-1〉 본 조사 참여 아버지 근무 실태: 아버지 응답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아버지	남편	아버지	남편	사례수	비율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주당 근무일 수						
5일 미만	4.5	1.7	2.2	3.5	3.5	2.3
5일	77.0	77.4	77.0	75.9	75.9	69.1
6일 이상	18.5	20.9	20.9	20.6	20.6	28.6
주당 평균 초과근무 횟수						
없음	19.4	12.2	15.8	13.8	13.8	15.0
1회~2회	39.4	37.7	40.0	39.8	39.8	36.1
3회 이상	41.2	50.1	44.1	46.4	46.4	49.0

다음 인용글은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의 면담내용으로, 일의 특성상 주중에는 자녀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맞벌이를 하는 부인이 아침에 자녀를 일찍 데리고 나가고 본인은 가게문을 닫고 밤에 늦게 오기 때문에 주중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자영업 이전의 영업을 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부인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시간”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조업에서도 나타나는데, 맞벌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아버지는 본인이 현재 육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가 회사원일 때 영업을 했는데, 그 때는 제가 거의 육아를 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계속 데리고 있었으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먹을 거도 다 해 주고 씻겨주고……그런데 지금은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데… 와이프가 출근할 때 아이를 6시 30분에 데리고 나가고(근처 장모님 댁으로 자녀 이동) 밤에 오면 아이가 자고 있어요(아버지 면담사례 8).

현재 업무가 많지 않아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엄마가 오기 전까지 양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면, 잘때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아버지 면담사례 9).

나.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를 위한 노력

본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본인)와 배우자(남편)의 자녀양육실태 관련 질문으

로 육아휴직제도 사용여부, 아버지 교육 이수 여부 및 횟수, 주중·주말 양육시간을 알아보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본인)는 약 20%로 내외로 사용하지 않은 아버지가 대다수였다. 배우자(남편)의 응답은 이보다도 낮은 10%대로 나왔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가 여전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에 한해, 사용기간을 알아본 결과, 약 60%의 아버지가 6개월 미만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배우자(남편)의 응답에서도 6개월 미만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하더라도 6개월 미만이 다수였다. 본 면담조사에서 참여한 아버지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는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맞벌이 가정이라 부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이요? 못쎬요. 쓸 시간도 없고 쓸 수 있는 (회사) 분위기란 게 아예 없어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4).

제조업에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은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휴직을 쓰다는 것은 퇴사를 의미해요. 제조업은 언제나 대체 인력들이 많아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11).

아버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경험보다 훨씬 적었다. 아버지 본인의 약 10~15%이내가 아버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배우자(남편)의 응답은 이보다 낮았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본인) 또는 남편의 경우 아버지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각 14.1%, 13.0%).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에 한해 교육 횟수를 물어본 결과, 1회가 50% 내외로 가장 많았고, 2회, 3회 순이었다. 이는 배우자(남편)의 응답도 동일하였다. 배우자(남편) 응답에서 4회 이상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10회까지 받았다는 응답의 편차가 커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표 IV-2-2〉 본 조사 참여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및 아버지교육 현황

단위: 명, %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아버지	남편	아버지	남편	아버지	남편
전체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100.0(500)
육아휴직 사용여부						
사용함	18.2	15.5	18.6	13.1	23.6	16.9
사용하지 않음	81.8	84.5	81.4	86.9	76.4	83.1

(표 IV-2-3 계속)

구분	본인			남편		
	영아	유아	초등	영아	유아	초등
주중 양육시간						
2시간 미만	23.0(115)	30.1(151)	30.5(152)	38.2(191)	48.3(241)	46.0(230)
2~4시간 미만	45.7(229)	41.3(207)	36.9(185)	37.4(187)	35.3(176)	31.6(158)
4~6시간 미만	17.8(89)	16.2(81)	16.1(80)	13.9(69)	7.8(39)	11.5(57)
6시간 이상	13.4(67)	12.3(62)	16.5(82)	10.5(53)	8.6(43)	11.0(55)
주말 양육시간						
2시간 미만	4.4(22)	4.2(21)	8.5(42)	11.8(59)	17.1(85)	22.8(114)
2~4시간 미만	16.0(80)	18.5(92)	26.8(134)	23.0(115)	29.6(148)	31.6(158)
4~6시간 미만	19.4(97)	23.0(115)	26.3(132)	24.2(121)	22.6(113)	24.0(120)
6~8시간 미만	12.5(62)	14.7(73)	11.4(57)	13.0(65)	10.4(52)	6.2(31)
8~10시간 미만	17.0(85)	11.2(56)	8.7(43)	9.7(49)	8.5(42)	4.9(25)
10시간 이상	30.6(153)	28.4(142)	18.3(91)	18.3(91)	11.9(59)	10.4(52)

다. 아버지 자녀양육 실태

1) 발달과 놀이 영역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하나 하나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를 알 수 있다. 세부 변인별의 차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아버지의 양육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4개 영역 중에서 “발달과 놀이” 영역의 아버지의 자녀양육실태를 보면, 대체로 3점에서 4점대 초반 정도의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가 2.7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문항이다. 즉, 자녀와 놀 때 힘이 들지 않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점수가 낮은 문항이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로 3점대 초반 정도 나왔는데, 일반 부모들이 서적이나 정보수집 등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동의 발달 특성을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음 문항인 “놀이가 아동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으로 높게 나왔다. 아버지들은 발달 특성은 잘 모르지만, 놀이가 자녀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대체로 잘 인지하고 있었다.

자녀 연령별로 점수가 높은 문항을 보면, 영아 아버지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가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유아 아버지는 가장 높은 4.0

점 문항이 여러 개 나왔는데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 등이다. 자녀와 같이 놀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유아 아버지들은 스스로 평가하였다. 초등 아버지는 4점대가 나온 문항이 없었다. 3.9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놀이가 아동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가 해당된 문항이고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한다”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가 3.8점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지만,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에 비해 점수가 낮으며 자녀에게 그림을 읽어주는 것도 3점대 초반으로 점수가 낮았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주로 동적인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면담에서도 자녀와 책을 읽는 것은 부인의 몫이고, 본인은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주로 담당한다고 했다.

저는 아이랑 활동적인 걸 많이 놀아주려 하고 엄마가 놀아주는 것은 좀 책을 읽어준다던지 소꿉장난 그런 걸 놀아준다던지…… 저는 밖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죠. 수영장을 간다던지 공놀이를 해준다던지 아니면 공원에서 캠핑을 한다던지 (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8).

<표 IV-2-4> 발달과 놀이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문항	단위: 점(표준편차)		
	영아 아버지	유아 아버지	초등 아버지
1)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3.1(0.9)	3.2(0.8)	3.2(0.8)
2) 놀이가 아동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4.0(0.9)	4.0(0.8)	3.9(0.8)
3)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3.3(0.9)	3.4(0.9)	3.2(0.9)
4)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한다	4.0(0.9)	4.0(0.8)	3.8(0.8)
5)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3.3(0.8)	3.2(0.9)	3.3(0.9)
6)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4.1(0.8)	4.0(0.8)	3.8(0.8)
7)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3(0.8)	3.5(0.8)	3.6(0.8)
8)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3.8(0.7)	3.8(0.8)	3.7(0.8)
9)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2.7(0.9)	2.7(0.9)	2.7(0.9)
10)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3.6(0.7)	3.6(0.8)	3.6(0.8)
11)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3.6(0.8)	3.6(0.7)	3.5(0.8)
12)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3.7(0.8)	3.6(0.8)	3.5(0.8)
13)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	4.0(0.8)	4.0(0.8)	3.8(0.8)

2)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를 보면, 대체로 3점대

중반부터 4.0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가 영아, 유아, 초등 아버지 모두 3.9점~4.1점으로 높게 나왔다. 자녀가 타인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중시하며 자녀가 잘 했을 때는 칭찬도 아낌없이 하는 등 아버지의 양육실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도 3.3점~3.4점도 낮게 나와서 옷사람한테 버릇없이 굴거나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떼를 쓰거나 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아버지와의 면담에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는 격하게 놀고 싶으니까 물건으로 아빠를 때리거나 발로 찬다거나 할머니한테 야라고 한다거나 어지럽히거나 그럴 때 똑바로 하라고 혼을 내는데 그러면 무섭다고 엎어지거나 막 울거나 그렇게 하죠(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3).

남녀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번은 남자 큰애가 할머니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체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하고 난 뒤의 제 행동에 대해서 아이한테 안아주고 설명을 해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11).

이외에도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가 4.0점으로 높게 나왔다. 이 문항은 유아, 초등 아버지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졌다. 유사 문항으로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는 흡연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흡연에 비해 음주를 자제하려는 노력은 덜 한다는 것이다.

유아와 초등 아버지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은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로 각각 4.0점, 3.9점으로 집계되었다.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워둠으로써 자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아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가 3.4점,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도 3.3점으로(초등아버지 3.7점) 낮게 나와서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안전 교육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하여도 다른 질문보다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반성적 사고 또한 다른 긍정적인 질문보다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5>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문항	단위: 점(표준편차)		
	영아 아버지	유아 아버지	초등 아버지
1)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등)을 알고 있다	3.6(0.9)	3.7(0.9)	3.7(0.8)
2)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있는지를 알고 있다	3.8(0.9)	3.9(0.9)	3.8(0.8)
3)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있다	3.3(0.8)	3.3(0.8)	3.4(0.8)
4) 자녀가 예방접종 받을 때 같이 간다	3.5(1.1)	3.4(1.0)	3.3(1.0)
5)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3.3(1.0)	3.3(1.1)	3.7(0.8)
6)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예방법을 알려준다	3.4(0.9)	3.6(0.8)	3.4(1.0)
7)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	3.3(1.0)	3.3(1.1)
8)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3.8(0.9)	4.0(0.7)	3.9(0.8)
9) 영아돌연사증후군, 혼들립중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	3.4(0.9)	-	-
9-1)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	-	3.6(0.8)	3.7(0.8)
10)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수면시간, 식습관, 배변)을 지도한다	3.3(0.8)	3.7(0.7)	3.7(0.7)
11)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0.8)	4.1(0.7)	4.0(0.7)
12)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4.0(0.7)	4.1(0.7)	3.9(0.8)
13)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본인의 양육태도가 원인 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같다	3.7(0.8)	3.7(0.8)	3.6(0.8)
14)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3.7(1.0)	3.4(1.1)	3.4(1.0)
15)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4.0(1.1)	3.9(1.2)	3.8(1.1)

주: 빈칸은 해당 연령 문항이 아님.

3) 가족관계

가족관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를 보면, 4점대는 나오지 않았다. 대체로 3점대 중후반 점수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지금도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로 영유아 아버지는 2.9점, 초등 아버지는 3.1점으로 나왔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부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문항이 3.7~3.9점으로 높게 나와서 가족관계에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 “부인에게 육아, 가사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는 3.5점으로 나왔다. 부인에게 개인적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부인이 행복해야 자녀도 가족도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와이프가 행복한거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가 민감하더 라구요. 분위기가 안좋으면 아이가 와서 화해하라고 해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3).

(아이) 엄마가 행복해야 되요. 그게 아이한테 가거든요 아빠는 좀 영향이 적고

특히 정서적인건 다 엄마랑 교감을 하더라구요 놀아주는건 저랑 놀아도……(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1).

엄마가 (기분) 안 좋으면 애 행동이 좀 거칠어져요……부부싸움도 애가 없을 때 하죠(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6).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도 2.9~3.1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항목은 점수가 낮을수록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낮은 점수는 양육관의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담조사에서는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었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배우자의 어떤 행동을 자녀가 어느 날 따라하고 있을 때 배우자에게 화가 난 경우도 있고, 양육관이 배우자와 맞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상호 취향을 존중해서 절충하거나 배우자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은 비슷비슷한데 아이도 이제 엄마의 취향하고 결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저는 되게 민감해서 제가 행동하는 거에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걸 신경을 안써요 어느날 우리 딸을 봤을 때 엄마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 가방 딱 챙겨두고 앉아서 리모컨을 들어서 누워서 이자세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말라고 애가 모르지만 그거 보면 보고 배운다고 그거 가지고 와이프는 내가 쉬어야 하는데 왜그러냐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많았죠(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3).

아이키우면서 육아관을 와이프랑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4).

저는 절대 안되는 거는 제가 이기구요……서로 절대 안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책 같은거는 와이프말대로 몇 번 사기도 하고……절충을 하는 거죠(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2).

육아 관련해서 트러블 있으면 (와이프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 데로 하라고 하니깐 별로 갈등은 없어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5).

<표 IV-2-6> 가족관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문항	단위: 점(표준편차)		
	영아 아버지	유아 아버지	초등 아버지
1)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있다	3.7(0.8)	3.8(0.8)	3.7(0.7)
2)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있다	3.5(0.8)	3.6(0.8)	3.5(0.8)

(표 IV-2-6 계속)

문항	영아 아버지	유아 아버지	초등 아버지
3)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3.6(1.0)	3.6(1.0)	3.5(1.0)
4) 자녀 앞에서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3.6(0.9)	3.5(1.0)	3.5(0.9)
5)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3.1(1.0)	3.1(0.9)	2.9(0.9)
6) 부인에게 육아, 가사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3.5(0.9)	3.5(0.9)	3.5(0.8)
7) 지금도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2.9(1.1)	2.9(1.1)	3.1(1.0)
8)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3.9(0.9)	3.9(0.8)	3.7(0.9)
9) 자녀를 다른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3.8(0.8)	3.8(0.8)	3.7(0.8)
10)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3.9(0.7)	3.8(0.7)	3.7(0.7)
11)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3.9(0.8)	3.9(0.8)	3.8(0.8)

4)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문항이 3.8~3.9점으로 가장 높았다.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관련해서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 정돈하거나 청소한다”도 대체로 높게 나왔다. 아버지들은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좋다고 생각하여 직접 청소하거나 정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두 항목 모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점수가 영유아 아버지 보다 낮게 나왔다.

초등학생 자녀 아버지의 점수가 높은 문항은 “지역사회에서 육아/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등이다. 지역사회 연계 관련 문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역의 육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주로 돌보고, 가족과 함께 보냈다면 자녀가 초등학교 정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 근처의 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센터, 키즈 카페 등의 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항의 점수가 2.9점~3.1점으로 낮게 나온 점에서, 자녀가 성장해도 이웃이나 또래 부모들과의 인적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문항	단위: 점(표준편차)		
	영아 아버지	유아 아버지	초등 아버지
1)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9(0.7)	3.9(0.7)	3.8(0.7)
2) 지역사회에서 육아/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3.2(0.9)	3.1(0.9)	3.6(0.8)
3)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	3.6(0.9)	3.6(0.8)
4) 재차가 다니고 있는 기관명, 반이름,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3.3(1.0)	3.4(1.0)	3.4(1.0)
5)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 정돈하거나 청소한다	3.7(0.8)	3.8(0.8)	3.6(0.9)
6) 자녀 앞에서 미디어(TV,스마트폰)사용을 자제한다	3.3(1.0)	3.1(1.0)	3.3(0.9)
7) 자녀가 읽을 책을 직접 고른다	-	-	3.1(0.9)
7) 자녀의 생필품(기저귀, 분유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해둔다	3.7(0.9)	-	-
8)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3.1(0.9)	2.9(1.0)	3.4(0.9)
9)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3.0(1.0)	2.9(1.0)	3.1(0.9)
10) 기관이나 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3.5(1.0)	3.4(1.0)	3.4(0.9)
11)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0(1.0)	2.9(1.1)	3.0(1.0)

주: 빈칸은 해당 연령 문항이 아님.

라. 본인 양육방식에 영향을 준 요인들

1) 주변인

본인의 현재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부모님, TV 프로그램, 친구나 지인 순이었다. 유아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 TV 프로그램, 친구나 지인 순이었다. 본인의 자녀양육방식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겠다.

<표 IV-2-8> 본인 양육방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

구분	단위: %(명)		
	영아	유아	초등
나의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36.5	40.8	40.4
나의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43.2	35.6	35.6
아빠 육아관련 TV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12.3	14.2	16.8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5.1	5.2	5.8
기타	2.8	4.3	1.3
계	100.0(500)	100.0(500)	100.0(500)

2) 본인 아버지와와의 관계

본 설문조사에서는 가족 중에서도 본인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0개의 문항을 개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점수가 3.2점 미만(100점 환산으로 80점 미만 기준)으로 낮게 나온 문항을 보면, 문1 “나의 양육관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영아 자녀 아버지(이하, 유아; 유아, 초등 동일 표기) 3.0점, 유아 2.9점, 초등 3.1점], 문2 “나의 실제 양육방식은 아버지와 비슷하다”(영아 2.8점, 유아 2.8점, 초등 3.1점), 문6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영아, 유아, 초등 3.0점) 등 총 3개 문항이다. 정리하면, 본인의 양육관이나 실제 양육방식은 본인 아버지와 비슷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와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만 보면, 본인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본인 아버지의 양육관과 양육방식이 좋았다면 본인도 그것을 따르려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관, 양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10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점과 결부해서 해석할 수 있다(영아 4.2점, 유아 4.3점, 초등 4.2점).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관, 양육방식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해 주고 싶은 욕구가 나의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표출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3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우셨다”, 문4 “아버지는 나에게 체벌을 하셨다” 모두 3.4~3.7점으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체벌 또는 엄격한 훈육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받은 이러한 양육관, 양육방식은 자신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9 “나는 아버지의 양육관,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가 3.5~3.6점으로 높게 나온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엄격한 양육관,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엄격하지 않는 양육관,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인세대는 아버지세대와는 다른 양육관, 양육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엄격한 양육방식이 나쁘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양육관, 양육방식은 한 시대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5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가 3.3~3.4점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문8 “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 뵈는 다”도 3.6점으로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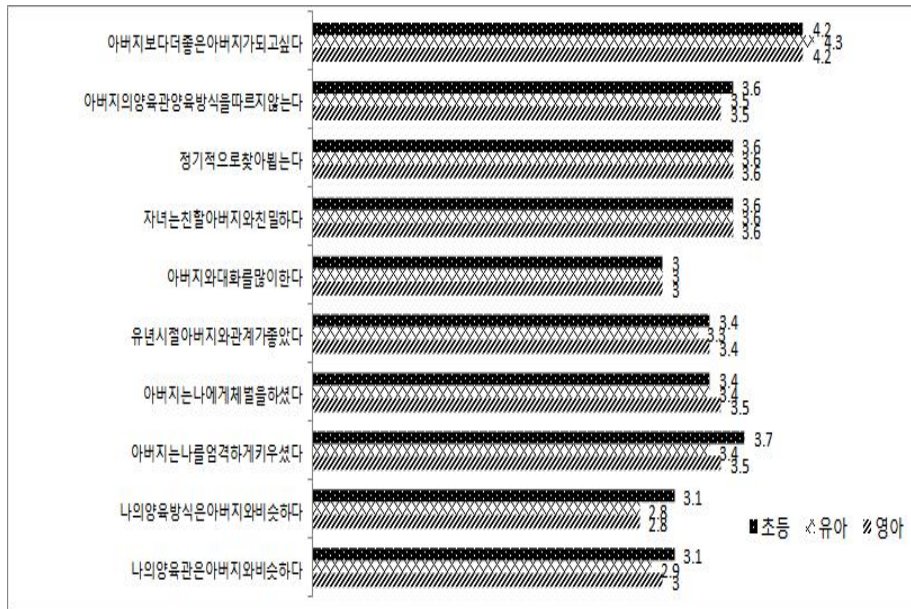
〈표 IV-2-9〉 본인 아버지와 관계

단위: %, 점(표준편차)

구분	본인 아버지와 관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문1	영아	10.5	27.5	25.6	23.7	9.8	2.8	3.0(1.2)
	유아	10.0	31.0	26.8	22.1	8.5	1.7	2.9(1.1)
	초등	5.8	28.4	25.9	29.7	9.1	1.1	3.1(1.1)
문2	영아	12.1	26.3	29.9	20.0	7.6	4.0	2.8(1.1)
	유아	12.5	28.6	25.8	23.0	7.5	2.7	2.8(1.2)
	초등	7.1	26.4	27.8	26.0	10.7	1.9	3.1(1.1)
문3	영아	3.4	16.0	27.2	31.5	18.9	3.0	3.5(1.1)
	유아	3.8	17.0	28.0	29.4	19.0	2.8	3.4(1.1)
	초등	2.9	10.7	25.5	35.3	22.6	3.1	3.7(1.0)
문4	영아	5.1	14.8	22.4	35.3	17.8	4.5	3.5(1.1)
	유아	6.7	16.3	22.1	33.1	18.0	3.7	3.4(1.2)
	초등	5.6	16.4	23.8	33.5	18.4	2.3	3.4(1.1)
문5	영아	4.2	12.9	34.3	30.3	16.0	2.4	3.4(1.1)
	유아	3.6	15.0	38.0	27.2	14.0	2.2	3.3(1.0)
	초등	4.3	15.5	33.4	28.5	16.1	2.3	3.4(1.1)
문6	영아	6.8	24.0	32.4	22.3	9.3	5.3	3.0(1.1)
	유아	6.2	28.4	29.7	20.8	8.4	6.5	3.0(1.1)
	초등	7.9	28.5	28.1	22.0	9.9	3.6	3.0(1.1)
문7	영아	3.4	9.1	30.2	29.1	19.8	8.5	3.6(1.1)
	유아	3.1	9.5	29.6	30.6	17.7	9.6	3.6(1.0)
	초등	2.1	12.4	29.3	32.3	18.4	5.5	3.6(1.0)
문8	영아	3.6	13.2	20.9	32.7	21.9	7.7	3.6(1.1)
	유아	2.6	11.6	21.3	35.2	17.9	11.4	3.6(1.0)
	초등	2.1	13.2	26.2	32.3	18.2	8.0	3.6(1.0)
문9	영아	2.9	10.4	35.7	31.7	14.6	4.6	3.5(1.0)
	유아	2.5	10.4	37.6	28.6	15.5	5.5	3.5(1.0)
	초등	1.1	12.1	32.6	32.7	17.5	4.0	3.6(1.0)
문 10	영아	0.4	2.4	13.5	38.2	40.2	5.4	4.2(0.8)
	유아	0.6	0.6	14.6	34.0	44.2	6.0	4.3(0.8)
	초등	0.6	1.5	13.2	40.1	38.2	6.3	4.2(0.8)

주: 문1 - 나의 양육관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문2 - 나의 실제 양육방식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문3 - 나의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우셨다
 문4 -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체벌을 하신 적이 있다
 문5 - 나는 유년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문6 -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
 문7 - 나의 아버지와 나의 자녀는 친밀하다

문8-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명절, 제사, 기념일 제외)
 문9-나는 아버지의 양육관이나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문10-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 경우에 응답한 것임.



자료: <표 IV-2-9>를 도식화한 것임.

[그림 IV-2-1] 본인 아버지와 관계

3. 자녀연령별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수준 평가

이 절에서는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4개 영역의 역량 인식 차이와 양육역량 실태를 본인평가 및 배우자 평가 비교,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별 비교, 자녀 양육관련 변인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가. 영아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역량

1) 본인 평가 및 배우자 평가 비교

전반적인 자녀양육 역량에 대한 본인평가(아버지 스스로가 본인의 자녀양육

역량 평가)와 남편평가(배우자가 바라보는 남편의 자녀양육 평가)를 보면, 전 영역에서 본인 평가가 남편 평가보다 높다. 본인 평가는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도 전 영역에서 높았다.

영역별로 전체 평균을 보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영역이 3.5점으로 동일하며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인평가와 남편평가 간의 점수 차이가 큰 영역은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으로 본인평가 3.4점, 남편평가 2.9점으로 0.5점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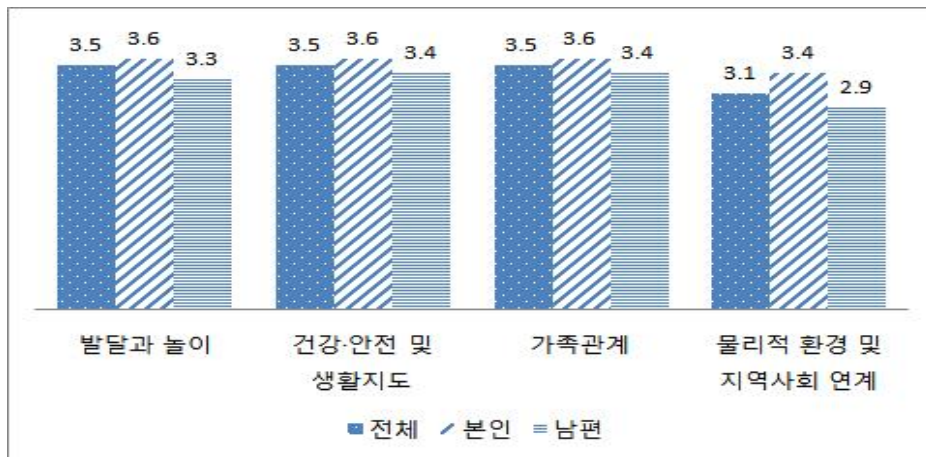
〈표 IV-3-1〉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영아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양육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5(0.6)	3.5(0.6)	3.5(0.6)	3.1(0.7)	3.4(0.5)	
대상	본인	3.6(0.5)	3.6(0.5)	3.6(0.5)	3.4(0.5)	3.5(0.4)
	남편	3.3(0.7)	3.4(0.6)	3.4(0.6)	2.9(0.7)	3.3(0.6)
	t	5.98(930)***	5.03(933)***	3.86(938)***	11.59(918)***	7.70(907)***

주: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표 IV-3-1〉을 도식화함.

[그림 IV-3-1] 영아 아버지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2) 사회경제적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거주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따른 아버지 양육역량의 영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3.5점), 중소도시(3.4점), 읍면(3.3점) 지역 순으로 아버지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자녀양육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3.5점), 대졸(3.4점), 고졸과 전문대졸(3.2점) 순으로 나타나 학력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5점)가 자영업(3.3점), 블루칼라(3.2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역량 점수가 높았다.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이 3.6점으로 가장 높고, 월 소득 300~400만원과 300만원 미만은 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리하면, 대도시 거주, 대졸 이상의 화이트 칼라 직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가구의 아버지 양육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영아 아버지 사회경제적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양육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5(0.6)	3.5(0.6)	3.5(0.6)	3.1(0.7)	3.4(0.5)	
지역	대도시	3.5(0.6)	3.6(0.6)	3.5(0.6)	3.2(0.7)	3.5(0.6)
	중소	3.4(0.6)	3.5(0.6)	3.5(0.6)	3.1(0.7)	3.4(0.5)
	읍면	3.4(0.6)	3.4(0.6)	3.4(0.6)	3.0(0.7)	3.3(0.5)
	F	3.17(999)*	4.29(999)*	3.65(999)*	3.27(999)*	4.53(999)*
학력	고졸	3.3(0.6)	3.4(0.7)	3.4(0.7)	2.9(0.8)	3.2(0.6)
	전문대졸	3.3(0.6)	3.3(0.6)	3.3(0.6)	2.9(0.7)	3.2(0.5)
	4년대졸	3.5(0.6)	3.6(0.5)	3.5(0.6)	3.2(0.7)	3.4(0.5)
	대학원이상	3.6(0.6)	3.6(0.6)	3.6(0.6)	3.3(0.7)	3.5(0.5)
	F	8.95(999)***	11.32(999)***	8.37(999)***	11.9099)***	12.85(999)***
직업	자영업	3.4(0.6)	3.5(0.5)	3.5(0.5)	3.0(0.6)	3.3(0.4)
	블루칼라	3.3(0.7)	3.3(0.7)	3.3(0.7)	2.9(0.8)	3.2(0.6)
	화이트칼라	3.5(0.6)	3.6(0.5)	3.5(0.6)	3.2(0.7)	3.5(0.5)
	기타	3.5(0.8)	3.7(0.8)	3.6(0.7)	3.3(0.9)	3.5(0.7)
	F	8.40(999)***	12.70(999)***	6.72(999)***	9.02(999)***	11.52(999)***

(표 IV-3-2 계속)

구분	아버지 양육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가 구 소 득	300만원 미만	3.4(0.6)	3.5(0.6)	3.4(0.6)	3.1(0.7)	3.3(0.5)
	300~400만원 미만	3.4(0.6)	3.4(0.6)	3.4(0.6)	3.0(0.7)	3.3(0.5)
	400~500만원 미만	3.4(0.6)	3.5(0.6)	3.5(0.6)	3.1(0.7)	3.4(0.5)
	500~700만원 미만	3.5(0.6)	3.6(0.6)	3.6(0.5)	3.2(0.7)	3.5(0.5)
	700만원 이상	3.6(0.6)	3.7(0.6)	3.7(0.6)	3.3(0.7)	3.6(0.6)
	F	4.00(999)**	4.42(999)**	6.96(999)***	5.36(999)***	6.50(999)***

주: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3)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본인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여부, 아버지 지교육 이수여부, 주당 초과근무횟수, 본인아버지와의 관계,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역량을 분석하였다. 각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양육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와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점수 차이가 컸다.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교육을 받지 않은 아버지보다 양육역량 점수가 높았다.

회사의 야근(또는 회식) 등으로 정시 퇴근을 못하는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낮았으며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경우, 양육역량이 높게 나왔다.

〈표 IV-3-3〉 영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5(0.6)	3.5(0.6)	3.5(0.6)	3.1(0.7)	3.4(0.5)	
육아 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6(0.6)	3.7(0.6)	3.7(0.6)	3.5(0.7)	3.6(0.5)
	사용안함	3.4(0.6)	3.5(0.6)	3.4(0.6)	3.1(0.7)	3.4(0.5)
	t	3.81(998)***	4.48(998)***	6.09(998)***	7.87(998)***	6.42(998)***

(표 IV-3-3 계속)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아버지 교육 이수	이수함	3.7(0.6)	3.8(0.6)	3.8(0.7)	3.6(0.7)	3.7(0.6)
	이수안함	3.4(0.6)	3.5(0.6)	3.5(0.6)	3.1(0.7)	3.4(0.5)
	잘모름	3.4(0.5)	3.4(0.6)	3.6(0.6)	3.1(0.6)	3.4(0.5)
	t	4.720(962)***	5.174(962)***	4.746(962)***	6.688(962)***	6.138(962)***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4(0.6)	3.6(0.6)	3.6(0.5)	3.2(0.7)	3.5(0.5)
	1~2회	3.5(0.6)	3.6(0.5)	3.5(0.6)	3.2(0.7)	3.5(0.5)
	3회 이상	3.4(0.6)	3.4(0.6)	3.4(0.6)	3.0(0.7)	3.3(0.6)
	F	3.04(999)*	8.90(999)***	6.95(999)**	9.65(999)***	8.59(999)***
유년 시설 아버지와 관계	나쁨	3.6(0.5)	3.6(0.5)	3.6(0.5)	3.2(0.5)	3.5(0.4)
	보통	3.4(0.5)	3.5(0.5)	3.5(0.5)	3.3(0.5)	3.4(0.4)
	좋음	3.7(0.5)	3.7(0.5)	3.6(0.5)	3.5(0.6)	3.6(0.4)
	비해당	3.5(0.5)	3.7(0.5)	3.7(0.6)	3.4(0.8)	3.6(0.6)
	F	12.98(487)***	11.39(487)***	7.69(487)***	16.31(487)***	15.07(487)***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설 아버지와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설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유아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역량

1) 본인 평가 및 배우자 평가 비교

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본인평가(아버지 스스로가 본인의 자녀양육 역량 평가)와 남편평가(배우자가 바라보는 남편의 자녀양육 평가)에서도 본인평가가 남편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전체 평균 3.4점에 본인평가는 3.5점, 남편평가는 3.2점에 그쳤다. 영역별로는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3.1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영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역량 결과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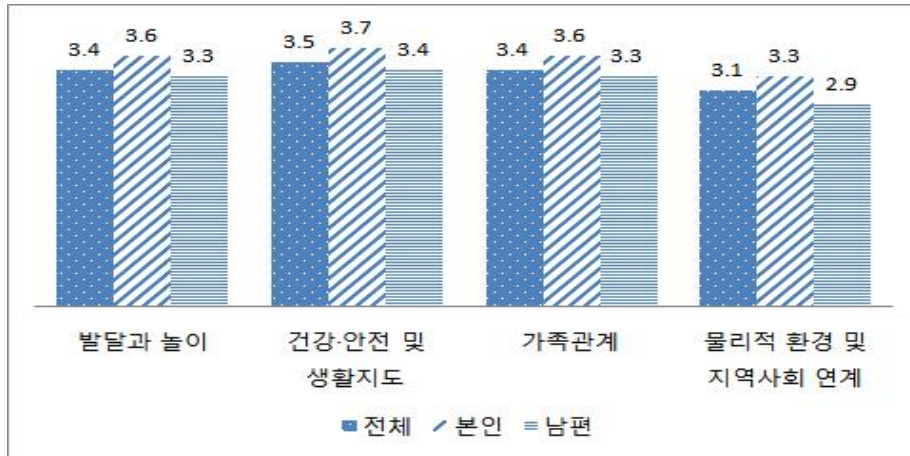
대상별로 (가정 내) 본인평가와 남편평가의 격차가 가장 큰 영역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으로 나왔다.

〈표 IV-3-4〉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유아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4(0.6)	3.5(0.6)	3.4(0.6)	3.1(0.7)	3.4(0.6)	
대상	본인	3.6(0.5)	3.7(0.5)	3.6(0.5)	3.3(0.6)	3.5(0.4)
	남편	3.3(0.7)	3.4(0.7)	3.3(0.7)	2.9(0.7)	3.2(0.6)
	<i>t</i>	8.39(893)***	7.43(899)***	7.13(904)***	11.52(951)***	9.78(882)***

주: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설문지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표 IV-3-4〉을 도식화함.

[그림 IV-3-2] 유아 아버지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2) 사회경제적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

유아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양육역량을 조사한 결과,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읍면지역 아버지의 양육역량 점수가 3.3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낮았다.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및 월 소득 500~700만원의 고소득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았다.

〈표 IV-3-5〉 유아 아버지 사회경제적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연계		
영역별	3.4(0.6)	3.5(0.6)	3.4(0.6)	3.1(0.7)	3.4(0.6)	
지역	대도시	3.4(0.6)	3.5(0.6)	3.5(0.6)	3.1(0.7)	3.4(0.6)
	중소	3.4(0.6)	3.6(0.6)	3.4(0.6)	3.1(0.7)	3.4(0.5)
	읍면	3.4(0.7)	3.4(0.7)	3.3(0.6)	2.9(0.7)	3.3(0.6)
	F	0.47(999)	0.84(999)	0.84(999)	2.54(999)	1.21(999)
학력	고졸이하	3.3(0.7)	3.4(0.7)	3.3(0.7)	2.8(0.7)	3.2(0.6)
	전문대졸	3.3(0.7)	3.4(0.6)	3.3(0.6)	2.9(0.7)	3.2(0.6)
	4년대졸	3.5(0.6)	3.6(0.6)	3.5(0.6)	3.2(0.6)	3.4(0.5)
	대학원이상	3.6(0.6)	3.7(0.6)	3.6(0.5)	3.2(0.7)	3.5(0.5)
	F	11.292(999)***	13.07(999)***	10.82(999)***	17.65(999)***	16.51(999)***
직업	자영업	3.4(0.6)	3.5(0.6)	3.5(0.6)	3.0(0.7)	3.4(0.5)
	블루칼라	3.3(0.7)	3.4(0.6)	3.3(0.6)	2.9(0.7)	3.2(0.6)
	화이트칼라	3.5(0.6)	3.6(0.6)	3.5(0.6)	3.1(0.6)	3.4(0.5)
	기타	3.6(0.6)	3.8(0.7)	3.6(0.6)	3.1(0.8)	3.5(0.6)
	F	4.95(999)**	5.69(999)***	4.11(999)**	5.45(999)**	5.98(999)***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3.4(0.6)	3.4(0.6)	3.3(0.6)	3.0(0.7)	3.3(0.6)
	300-400만원 미만	3.4(0.6)	3.6(0.6)	3.4(0.6)	3.0(0.6)	3.4(0.5)
	400-500만원 미만	3.4(0.6)	3.5(0.6)	3.5(0.6)	3.1(0.6)	3.4(0.5)
	500-700만원 미만	3.6(0.6)	3.7(0.6)	3.6(0.6)	3.3(0.7)	3.5(0.5)
	700만원 이상	3.3(0.6)	3.5(0.7)	3.5(0.7)	3.1(0.8)	3.4(0.6)
	F	4.12(999)**	4.88(999)***	5.567(999)***	4.82(999)***	5.50(999)***

주: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설문지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3)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3.6점), 아버지교육을 이수한 아버지(3.7점), 주당 초과근무횟수가 1~2회 정도의 아버지(3.5점), 유년시절 본인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아버지(3.7점)가 양육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보다는 외벌이 가정의 아버지 양육역량이 높았다.

〈표 IV-3-6〉 유아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4(0.6)	3.5(0.6)	3.4(0.6)	3.1(0.7)	3.4(0.6)	
육아 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7(0.5)	3.7(0.6)	3.7(0.5)	3.5(0.6)	3.6(0.5)
	사용안함	3.4(0.6)	3.5(0.6)	3.4(0.6)	3.0(0.7)	3.3(0.6)
	t	5.07(998)***	4.76(998)***	5.97(998)***	8.39(998)***	6.85(998)***
아버지 교육 이수	이수함	3.7(0.6)	3.8(0.6)	3.7(0.6)	3.5(0.7)	3.7(0.5)
	이수안함	3.4(0.6)	3.5(0.6)	3.4(0.6)	3.0(0.7)	3.3(0.5)
	잘모름	3.7(0.4)	3.7(0.5)	3.7(0.5)	3.2(0.6)	3.6(0.4)
	t	5.81(975)***	5.58(975)***	4.74(975)***	6.23(975)***	6.29(975)***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5(0.6)	3.6(0.6)	3.5(0.6)	3.2(0.7)	3.4(0.5)
	1~2회	3.5(0.6)	3.6(0.5)	3.5(0.6)	3.2(0.6)	3.5(0.5)
	3회이상	3.3(0.6)	3.5(0.6)	3.3(0.6)	3.0(0.7)	3.3(0.6)
	F	12.45(999)***	9.30(999)***	15.82(999)***	16.94(999)***	17.02(999)***
본인 아버지 와의 관계	나쁨	3.5(0.5)	3.6(0.5)	3.5(0.5)	3.1(0.5)	3.4(0.4)
	보통	3.5(0.5)	3.6(0.5)	3.5(0.5)	3.2(0.5)	3.5(0.4)
	좋음	3.7(0.5)	3.8(0.5)	3.7(0.5)	3.5(0.6)	3.7(0.4)
	비해당	3.6(0.4)	3.9(0.4)	3.6(0.5)	3.4(0.7)	3.6(0.4)
	F	9.24(488)***	8.36(488)***	15.14(488)***	24.60(488)***	19.30(488)***
가구 유형	맞벌이	3.4(0.6)	3.5(0.6)	3.4(0.6)	3.0(0.7)	3.3(0.5)
	외벌이	3.5(0.6)	3.6(0.6)	3.5(0.6)	3.2(0.7)	3.4(0.6)
	t	-1.24(998)	-2.63(998)**	-2.57(998)*	-5.16(998)***	-3.30(998)***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다. 초등학생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역량

1) 본인 평가 및 배우자 평가 비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도 본인평가(3.5점)가 남편평가(3.3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전 영역에서 본인평가가 남편평가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은 3.4 점이며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의 점수가 3.6점으로 가장 높고,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3.2점으로 가장 낮았다. 본인평가와 남편 평가의 격차가 큰 영역은 발달과 놀이,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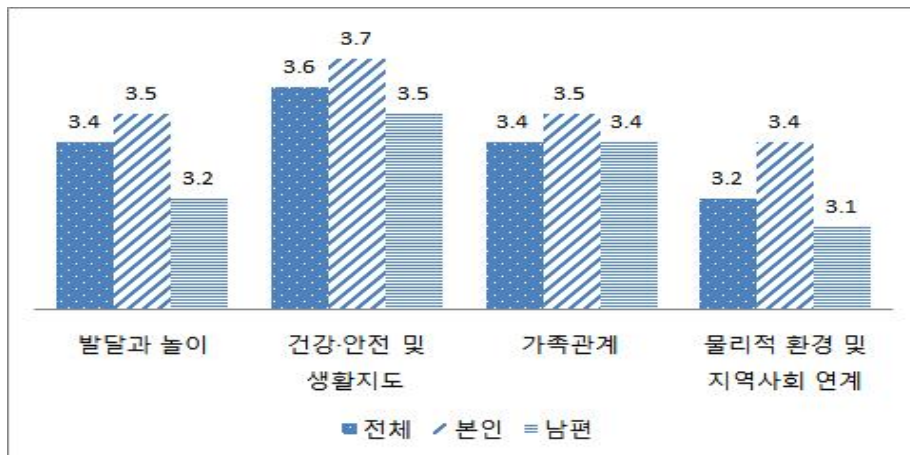
〈표 IV-3-7〉 초등부모 대상 영역별 전반적 현황: 영아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4(0.6)	3.6(0.6)	3.4(0.6)	3.2(0.7)	3.4(0.6)	
대상	본인	3.5(0.5)	3.7(0.5)	3.5(0.5)	3.4(0.6)	3.5(0.5)
	남편	3.2(0.6)	3.5(0.7)	3.4(0.7)	3.1(0.8)	3.3(0.6)
	<i>t</i>	8.55(936)***	5.33(942)***	4.47(917)***	6.50(886)***	6.94(916)***

주: 아버지, 어머니 설문 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 $p < .001$



자료: 〈표 IV-3-7〉 을 도식화함.

[그림 IV-3-3] 초등 아버지 영역별 본인 및 남편 평가 비교

2) 사회경제적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양육역량을 알아보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아버지의 역량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평균 3.4점으로 집계되었다.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역량점수가 높게

나왔다. 고졸이하 아버지가 3.2점이라면, 대졸 이상, 대학원 이상은 각각 3.4점, 3.6점으로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은 화이트칼라와 자영업 종사자 아버지의 역량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V-3-8〉 초등 아버지 사회경제적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3.4(0.6)	3.6(0.6)	3.4(0.6)	3.2(0.7)	3.4(0.6)	
지역	대도시	3.4(0.6)	3.6(0.6)	3.5(0.6)	3.3(0.7)	3.4(0.6)
	중소	3.4(0.6)	3.6(0.6)	3.4(0.6)	3.2(0.7)	3.4(0.5)
	읍면	3.3(0.6)	3.5(0.6)	3.4(0.6)	3.2(0.7)	3.4(0.6)
	F	0.482(999)	0.398(999)	0.365(999)	2.104(999)	0.527(999)
학력	고졸이하	3.1(0.7)	3.4(0.6)	3.3(0.7)	3.0(0.8)	3.2(0.6)
	전문대졸	3.3(0.6)	3.5(0.7)	3.4(0.6)	3.1(0.7)	3.3(0.6)
	4년대졸	3.4(0.6)	3.6(0.6)	3.4(0.6)	3.3(0.7)	3.4(0.5)
	대학원이상	3.6(0.5)	3.8(0.5)	3.6(0.6)	3.5(0.6)	3.6(0.5)
F	13.05(999)***	9.20(999)***	7.06(999)***	12.86(999)***	12.74(999)***	
직업	자영업	3.3(0.7)	3.5(0.7)	3.4(0.6)	3.2(0.8)	3.4(0.6)
	블루칼라	3.3(0.6)	3.4(0.6)	3.3(0.6)	3.1(0.8)	3.3(0.6)
	화이트칼라	3.4(0.6)	3.6(0.6)	3.5(0.6)	3.3(0.7)	3.5(0.5)
	기타	3.1(0.7)	3.4(0.6)	3.4(0.6)	3.1(0.7)	3.3(0.6)
F	5.52(999)***	6.27(999)***	4.44(999)**	6.48(999)***	6.89(99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0.6)	3.4(0.6)	3.3(0.6)	3.1(0.7)	3.3(0.5)
	300~400만원미만	3.3(0.6)	3.5(0.5)	3.4(0.6)	3.1(0.7)	3.3(0.5)
	400~500만원미만	3.4(0.6)	3.6(0.6)	3.5(0.6)	3.2(0.7)	3.4(0.5)
	500~700만원미만	3.5(0.6)	3.7(0.6)	3.5(0.6)	3.4(0.7)	3.5(0.5)
	700만원 이상	3.5(0.6)	3.7(0.7)	3.6(0.6)	3.5(0.8)	3.5(0.6)
F	7.44(999)***	5.93(999)***	6.60(999)***	9.41(999)***	9.02(999)***	

주: 아버지, 어머니 설문외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 $p < .001$

3)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아버지 양육역량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교육을 이수한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양육점수가 0.4점 높았다. 주당 초과근무횟수가 3회 이상 하는 아버지의 양육점수가 낮으며, 유년시절 본인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양육점수가 비해당(유년시절 아버지 부재) 다음으로 높았다.

〈표 IV-3-9〉 초등 아버지 자녀양육 관련 배경별 양육역량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아버지 역량 영역				전체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육아 휴직 사용 여부	사용함	3.6(0.6)	3.7(0.6)	3.6(0.6)	3.6(0.7)	3.7(0.6)
	사용안함	3.3(0.6)	3.5(0.6)	3.4(0.6)	3.1(0.7)	3.3(0.5)
	t	7.07(998)***	4.59(998)***	5.65(998)***	9.20(998)***	7.53(998)***
아버지 교육 이수	이수함	3.7(0.5)	3.8(0.5)	3.7(0.5)	3.7(0.6)	3.7(0.5)
	이수안함	3.3(0.6)	3.5(0.6)	3.4(0.6)	3.2(0.7)	3.3(0.6)
	잘 모름	3.4(0.6)	3.6(0.6)	3.5(0.5)	3.3(0.7)	3.5(0.5)
	t	7.067(950)***	5.651(950)***	5.466(950)***	8.10(950)***	7.41(950)***
주당 초과 근무 횟수	없음	3.4(0.6)	3.6(0.6)	3.4(0.6)	3.2(0.7)	3.4(0.6)
	1~2회	3.5(0.6)	3.6(0.6)	3.5(0.6)	3.4(0.7)	3.5(0.5)
	3회이상	3.3(0.6)	3.5(0.6)	3.4(0.6)	3.2(0.7)	3.3(0.6)
	F	8.08(999)***	6.20(999)**	8.65(999)***	9.201(999)***	9.784(999)***
유년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나쁨	3.4(0.5)	3.5(0.6)	3.4(0.6)	3.2(0.6)	3.4(0.5)
	보통	3.5(0.5)	3.6(0.5)	3.4(0.5)	3.3(0.5)	3.4(0.4)
	좋음	3.6(0.5)	3.8(0.5)	3.6(0.5)	3.6(0.5)	3.6(0.4)
	비해당	3.8(0.3)	4.0(0.4)	3.7(0.5)	3.7(0.7)	3.8(0.4)
	F	9.48(487)***	10.68(487)***	13.61(487)***	22.13(487)***	17.51(487)**

주: 1) 아버지, 어머니 설문지 설문항목의 공통된 문항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별 t/F 검증을 실시함.

2) 유년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해당'은 유년시절 아버지 부재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4. 영역별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 수준 평가

가. 발달과 놀이

발달과 놀이 영역은 인식 역량 2개 문항, 실행 역량 9개 문항, 성장 역량 2개 문항 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개요

발달과 놀이 영역에서 아버지 양육역량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적으로 성장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인식, 실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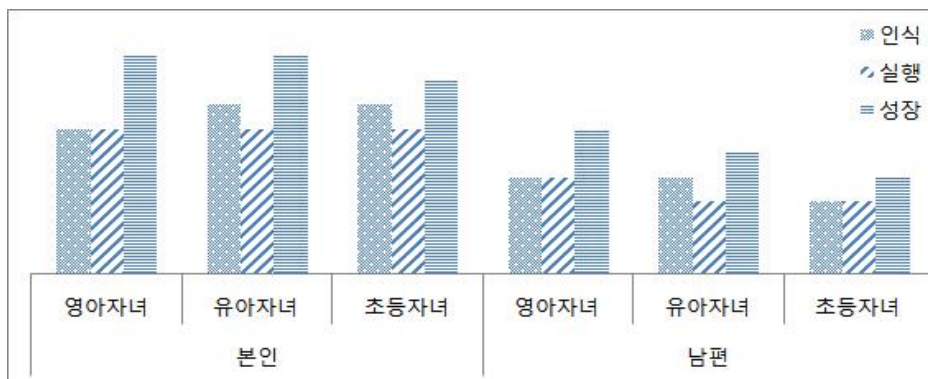
만, 영아자녀를 둔 아버지의 인식과 실행 평균이 3.5점으로 동일하였다.

인식, 실행, 성장 모든 역량에서 아버지 본인의 점수가 배우자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양육역량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간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1> 발달과 놀이 양육역량별 현황

구분		인식역량 평균	실행역량 평균	성장역량 평균
영아자녀	본인	3.5(0.7)	3.5(0.5)	3.8(0.7)
	남편	3.3(0.9)	3.3(0.7)	3.5(0.9)
	t	5.15(998)***	6.68(998)***	5.67(998)***
유아자녀	본인	3.6(0.7)	3.5(0.5)	3.8(0.7)
	남편	3.3(0.8)	3.2(0.7)	3.4(0.9)
	t	5.46(998)***	9.36(998)***	7.73(998)***
초등자녀	본인	3.6(0.6)	3.5(0.5)	3.7(0.7)
	남편	3.2(0.8)	3.2(0.6)	3.3(0.9)
	t	7.43(998)***	8.57(998)***	8.19(998)***

*** $p < .001$



자료: <표 IV-4-1>을 도식화함.

[그림 IV-4-1] 발달과 놀이 양육역량별 본인과 남편 평가 비교

2) 인식

발달과 놀이의 인식 역량은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발달과 놀이 2)”가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발달과 놀이 1)”보다 모든 연령에서 평균적으로 0.6~0.7점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은 발달 특성보다는 놀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겠다.

발달과 놀이 1번 문항의 경우 초등자녀를 둔 아버지 역량에 대해 아버지 본인이 응답한 점수보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점수가 0.2점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문항에 대해서는 영아/유아/초등 자녀를 둔 아버지 본인의 점수보다 여성이 남편에 대한 점수가 0.4~0.5점 낮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에 “놀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표 IV-4-2> 발달과 놀이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발달과 놀이 1	평균	3.0 (0.9)	3.1 (0.9)	3.0 (0.9)	3.1 (0.9)	3.2 (0.8)	3.1 (0.9)	3.1 (0.8)	3.2 (0.8)	3.0 (0.9)
	t	1.36(998)			1.56(982)			3.38(998)***		
	F	4.08(2999)*								
발달과 놀이 2	평균	3.7 (0.9)	4.0 (0.9)	3.5 (1.0)	3.8 (0.9)	4.0 (0.8)	3.6 (0.9)	3.7 (0.9)	3.9 (0.8)	3.4 (1.0)
	t	7.49(981)***			7.98(973)***			9.46(939)***		
	F	3.44(2999)*								

주: 발달과 놀이 1: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발달과 놀이 2: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 $p < .05$, *** $p < .001$

3) 실행

실행역량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발달과 놀이 4)” 문항이 점수가 가장 높았다. 영아와 유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0점이지만, 초등자녀를 둔 경우 평균 3.7점으로 자녀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발달과 놀이 9)”는 문항이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다. 즉,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들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많은 결과이다.

한편,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 동화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발달과 놀이 3)”은 남성과 여성의 응답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자녀를 둔 경우 0.3점, 유아자녀를 둔 경우 0.5점, 초등자녀를 둔 경우 0.4점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와 책을 자주 읽는다고 생

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유아자녀를 둔 경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발달과 놀이 5)”,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발달과 놀이 7)”,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발달과 놀이 10)”는 문항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해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의 아버지 양육역량에 대해 낮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3> 발달과 놀이: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발달과 놀이 3	평균	3.2 (1.0)	3.3 (0.9)	3.0 (1.1)	3.1 (1.1)	3.4 (0.9)	2.9 (1.1)	3.0 (1.0)	3.2 (0.9)	2.8 (1.1)
	t	4.73(955)***			7.86(960)***			6.74(977)***		
	F	9.0(2999)***								
발달과 놀이 4	평균	4.0 (0.9)	4.0 (0.9)	4.0 (0.9)	4.0 (0.8)	4.0 (0.8)	3.9 (0.9)	3.7 (0.9)	3.8 (0.8)	3.7 (0.9)
	t	0.57(998)			3.58(970)***			2.91(986)**		
	F	25.11(2999)***								
발달과 놀이 5	평균	3.1 (1.0)	3.3 (0.8)	3.0 (1.1)	3.0 (1.0)	3.2 (0.9)	2.7 (1.1)	3.0 (1.0)	3.3 (0.9)	2.8 (1.0)
	t	4.92(950)***			9.13(960)***			7.78(977)***		
	F	4.84(2999)**								
발달과 놀이 6	평균	4.0 (0.9)	4.1 (0.8)	3.9 (1.0)	3.9 (0.9)	4.0 (0.8)	3.8 (1.0)	3.7 (0.9)	3.8 (0.8)	3.6 (0.9)
	t	3.63(976)***			4.89(970)***			4.27(973)***		
	F	18.69(2999)***								
발달과 놀이 7	평균	3.2 (0.9)	3.3 (0.8)	3.1 (1.0)	3.3 (0.9)	3.5 (0.8)	3.1 (1.0)	3.4 (0.9)	3.6 (0.8)	3.2 (0.9)
	t	4.46(998)***			6.17(954)***			7.07(967)***		
	F	17.84(2999)***								
발달과 놀이 8	평균	3.6 (0.9)	3.8 (0.7)	3.4 (0.9)	3.6 (0.8)	3.8 (0.8)	3.5 (0.9)	3.6 (0.8)	3.7 (0.8)	3.5 (0.8)
	t	7.05(926)***			6.18(978)***			4.55(986)***		
	F	0.48(2999)								

(표 IV-3-3 계속)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발달과 놀이 9	평균	2.8 (0.9)	2.7 (0.9)	2.8 (0.9)	2.7 (0.9)	2.7 (0.9)	2.8 (1.0)	2.7 (1.0)	2.7 (0.9)	2.8 (1.0)
	t	-2.85(998)**			-2.23(998)*			-2.50(998)*		
	F	0.31(2999)								
발달과 놀이 10	평균	3.4 (0.9)	3.6 (0.7)	3.2 (0.9)	3.4 (0.9)	3.6 (0.8)	3.2 (0.9)	3.4 (0.9)	3.6 (0.8)	3.1 (0.9)
	t	7.51(958)***			8.01(964)***			9.23(998)***		
	F	2.38(2999)								
발달과 놀이 11	평균	3.5 (0.8)	3.6 (0.8)	3.5 (0.9)	3.5 (0.9)	3.6 (0.7)	3.4 (0.9)	3.4 (0.8)	3.5 (0.8)	3.3 (0.9)
	t	2.13(971)*			4.14(944)***			4.38(976)***		
	F	2.97(2999)								

- 주. 발달과 놀이 3: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 동화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발달과 놀이 4: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발달과 놀이 5: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발달과 놀이 6: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발달과 놀이 7: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발달과 놀이 8: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발달과 놀이 9: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발달과 놀이 10: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발달과 놀이 11: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 $p < .05$, ** $p < .01$, *** $p < .001$

4) 성장

성장역량에서는 전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발달과 놀이 13)” 문항에 대한 점수가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발달과 놀이 12)” 문항 점수보다 평균이 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역량에 있어서도 남성(본인)과 여성(남편)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각 부문별로 적게는 0.2점에서 많게는 0.4점까지 차이가 있었다.

발달과 놀이 영역에서 성장역량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문항에서 영아부모 3.5점, 유아부모 3.4점, 초등부모 3.3점(전체 기준)이며 13문항에서는 영아부모 3.9점, 유아부모 3.8점, 초등부모 3.7점(전체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IV-4-4> 발달과 놀이: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발달과 놀이 12	평균	3.5 (0.9)	3.7 (0.8)	3.3 (1.0)	3.4 (1.0)	3.6 (0.8)	3.2 (1.1)	3.3 (0.9)	3.5 (0.8)	3.1 (1.0)
	t	6.32(943)***			7.53(945)***			7.19(963)***		
	F	13.38(2999)***								
발달과 놀이 13	평균	3.9 (0.8)	4.0 (0.8)	3.8 (0.9)	3.8 (0.8)	4.0 (0.8)	3.6 (0.9)	3.7 (0.9)	3.8 (0.8)	3.5 (0.9)
	t	3.63(994)***			6.16(983)***			7.31(976)***		
	F	15.41(2999)***								

주. 발달과 놀이 12: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발달과 놀이 13: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

*** $p < .001$

나.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은 인식 역량 3개 문항, 실행 역량 9개 문항, 성장 역량 3개 문항 등 총 15개(유아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 문항 중 “나는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는 분석 시, 최종 삭제하였다.

1) 개요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에서도 발달과 놀이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장역량의 평균이 실행 및 인식역량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아버지 본인이 응답한 점수와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응답한 점수에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앞서 살펴 본 발달과 놀이 영역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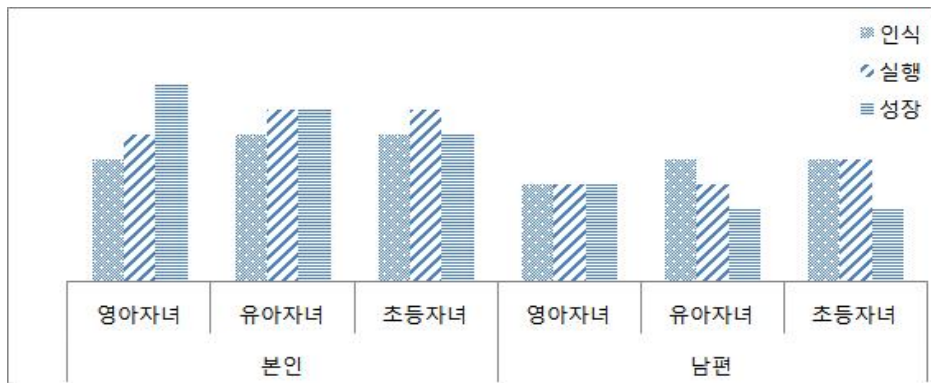
<표 IV-4-5>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역량별 현황

단위: 점

구분		인식역량 평균	실행역량 평균	성장역량 평균
영아자녀	본인	3.5(0.7)	3.6(0.5)	3.8(0.7)
	남편	3.4(0.8)	3.4(0.6)	3.4(0.9)
	t	2.34(998)***	4.02(966)***	6.79(998)***
유아자녀	본인	3.6(0.6)	3.7(0.5)	3.7(0.7)
	남편	3.5(0.8)	3.4(0.7)	3.3(1.0)
	t	3.60(998)***	6.88(975)***	8.55(998)***

(표 IV-45 계속)

구분	인식역량 평균	실행역량 평균	성장역량 평균
본인	3.6(0.6)	3.7(0.5)	3.6(0.7)
초등자녀	3.5(0.8)	3.5(0.7)	3.3(1.0)
t	2.13(998)***	4.81(974)***	6.63(998)***

*** $p < .001$ 

자료: <표 IV-45>을 도식화함.

[그림 IV-4-2]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양육역량별 본인과 남편 평가 비교

2) 인식

인식역량에서는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거의 비슷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건강상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건강안전생활지도 3)”는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건강안전생활지도 2)”는 문항은 모든 대상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본인이 자녀의 비상약 장소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아내들은 배우자가 비상약 장소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4-6>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건강안전생활 지도 1	평균	3.6 (1.0)	3.6 (0.9)	3.7 (1.0)	3.7 (0.9)	3.7 (0.9)	3.7 (0.9)	3.7 (0.8)	3.7 (0.9)	
	t	-1.18(979)			-0.17(988)			-0.58(986)		
	F	4.55(2999)*								
건강안전생활 지도 2	평균	3.6 (1.0)	3.8 (0.9)	3.4 (1.1)	3.7 (1.0)	3.9 (0.9)	3.5 (1.1)	3.7 (0.9)	3.8 (0.8)	3.5 (1.0)
	t	5.29(946)***			6.02(956)***			4.87(966)***		
	F	1.37(2999)								
건강안전생활 지도 3	평균	3.2 (0.9)	3.3 (0.8)	3.2 (0.9)	3.3 (0.9)	3.3 (0.8)	3.2 (1.0)	3.3 (0.9)	3.4 (0.8)	3.3 (0.9)
	t	1.20(979)			2.53(961)*			0.63(981)		
	F	4.09(2999)*								

주. 건강안전생활지도 1: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건강안전생활지도 2: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건강안전생활지도 3: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p < .05$, *** $p < .001$

3) 실행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영역의 실행역량은 자녀 연령별 대상별로 각기 다른 문항을 두었다. 예컨대, “영아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건강안전생활지도 9)” 문항은 영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만 질문하였다. 동 질문에 대해 남성(본인)과 여성(남편)은 0.1점 차이에 불과하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실행역량 중 모든 자녀 연령별 대상에서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건강안전생활지도 11)”는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가 예방접종을 할 때 같이 간다(건강안전생활지도 4)”는 문항에 대해서는 영아자녀를 둔 아버지가 유아부모를 둔 아버지보다 좀 더 높은 역량을 보인 반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건강안전생활지도 7)”는 문항에 대해서는 유아자녀를 둔 아버지가 영아자녀를 둔 아

버지보다 좀 더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건강 안전 생활	평균	3.4 (1.1)	3.5 (1.1)	3.3 (1.2)	3.2 (1.1)	3.4 (1.0)	3.0 (1.2)	-	-	-
	t	3.08(976)**			6.16(998)***			-		
지도4	t	3.97(1998)***						-		
건강 안전 생활	평균	3.1 (1.2)	3.3 (1.0)	2.8 (1.2)	3.1 (1.2)	3.3 (1.1)	2.8 (1.2)	3.2 (1.1)	3.3 (1.0)	3.0 (1.1)
	t	5.97(918)***			7.68(940)***			5.61(974)***		
지도5	F	2.64(2921)								
건강 안전 생활	평균	3.4 (1.0)	3.4 (0.9)	3.3 (1.0)	3.6 (0.9)	3.6 (0.8)	3.5 (1.0)	3.6 (0.9)	3.7 (0.8)	3.5 (0.9)
	t	2.23(982)*			2.59(964)**			2.35(976)*		
지도6	F	22.01(2999)***								
건강 안전 생활	평균	-	-	-	3.2 (1.1)	3.3 (1.0)	3.1 (1.2)	3.3 (1.1)	3.4 (1.0)	3.2 (1.1)
	t	-			3.14(963)**			2.66(977)**		
지도7	t	-			-2.62(1998)**					
건강 안전 생활	평균	3.8 (0.9)	3.8 (0.9)	3.7 (1.0)	3.9 (0.9)	4.0 (0.7)	3.8 (1.0)	3.8 (0.9)	3.9 (0.8)	3.7 (0.9)
	t	1.29(990)			4.53(927)***			2.58(976)*		
지도8	F	7.82(2999)***								
건강 안전 생활	평균	3.4 (1.0)	3.4 (0.9)	3.3 (1.0)	-	-	-	-	-	-
	t	2.795(998)**			-			-		
지도9	F	-								
건강안 전생활	평균	-	-	-	3.6 (0.9)	3.6 (0.8)	3.5 (1.0)	3.7 (0.8)	3.7 (0.8)	3.6 (0.9)
	t	-			2.47(979)*			2.36(985)*		
지도9	t	-			-3.24(1986.587)**					
건강안 전생활	평균	3.2 (0.9)	3.3 (0.8)	3.1 (1.0)	3.5 (0.9)	3.7 (0.7)	3.4 (1.0)	3.6 (0.9)	3.7 (0.7)	3.4 (1.0)
	t	3.15(958)**			5.67(917)***			5.02(930)***		
지도10	F	47.12(2999)***								
건강안 전생활	평균	3.9 (0.8)	3.9 (0.8)	3.9 (0.8)	4.0 (0.8)	4.1 (0.7)	3.9 (0.8)	4.0 (0.8)	4.0 (0.7)	3.9 (0.8)
	t	0.32(998)			3.68(998)***			1.58(975)		
지도11	F	8.70(2999)***								

(표 IV-4-7 계속)

구분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건강안전생활지도	평균	4.0 (0.8)	4.0 (0.7)	4.0 (0.8)	4.0 (0.8)	4.1 (0.7)	3.9 (0.8)	3.8 (0.8)	3.9 (0.8)	3.7 (0.9)
	t	-0.07(983)			3.74(978)***			2.69(984)**		
	F	20.15(2999)***								

- 주. 건강안전생활지도 4: 자녀가 예방접종 받을 때 같이 간다
- 건강안전생활지도 5: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 건강안전생활지도 6: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 건강안전생활지도 7: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유아, 초등)
- 건강안전생활지도 8: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건강안전생활지도 9: 영아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영아)
- 건강안전생활지도 9: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유아, 초등)
- 건강안전생활지도 10: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한다
- 건강안전생활지도 11: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건강안전생활지도 12: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 $p < .05$, ** $p < .01$, *** $p < .001$

4) 성장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영역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장역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음주를 자제하거나(건강안전생활지도 14) 흡연을 자제하는(건강안전생활지도 15) 문항에서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본인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같다(건강안전생활지도 13)”는 문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 간의 점수가 0.5점~0.7점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성들은 본인의 양육방식에 대한 반성을 한다고 느끼는 반면,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의 양육태도를 되돌아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8>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

인식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건강안전생활지도	평균	3.4 (1.0)	3.7 (0.8)	3.1 (1.1)	3.3 (1.0)	3.7 (0.8)	3.0 (1.1)	3.4 (1.0)	3.6 (0.8)	3.1 (1.0)
	t	9.70(917)***			12.67(923)***			9.11(939)***		
	F	1.61(2999)								

(표 IV-48 계속)

인식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건강 안전	평균	3.5	3.7	3.4	3.3	3.4	3.2	3.3	3.4	3.2
생활	(SD)	(1.1)	(1.0)	(1.2)	(1.2)	(1.1)	(1.3)	(1.1)	(1.0)	(1.2)
지도	t	4.24(941)***			3.05(980)**			3.38(976)***		
14	F	12.14(2999)***								
건강 안전	평균	3.9	4.0	3.8	3.8	3.9	3.7	3.7	3.8	3.5
생활	(SD)	(1.2)	(1.1)	(1.3)	(1.3)	(1.2)	(1.4)	(1.2)	(1.1)	(1.3)
지도	t	2.11(949)*			2.71(982)**			3.82(977)***		
15	F	7.29(2999)***								

주. 건강안전생활지도 13: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본인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같다

건강안전생활지도 14: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건강안전생활지도 15: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 $p < .05$, ** $p < .01$, *** $p < .001$

다. 가족관계

가족 관계 영역은 총 11개 문항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 중 인식 역량 2개, 실행 역량 8개, 성장 역량 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이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제시문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행역량의 가족관계 5번 문항인 '나는 아내와 양육관(교육관) 차이로 다툼적'이다 문항이다.

1) 개요

모든 연령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 실행 성장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연령의 아버지들의 평균이 어머니가 판단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점수의 차이는 0.1 ~ 0.3점 사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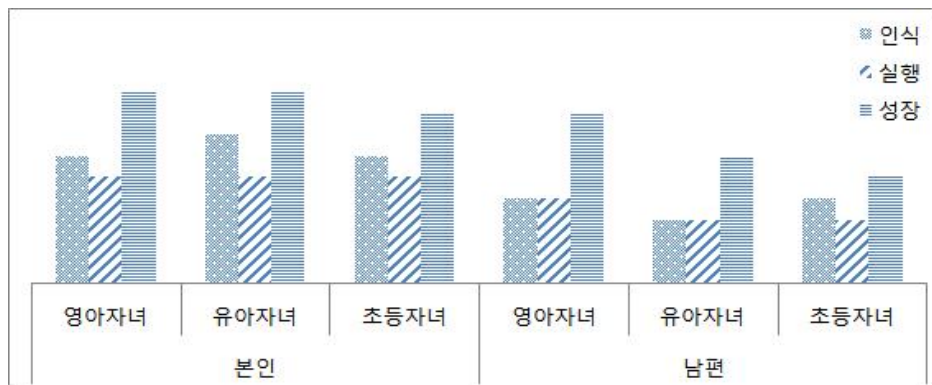
<표 IV-4-9> 가족관계 양육역량별 현황

		단위: 점		
		인식평균(표준편차)	실행평균(표준편차)	성장평균(표준편차)
영아부모	본인	3.6(0.7)	3.5(0.5)	3.9(0.8)
	남편	3.4(0.9)	3.4(0.6)	3.8(0.9)
	t	2.96(994)***	3.42(995)***	3.05(989)***

(표 IV-4-9 계속)

		인식평균(표준편차)	실행평균(표준편차)	성장평균(표준편차)
유아부모	본인	3.7(0.7)	3.5(0.5)	3.9(0.8)
	남편	3.3(0.9)	3.3(0.7)	3.6(1.0)
	t	6.20(994)***	5.52(991)***	6.13(991)***
초등부모	본인	3.6(0.7)	3.5(0.5)	3.8(0.8)
	남편	3.4(0.9)	3.3(0.6)	3.5(1.0)
	t	4.61(997)***	2.98(990)***	5.67(997)***

*** $p < .001$



자료: <표 IV-4-9>을 도식화함.

[그림 IV-4-3] 가족관계 양육역량별 본인과 남편 평가 비교

2) 인식

가족관계의 인식영역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유아부모 및 초등부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양육방식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의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는 두 질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IV-4-10> 가족관계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인식		단위: 점(표준편차)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가족	관계 1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평균		3.7 (0.9)	3.7 (0.8)	3.6 (1.0)	3.6 (0.9)	3.8 (0.8)	3.5 (1.0)	3.6 (0.9)	3.7 (0.7)	3.5 (1.0)

(표 IV-4-10 계속)

인식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가족 관계 1	t	1.07(931)			4.06(925)***			4.21(923)***		
	F	0.22(2990)								
가족 관계 2	평균	3.4 (0.9)	3.5 (0.8)	3.2 (1.0)	3.4 (0.9)	3.6 (0.8)	3.2 (1.0)	3.4 (0.9)	3.5 (0.8)	3.3 (1.0)
	t	4.13(974)***			7.13(929)***			3.94(964)***		
	F	0.03(2999)								

주. 가족관계 1: 나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가족관계 2: 나의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 $p < .001$

3) 실행

가족관계의 실행영역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식사한다(가족관계 3)는 질문에 대해서 영아부모 및 유아부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자녀 앞에서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가족관계 4)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가족관계 8), ‘자녀를 다른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가족관계 9)에 대해서는 유아부모와 초등부모사이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배우자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가족관계 6)와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가족관계 10)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아버지의 응답과 어머니의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배우자와 양육관(교육관) 차이로 다툼 적이 있다(가족관계 5)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아부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금도 배우자와 데이트한다는 질문(가족관계 7)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각 질문별 영아, 유아, 초등 부모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5, 7, 8, 9, 10 번 질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3-11> 가족관계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실행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가족 관계 3	평균	3.5 (1.1)	3.6 (1.0)	3.3 (1.1)	3.4 (1.1)	3.6 (1.0)	3.3 (1.2)	3.5 (1.0)	3.5 (1.0)	3.5 (1.0)
	t	3.77(989)***			3.94(980)***			-0.137(991)		
	F	1.10(2999)								
가족 관계 4	평균	3.5 (1.0)	3.6 (0.9)	3.4 (1.1)	3.4 (1.0)	3.5 (1.0)	3.3 (1.1)	3.4 (1.0)	3.5 (0.9)	3.4 (1.1)
	t	1.72(957)			2.93(974)**			2.00(965)*		
	F	2.29(2981)								
가족 관계 5	평균	3.0 (1.0)	3.1 (1.0)	3.0 (1.0)	3.0 (1.0)	3.1 (0.9)	2.9 (1.0)	2.9 (0.9)	2.9 (0.9)	2.8 (1.0)
	t	0.64(995)			2.92(991)**			1.61(987)		
	F	8.842(2981)***								
가족 관계 6	평균	3.3 (1.0)	3.5 (0.9)	3.2 (1.1)	3.3 (1.0)	3.5 (0.9)	3.0 (1.1)	3.4 (0.9)	3.5 (0.8)	3.2 (1.0)
	t	4.48(936)***			8.65(925)***			5.74(932)***		
	F	2.96(2981)								
가족 관계 7	평균	2.9 (1.2)	2.9 (1.1)	2.8 (1.2)	2.8 (1.1)	2.9 (1.1)	2.8 (1.2)	3.1 (1.1)	3.1 (1.0)	3.1 (1.1)
	t	1.29(982)			1.23(979)			0.23(984)		
	F	19.75(2981)***								
가족 관계 8	평균	3.8 (1.0)	3.9 (0.9)	3.7 (1.1)	3.8 (0.9)	3.9 (0.8)	3.7 (1.0)	3.6 (0.9)	3.7 (0.9)	3.5 (1.0)
	t	1.83(953)			3.39(963)***			2.84(977)***		
	F	10.19(2999)***								
가족 관계 9	평균	3.8 (0.9)	3.8 (0.8)	3.8 (0.9)	3.7 (0.9)	3.8 (0.8)	3.6 (0.9)	3.6 (0.9)	3.7 (0.8)	3.5 (0.9)
	t	0.41(984)			3.57(992)***			2.40(979)*		
	F	14.13(2999)***								
가족 관계 10	평균	3.8 (0.8)	3.9 (0.7)	3.7 (0.9)	3.7 (0.8)	3.8 (0.7)	3.6 (0.9)	3.6 (0.8)	3.7 (0.7)	3.6 (0.9)
	t	2.86(969)**			4.83(961)***			3.29(952)**		
	F	6.27(2999)**								

주. 가족관계 3: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가족관계 4: 나는 자녀 앞에서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가족관계 5: 나는 배우자와 양육관(교육관) 차이로 다툼 적이 있다
 가족관계 6: 나는 배우자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가족관계 7: 나는 지금도 배우자와 단들이 데이트를 한다
 가족관계 8: 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가족관계 9: 나는 자녀를 다른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10: 나는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 $p < .05$, ** $p < .01$, *** $p < .001$

4) 성장

가족관계의 성장영역을 살펴보면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연령의 아버지, 어머니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의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12> 가족관계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성장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가족 관계 11	평균	3.8 (0.9)	3.9 (0.8)	3.8 (0.9)	3.8 (0.9)	3.9 (0.8)	3.6 (1.0)	3.7 (0.9)	3.8 (0.8)	3.5 (1.0)
	t	6.19(978)***			6.12(921)***			5.67(957)***		
		F								
		7.07(2982)***								

주. 가족관계 11: 나는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 $p < .001$

라.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이 영역은 인식 4개 문항(영아 3개), 실행 7개 문항, 성장 1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영아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문항에서 “자녀가 원하는 물건은 사준다”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 개요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분할 문항이 소속되어 있는 역량과 아버지에게만 질문한 문항이 포함된 경우, 평균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t검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검정치가 제시되지 않은 영아부모의 성장역량 평균 비교와 유아부모의 실행역량 평균비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비교에서 아버지들의 평균이 어머니가 판단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점수의 차이는 0.2 ~ 0.4점 사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영역은 앞의 3개 영역과 다른 경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3개 영역은 성장역량 점수가 높고, 인식, 실행은 이보다 대체로 낮는데 비해 이 영역은 인식역량이 높고, 성장역량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13>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양육역량별 현황

구분		인식역량 평균	실행역량 평균	성장역량 평균
영아자녀	본인	3.5(0.6)	3.4(0.6)	3.0(1.0)
	남편	3.1(0.7)	2.8(0.8)	2.6(1.0)
	t	5.90(634)***	10.22(634)***	-
유아자녀	본인	3.5(0.6)	3.2(0.6)	3.1(1.0)
	남편	3.1(0.7)	2.7(0.8)	2.7(1.1)
	t	9.43(974)***	-	5.83(998)***
초등자녀	본인	3.6(0.6)	3.3(0.6)	3.0(1.0)
	남편	3.4(0.8)	3.0(0.9)	2.6(1.2)
	t	4.81(998)***	6.23(998)***	5.89(998)***

*** $p < .001$



자료: <표 IV-4-13>를 도식화함

[그림 IV-4-4]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양육역량별 본인과 배우자 평가 비교

2) 인식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인식영역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영아, 유아, 초등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과 지역사회

에서 육아/자녀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는 질문,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구성원 및 기관명을 알고 있다는 질문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 집단에 따른 차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자녀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는 질문과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구성원 및 기관명을 알고 있다는 질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14>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인식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인식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환경 및 지역1	평균	3.7 (0.8)	3.9 (0.7)	3.5 (0.9)	3.7 (0.8)	3.9 (0.7)	3.5 (0.8)	3.7 (0.8)	3.8 (0.7)	3.7 (0.9)
	t	6.19(978)***			8.70(990)***			2.60(958)**		
	F	1.17(2999)								
환경 및 지역2	평균	3.0 (1.0)	3.2 (0.9)	2.8 (1.0)	2.8 (1.0)	3.1 (0.9)	2.6 (1.0)	3.5 (1.0)	3.6 (0.8)	3.4 (1.1)
	t	6.35(989)***			8.28(997)***			3.83(953)***		
	F	135.57(2999)***								
환경 및 지역3	평균	-	-	-	3.5 (0.9)	3.6 (0.9)	3.3 (1.0)	3.5 (0.9)	3.6 (0.8)	3.4 (1.0)
	t	-			4.76(981)***			3.50(954)***		
	F	-0.50(1998)								
환경 및 지역4	평균	3.1 (1.1)	3.3 (1.0)	2.9 (1.1)	3.2 (1.0)	3.4 (1.0)	3.0 (1.0)	3.2 (1.0)	3.4 (1.0)	3.1 (1.1)
	t	5.38(634)***			5.624(974)***			4.15(998)***		
	F	3.52(2611)*								

주. 환경 및 지역 1: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환경 및 지역 2: 지역사회에서 육아/자녀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환경 및 지역 3: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유아, 초등)
 환경 및 지역 4: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학교의 기관명, 반이름,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3) 실행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의 실행영역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환경 및 지역 5),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환경 및 지역 6),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환경 및 지역 8),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환경 및 지역 9),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환경 및 지역 10)는 질문들에서 모든 연령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부모에 대한 질문인 자녀의 생필품(기저귀, 분유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해 둔다(환경 및 지역 영아)에서는 다소 큰 차이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초등부모에 대한 질문인 자녀가 읽을 책을 직접 고른다(환경 및 지역 초등)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각 질문별 영아, 유아, 초등 부모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6, 8, 9, 10번 질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4-15>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실행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실행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환경 및 지역5	평균	3.5 (1.0)	3.7 (0.8)	3.3 (1.1)	3.5 (1.0)	3.8 (0.8)	3.3 (1.1)	3.5 (1.0)	3.6 (0.9)	3.4 (1.2)
	t	7.01(864)***			8.61(913)***			3.69(923)***		
	F	0.20(2999)								
환경 및 지역6	평균	3.0 (1.1)	3.3 (1.0)	2.7 (1.1)	2.8 (1.1)	3.1 (1.0)	2.5 (1.1)	3.1 (1.1)	3.3 (0.9)	2.9 (1.1)
	t	9.35(976)***			9.67(989)***			5.99(952)***		
	F	15.69(2999)***								
환경 및 지역 7	평균	3.4 (1.1)	3.7 (0.9)	3.0 (1.2)	-	-	-	-	-	-
	t	10.809(923)***			-			-		
	F	-								
환경 및 지역 7-1	평균	-	-	-	-	-	-	3.0 (1.0)	3.1 (0.9)	2.8 (1.1)
	t	-			-			4.70(954)***		
	F	-								
환경 및 지역8	평균	2.8 (1.0)	3.1 (0.9)	2.6 (1.1)	2.7 (1.0)	2.9 (1.0)	2.4 (1.0)	3.2 (1.0)	3.4 (0.9)	3.0 (1.1)
	t	8.39(977)***			8.63(998)***			6.19(944)***		
	F	23.341(2999)***								

(표 IV-4-15 계속)

실행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환경 및 지역9	평균	2.8 (1.0)	3.0 (1.0)	2.7 (1.0)	2.7 (1.0)	2.9 (1.0)	2.5 (1.0)	2.9 (1.0)	3.1 (0.9)	2.8 (1.1)
	t	5.77(996)***			6.68(995)***			5.23(973)***		
	F	75.06(2999)***								
환경 및 지역 10	평균	3.2 (1.2)	3.5 (1.0)	2.8 (1.2)	3.2 (1.1)	3.4 (1.0)	2.9 (1.2)	3.1 (1.1)	3.4 (1.0)	2.9 (1.1)
	t	8.06(611)***			7.44(720)***			6.15(824)***		
	F	33.05(2119)***								

- 주. 환경 및 지역 5: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 환경 및 지역 6: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 환경 및 지역 7: 자녀의 생필품(기저귀, 분유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해둔다(영아)
- 환경 및 지역 7-1: 자녀가 입을 책을 직접 고른다(초등)
- 환경 및 지역 8: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 환경 및 지역 9: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 환경 및 지역 10: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 $p < .001$

4) 성장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의 성장영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연령의 아버지, 어머니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의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16>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성장역량 문항별 현황

단위: 점(표준편차)

성장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부모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전체	본인	남편
환경 및 지역 11	평균	2.8 (1.0)	3.0 (1.0)	2.6 (1.0)	2.9 (1.1)	3.1 (1.0)	2.7 (1.1)	2.8 (1.1)	3.0 (1.0)	2.6 (1.2)
	t	5.90(996)***			5.834(988)***			5.43(975)***		
	F	57.90(2499)***								

- 주. 환경 및 지역 11: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p < .001$

5. 지원 요구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연령별, 본인 및 남편 대상자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버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아버지 본인, 배우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아버지 본인보다 배우자 입장에서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온 점이 흥미롭다. 배우자가 아버지(남편)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아버지 본인보다 높다는 것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남편)의 자녀양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 자녀를 둔 배우자의 아버지(남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3.36점으로 가장 높으며, 유아(3.35점), 초등(3.06점)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도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즘은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좀 노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양성이 없다고 하나 기껏해야 칼싸움하고 영화보고 그러는데 그것만하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내가 애가 좀더 넓게 보고 그런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저만 알고 저만 하던거만 하니까 그런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아버지 교육을) 받아보는거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2).

어떻게든 지원만 하면 받을 생각은 있어요. 한 시간 두 시간 빼는 것도 (찾아와서) 와서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대환영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갈 수 있어요. 아버지 교육은 무조건 필요하죠.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8).

아버지 교육을 받으니까 몰랐던 것도 알고 도움이 되는 것도 좋고……아버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리마인드하게 되요. 지난 주에 애한테 이야기할 때는 발끝이랑 눈이랑 같이 해서 하라고 배웠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배우고 나서는) 하려고 노력해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5).

〈표 IV-5-1〉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

단위: %, 점(표준편차)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계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소계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소계		
영 본인	1.6	11.1	12.7	57.9	29.4	87.3	100.0(500)	3.15(0.67)
아 남편	0.8	5.8	6.4	49.9	43.5	93.6	100.0(500)	3.36(0.63)
유 본인	0.6	12.9	13.5	61.1	25.4	86.5	100.0(500)	3.11(0.63)
아 남편	0.4	5.9	6.3	61.1	25.4	93.7	100.0(500)	3.35(0.61)

(표 IV-5-1 계속)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계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음	거의 필요하지 않음	소계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소계		
초 본인	1.1	11.7	12.8	66.9	20.3	87.2	100.0(500)	3.06(0.6)
등 남편	1.0	6.9	7.9	52.2	39.9	92.1	100.0(500)	3.06(0.64)

그렇다면 아버지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물어보았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며 직장, 집근처, 민방위·예비군 훈련 장소 등의 오프라인 공간도 골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회사 근처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른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아버지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영업 아버지와 블루칼라 아버지는 집근처에서의 교육을 가장 희망했다. 자영업 아버지는 2순위로 온라인 교육을 선호했고, 블루칼라 아버지는 직장과 온라인 교육이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였다. 반면, 화이트 칼라 아버지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가장 희망했으며 집근처, 온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학생, 무직/퇴직 등)는 온라인 교육을 가장 희망했다. 아버지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표 IV-5-2〉 실천가능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구분	직장 실시	민방위· 예비군 실시	주중 저녁/주말 집 근처 기관 에서 실시	온라인 실시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에서 실시	단위: %(명)
						계
자녀연령						
영아	25.1	21.0	23.0	25.4	5.5	100.0(500)
유아	26.2	20.7	26.2	22.2	4.6	100.0(500)
초등	28.1	15.2	28.3	22.1	6.3	100.0(500)
χ^2	12.35(8)					
본인직업						
자영업	11.1	15.6	32.2	30.0	11.1	100.0(90)
블루칼라	23.8	21.3	26.4	23.4	6.3	100.0(239)
화이트칼라	28.4	19.2	25.3	22.4	4.7	100.0(1,142)
기타	17.9	10.5	28.6	32.1	10.7	100.0(28)
χ^2	25.52(1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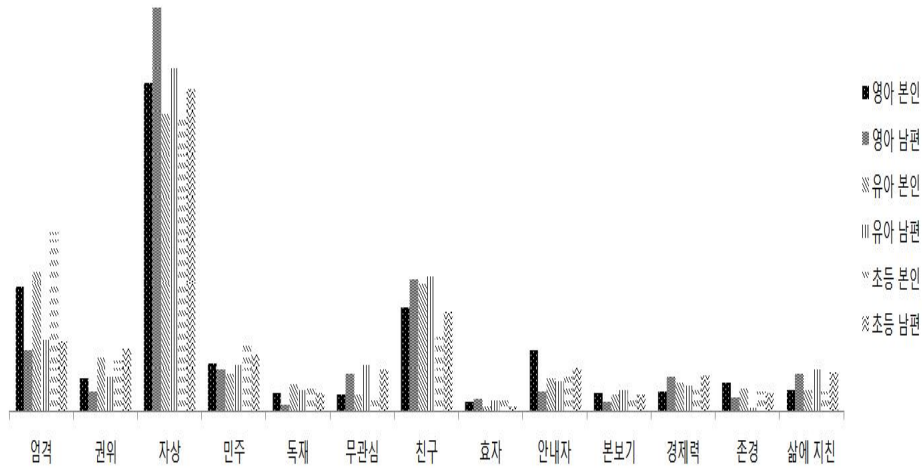
끝으로 현재 아버지 모습(像)과 희망하는 아버지 모습(像)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버지 본인 응답을 먼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아버지 상(像)은 ‘자상한 아버지’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엄격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비슷하게 나왔다. 자녀연령별로 공통적으로 자상한 아버지가 가장 많고, 엄격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순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영아와 유아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각각 12.5%, 15.4%이지만, 초등학교 아버지는 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반면, 엄격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버지에서 21.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자녀가 커갈수록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에서 엄격한 아버지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평가를 보면, 자상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순으로 순서는 본인 평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상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로 평가한 비율이 본인 평가보다 높으며, 엄격한 아버지는 본인평가보다 낮게 나왔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아버지로 비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과 남편 간의 응답 격차가 큰 항목으로는 무관심한 아버지, 삶에 지친 아버지라 하겠다. 예컨대, 초등 아버지 본인은 무관심한 아버지가 1.3%이었다면, 배우자는 5.1%라 응답해 3.4% 차이가 있으며 삶에 지친 아버지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2.0~2.5% 차이가 있었다.

〈표 IV-5-3〉 현재 아버지 상(像): 1순위

단위: %(명)

구분	현재 아버지 상(像)														계
	엄격	권위	자상	민주	독재	무관심	친구	효자	안내자	본보기	경제력	존경	삶에지친		
영아	본인	15.0	4.0	39.6	5.7	2.2	2.0	12.5	1.2	7.3	2.2	2.4	3.4	2.6	100.0(500)
	남편	7.4	2.3	48.8	5.1	0.8	4.5	15.9	1.4	2.3	1.2	4.1	1.6	4.6	100.0(500)
유아	본인	16.9	6.4	36.0	4.5	3.3	2.0	15.4	0.6	4.0	2.0	3.5	2.7	2.5	100.0(500)
	남편	8.7	4.2	41.4	5.6	2.5	5.6	16.2	1.3	3.6	2.5	3.0	0.4	5.0	100.0(500)
초등	본인	21.7	6.1	35.3	8.6	2.8	1.3	8.9	1.7	4.4	2.1	2.5	2.3	2.3	100.0(500)
	남편	8.4	7.5	39.0	6.9	2.2	5.1	12.0	0.5	5.3	2.1	4.3	2.2	4.7	100.0(500)



자료: <표 IV-4-3> 을 도식화함.

[그림 IV-5-1] 현재 아버지 상(像) 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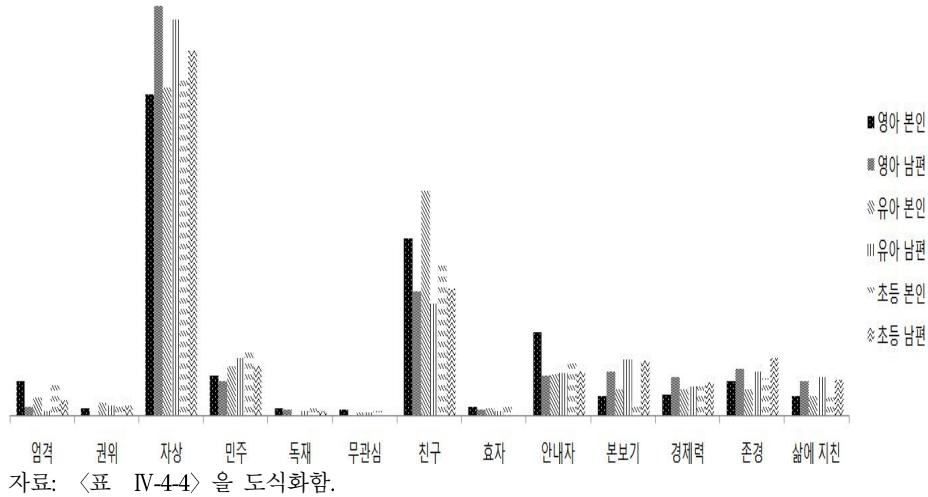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상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버지 상보다 자상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동일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본인은 자녀가 커갈수록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비례했지만, 배우자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배우자는 남편이 자녀의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자녀연령과 비례해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에서 안내자, 본보기, 존경이 현재 보다 높게 나왔다.

<표 IV-5-4>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												계	
	엄격	권위	자상	민주	독재	무관심	친구	효자	안내자	본보기	경제력	존경		
영아	본인	4.5	1.0	42.2	5.3	1.0	0.8	23.2	1.2	10.9	2.6	2.8	4.6	1000(50)
	남편	1.2	0.2	53.7	4.5	0.8	0.2	16.3	0.8	5.3	5.8	5.0	6.2	1000(50)
유아	본인	2.4	1.6	43.0	6.4	0.2	0.4	29.4	0.9	5.4	3.5	3.4	3.5	1000(50)
	남편	0.6	1.3	51.9	7.5	0.6	0.4	14.6	0.6	5.5	7.4	3.8	5.7	1000(50)
초등	본인	4.6	1.2	44.6	9.0	0.9	0.6	19.6	1.3	7.6	1.9	3.8	4.8	1000(50)
	남편	2.1	1.3	47.8	6.5	0.6	0.0	16.7	0.2	5.8	7.1	4.3	7.6	1000(50)



[그림 IV-5-2]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 집단 간 비교

앞서 분석에서 나왔듯이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양육방식으로 성장하였다. 본인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욕구가 강했다. 요컨대, 아버지들이 되고 싶은 아버지 상은 엄격한 아버지보다는 자상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로 나타났다.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주 놀아주고 그런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죠 같이 놀아주면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저는 그것만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를 해준다면가 그런 것보다는 같이 놀아주고 지금 개인적인 바램은 아이랑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싶어요(아버지 면담조사 사례 8).

6. 소결

지금까지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을 위해 아버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아버지는 소수였다. 정부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면담한 아버지들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는 없었고, 사용한 아버지를 찾기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게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남성에게는

아직까지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아버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보다 훨씬 적었다.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은 30~40대 아버지로 직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기이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자녀양육에 관심도 많고 실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까지 남성에게 직장 중심, 일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남성에게도 일-가정 양립의 균형적인 삶을 요구하고 본인도 원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일하는 남성에게 일-가정 양립은 가사를 포함해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녀양육역량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보다는 도시거주, 대졸 이상의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가구의 아버지 양육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심으로 고찰했을 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아버지, 주당 초당근무시간이 적은 아버지, 유년기 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아버지는 18.2%에 그쳤으며,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는 이보다도 적은 10.1%에 불과했다.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인 약 60%로 가장 많았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대 1년(12개월)을 사용하는 경우는 30% 정도였다.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 중에서도 1회 경험이 50% 내외로 가장 많았다.

넷째,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4개 영역 중에서, 대체로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왔다. 아버지들은 아버지-자녀-부부, 자녀교육 등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의 양육역량은 높지만,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인 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개인 대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인식, 실행, 성장 역량별에서도 나머지 3개 영역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발달과 놀이,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 가족관계 영역은 대체로 성장역량이 높게 나왔다면,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성장역량이 가장 낮게 나왔다. 점수가 낮은 성장역량의 문항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이다.

많은 아버지들이 주당 3회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육아휴직제도 등)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4개 영역 모두 본인(아버지)과 배우자(어머니) 간의 인식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본인이 응답한 점수와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응답한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로서 아버지 자신의 양육역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버지 본인이 판단하는 양육역량과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판단하는 아버지 양육역량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아버지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상호 이해를 위해 부부가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유년기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게 나온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양육관, 양육방식은 아버지(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본인의 양육관, 양육방식은 자녀세대로 전수되어 자녀의 양육관, 양육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서, 아버지 본인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응답했다.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은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로 나타났다.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양육방식으로 성장했지만, 자녀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이기보다는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아버지 상(像)은 한 시대, 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가치판단의 문제로, 옳고 그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엄격한 아버지가 나쁘고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영유아,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엄격하기 보다는, 친근하면서 격이 없이 지내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일곱째, 본인과 배우자 대부분이 아버지 교육은 필요하다고 했으며 본인보다는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자녀양육을 두고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현실적인 아버지 교육방식은 아버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은 아버지 직종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V. 아버지 양육역량 강화 지원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 양육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지원방향

가. 아버지에게 일-가정 양립의 균형적인 삶을 지원한다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연령은 30~40대로 직장에서도 왕성하게 일할 시기이다. 약 80% 이상의 아버지들이 주당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도 소수였다. 아버지들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들 연령대의 아버지들은 본인 아버지 세대와 달리, 가사일도 하고 자녀양육에 관심도 많고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남편 평가와의 차이는 있었지만, 자녀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낼 때 행복감을 느끼고,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청소하기도 하고, 기저귀나 분유를 항상 구비해 두는 등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아버지 세대가 일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본인 세대는 일-가정 양립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들에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나. 아버지 개인 변인에 따른 역량 격차를 줄인다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거주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 대졸 이상의 화이트 칼라 직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가구의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이 낮고,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아버지 양육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개인별에 따른 양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다. 생산직 종사 아버지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한다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 높았다. 아무래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아버지가 인식, 실행, 성장 등의 양육역량이 앞서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주당 초과근무 횟수가 많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낮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양육역량 강화의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정부는 2015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비율 5.5%에서 2020년까지 1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 내외 정도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적지 않은 수치이지만, 이용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다수였다. 법에서 보장한 최대 1년(12개월)을 사용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라 하겠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 종사자이며 수도권(서울, 경기)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다(뉴스토마토, 2016년 2월 3일). 남성 육아휴직사용도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방안이 필요하다.

라. 아버지 교육을 다양화 방식으로 실시한다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은 아버지 본인, 배우자 모두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아버지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아버지보다 적었다.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을 대부분 부모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아버지 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1) 아버지 직업 고려

아버지 교육은 직업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직장에서 아버지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지만, 회사원 아버지는 직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아버지

직업에 따라 참여 가능한 교육방법이 달랐다. 자영업은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집 근처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고, 화이트칼라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가장 희망했다. 그리고 대개 온라인 교육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점심시간을 활용한 직장 근처에서의 아버지 교육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장인 아버지 대상 점심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아이조아 아빠교실’의 아버지의 호응도는 높았다.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교육방식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아버지 입장에서 꺼려할 수도 있지만, 점심과 함께 교육이 제공된다면(소정의 참가비 본인 부담) 이 방식도 고려해 볼 직하다.

2)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고려

4개 영역 중에서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의 점수가 대체로 낮았다. 이 영역 내에서는 성장 역량이 가장 많았다. 성장 역량 문항은 다름 아닌,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이다. 아버지들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버지 양육역량에서 부모-자녀, 자녀교육 및 생활지도, 배우자와 관계 등의 개인 대 개인 관계의 중요성 문항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가정 내 양육환경이나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점수가 낮았다. 직장생활에 몰두하다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통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부모-자녀 관계에만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밖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아버지들과의 교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영업이나 블루칼라 종사자 아버지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교육을 선호하였다. 지자체가 유관 기관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력하여 아버지 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마. 체계적으로 연계된 아버지 교육을 제공한다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수가 가장 높았고(3.15점), 유아(3.11점), 초등(3.06점) 순이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받은 아버지의 양육역량이 높으므로 교육을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아버지의 인식, 실행, 성장역량이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역량에서 초등 아버지의 점수가 낮았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버지들은 본인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인 초등 저학년 때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중요하다. 정부도 임신·출산에서부터 남성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도 영유아기와 초등학교가 단절되지 않도록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영유아 전문가와 초등학교 전문가가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바. 아버지 교육내용은 실천(실행) 중심으로 편성, 운영한다

실행 역량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을 제외하고는 성장역량이 대체로 높게 나왔고, 인식, 실행 순으로 점수 경향이 나타났다. 성장역량이 높다는 것은 자기 반성적 자녀역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더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는 것이다. 실행역량이 낮은 것은 그러한 욕구에 비해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알고는 있고(인식),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성장), 실천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역량측정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실행역량 강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행역량 강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 중심으로 편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사.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본 설문조사는 아버지 양육역량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남편의 양육역량을 측정하는 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아버지 본인의 본인평가뿐 아니라, 배우자로 하여금 본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대

응표집은 아님), 남성과 여성의 양육에 대한 태도, 인식, 실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아버지 본인은 주말에 영유아 자녀를 10시간 이상 돌본다고 응답했지만, 배우자는 4~6시간(영아), 2~4시간(유아) 정도 돌본다고 응답한 점이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한다기 보다는 자녀돌봄이나 자녀와의 놀이 등에 대한 생각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교육의 일정 부분은 부부가 같이 이수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상호 이해하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아. 학부모 교육이 아닌 부모교육을 지향한다

자녀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이 선(善)해야 한다. 자녀양육의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목욕 씻기기, 분유타기, 기저귀 갈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 아버지 본인의 성품, 인품이 선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기술에 그치며 자녀와의 긍정적인 교감이나 관계는 형성되지 어렵다. 본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아버지와의 유년시절 관계가 좋은 아버지가 양육역량이 높게 나왔다. 양육역량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대로 전수되는 유전성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 됨됨이가 근저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의 양육관, 양육방식이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으므로 본인수양 교육이 아버지 교육에 반드시 편성, 운영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교육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아버지 교육도 포함되어야 하겠다.

2. 실행방안

가. 제도적 지원

1)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지원

아버지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대표적인 시간지원제도로 육아휴직제도와 아빠의 달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

고, 급여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조주은, 2016: 2). 육아를 위한 시간지원을 위해 정부는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의 문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가 사표를 낸 사례 등(면담조사 결과)을 보면서 실제 아버지들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설사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제도를 사용하면, 매월 받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금전적 손실로 인해 사용하기가 어렵다. 독일의 사례처럼 육아휴직의 남성 할당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증지표에서 남성육아휴직 이용 지표 점수가 가점 지표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필수지표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육아휴직제도나 아빠의 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금액을 늘리고,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자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째아부터(아빠의 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육아휴직제도나 아빠의 달 사용이 쉽지 않으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유급 휴가 현행 5일을 자녀수를 고려하여 확대할 것을³⁰⁾ 제안한다. 첫째아 출산 시에는 유급 휴가를 2~3주 지원하고, 둘째아 출산 시에는 최대 4주(한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직업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제도의 분할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과 횟수 등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직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예비 아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아버지가 되기 전부터 아버지 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남성이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남학생이 많은 학부의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거나 군대, 예비군, 민방위 훈련 장소도 아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 운영되어 있어서 아버지 교육을 추가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군대에서 명사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담당 공무원 면담 결과). 대학교도 대학평가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개설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성평등 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러한 교육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기회를 자주 접하는 것은 중요하다.

30) 이 안은 현재 국회발의 중이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이 어렵다면 명사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비군, 민방위 훈련 때 쉬는 시간에 아버지 교육을 배경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도입할 만하다.

3) 아버지 교육 실시하는 직장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기준에서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전체 직원수 70% 이상)은 지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의 경우 아버지 교육 이수를 필수지표 또는 가점 지표로 넣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프로그램을 직장 내에서 실시한다거나, 아버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는 교육비 또는 유급 휴가(반일) 처리를 해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도록 유도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아빠 카페 개설

지자체는 아버지의 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는 공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여 지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파파라텐와 같이 아빠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아빠들이 자녀를 데리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유희공공시설 내에 아빠들의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아버지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아버지 교육도 실시한다.

나. 교육적 지원

1)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 지원

혼인,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아버지 교육을 제공한다.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 “아버지 자녀양육 지원”(안)과 같은 책자를 산부인과(건강검진)나 주민자치센터(출생신고)에 비치하여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자에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필요성,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실는다.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때 아버지 교육을 받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2)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

가) 기본방향: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연계성 고려

현재 아버지 교육은 분산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버지 교육은 기본적인 내용을 공통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핵교육과정(기본과정)은 육아종이나 건가 등의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어디에 가서 이수해도 동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교육대상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버지 교육의 대상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아버지를 기본으로 한다. 즉,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해당된다. 여기에 예비아빠도 포함하고 교육내용에 따라서는 부부가 함께 할 수도 있다.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아버지 교육은 자녀와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교육목표

본 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으로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서울시 아버지 교육 사업명도 ‘프렌디’(친구같은 아빠)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100인의 아빠단”도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바람직한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즉, 교육목표는 한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늘날 아버지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로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를 설정한다.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오늘날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가장 많이 꼽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상위 개념의 용어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로 아버지 교육의 목표로 정하였다.

라) 교육이수의 편의성 추구: 읍면동 단위에서 교육 제공

아버지 교육의 중핵교육과정은 어디에서라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지역사회(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육아중, 건가, 주민자치센터 등),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등에서 아버지가 편한 곳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읍면동 단위 수준에서 실시한다. 즉, 읍면동 단위의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이 제기되었다. 본 설문조사에서 아버지들은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아버지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주 실시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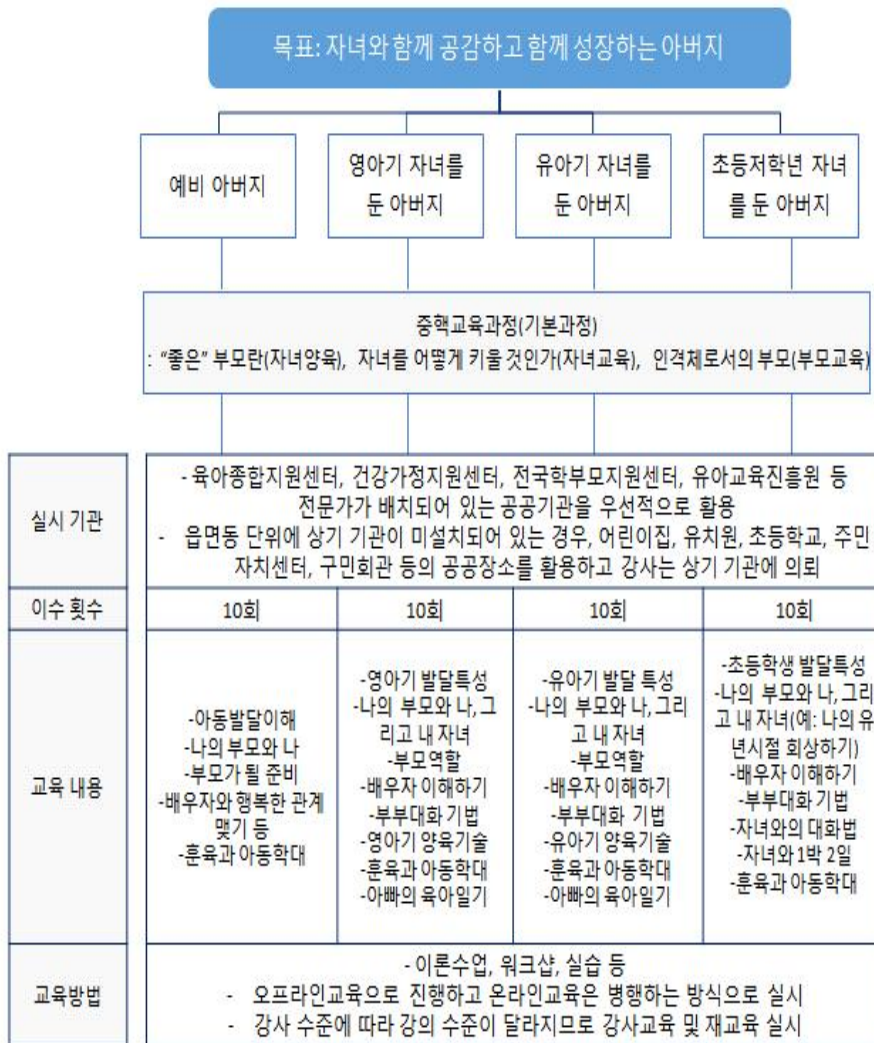
마) 교육내용

임신, 출산, 양육, 입학 등 생애주기별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다룬 4개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추출하고(core-curriculum), 이를 커리큘럼으로 제작한다. 아버지 교육의 중핵교육과정(core-curriculum)은 기본과정이므로 우리나라 평균적인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춘다. 유아교육, 아동학, 교육학(교육심리학, 교육과정 등), 가족학 등 유관 분야 전문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의 현장 전문가들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정한다.

교육내용은 생애주기별을 고려하여 공통 강좌와 비(非)공통 강좌로 구성한다. 공통 강좌(예: 부모역할, 훈육과 아동학대, 배우자 이해하기 등)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화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

각 시기별로 10회로 하며 회당 교육시간은 강좌 특성에 따라 달리한다. 이론 수업은 40~50분 정도, 워크샵이나 실습은 이론수업보다 시간을 길게 한다. 각 시기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료증이 있는 아버지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직장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서 포상, 연가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V-2-1]과 같다.



- 각 자녀 연령별 교육 이수시, 수료증 발급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학) 시, 해당 자녀 연령의 수료증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에게 입소 시, 가산점 부여
 - 수료증을 직장에 제출하면 직장에서 인센티브 지급(예: 포상, 연가 추가 등), 직장에게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 부여

[그림 V-2-1]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연계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6).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2016).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 김은설(2012).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04호.
- 김영옥·김종숙·이선행(2015).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도금혜(2008). 아버지 양육참여도, 의사소통 유형 및 아동의 성취동기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139-155.
- 도남희(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필요.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17호.
- 도남희·이정원·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보고 2012-27.
-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 안내*.
- 문은영·서영주·최나리(2011). 서울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1-정책개발-06.
- 박은주·김영희(2015).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139-164.
- 박익새·남은영(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55-365
- 보건복지부(2015). “육아하는 아빠가 멋있다”. 2015. 9. 17.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브로셔(2016).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우리 아빠는 프렌디.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6). 2016년 ‘아이조아 아빠교실’ 추진 계획.

- 성태제(2004).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송지원(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국제노동브리프(2015. 6.), 한국노동연구원.
- 신애선·김경후·유지은(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3), 173-191.
- 안전행정부(2016. 6). 주민등록인구통계
- 양진희(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419-447.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6).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6)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국가경쟁력의 기반”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수립- 2016. 2. 16. 보도자료.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32
- 이순목(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7(1), 1-27.
- 이미현·최혜순(2014). 아버지 양육참여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307-330.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33.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 제고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28.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2015). 아버지 학교참여 운영매뉴얼.
-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2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2015. 12. 1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리핑 플랜 2020 수립. 2015. 12. 10. 보도자료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내부자료(2016).
- 전홍주·조수경·김미정·최항준(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 정계숙·강정아·류수민(2016).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를 위한 「부모 참여역량」 척도의 타당화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361-390.
- 정대현·신원애(2012) 부모코칭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검사도구 개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1), 181-208.
- 조정진·안선희(2015).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3(3), 229-239.
- 조선화(2004). 아버지-청소년 자녀에 관한 연구동향과 특성분석-1970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6(2), 129-145.
- 조주은(2016).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최미숙·송순옥(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혜순·이미현(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척도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297-321.
-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누리·문혁준(2014). 유아의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환경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3), 25-49.
- 홍승아·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18.
- 홍승아·최진희·진미정·김수진(2016). '아버지 지수' 개발하여 남성 육아 확대 필요, KWDI 정책레시피(2016.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illar, H. B.(1993). *Fathers and families: Patern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Westport, CT: Auburn House.
- Commerzbank(2015). *Väter bei der Commerzbank: Ein Kulturwandel entsteht - Die Commerzbank-Väter-Studie 2015*.
- David Juncke(2013). *Inanspruchnahme von Elternzeit durch - Väter in Nordrhein-Westfalen*, Ministerium für Familie, Kinder, Jugend, Kultur und Sport des Landes NRW Düsseldorf.
- Easterbrooks, M. A., & Goldberg, W. A.(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3, 740-752.
- Flouri, E.(2005). *Fathering and child outcomes*.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 Sons Ltd.
- Howard, K. S., Lefever, J. E., Borkowski, J. G., Whitman, T. L. (2006). Fathers' influence in the lives of children with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 (3), 468-476.
- Margit Schatzenstaller(2014). *Familienpolitik in ausgewählten europäischen Länder im Vergleich*, Österreich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WIFO).
- Michelle Higgins(2012). *The Father Effect: Positive Effects of Involved Dads*. Pathways to Family Wellness magazine.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7). *Fa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school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arke, R.(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 Richard Fletcher(2012). *Father-infant attachment -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Perinatal Mental Health and Dads: The Elephant in the

Nursery Symposium, 26 November 2012.

Sarah Allen & Kerry Daly(2007).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 Updated Research Summary of the Evidence Inventory. University of Guelph, 1-27.

Yogman, M. W. Kindlon, D., & Earls, F.(1995). Father involvement and cognitive/behavioral outcomes of preterm infa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58-66.

[신문기사]

뉴스토마토(2016년 2월 3일).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4872명: 2014년보다 42.4% 증가...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늘어

연합뉴스(2016년 8월 21일). 아동학대 80% 가정에서 발생...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

헤럴드경제뉴스(2015년 12월 22일). 자녀학대 부모 60%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ncare.go.kr/index2.html>

경찰청 공식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

국기평생교육진흥원,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21673>

독일 베를린 아버지 육아센터,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2-Veranstaltungen>

덴마크 Kulturanstalten 아빠놀이방, <https://kulturanstalten.kk.dk/artikel/fars-legestue>

덴마크 네트워크, http://www.leavenetwork.org/fileadmin/Leavenetwork/Country_notes/2015/denmark.pm.pdf

덴마크 아빠놀이방, <http://www.aarhus.dk/farslegestue/>

- 덴마크 아빠놀이방, http://diepresse.com/home/bildung/schule/kindergarten/722086/Papas-Spielstube_Ohne-das-Weibergequatsche
- 덴마크 육아휴가제도, http://www.leavenetwork.org/fileadmin/Leavenetwork/Country_notes/2015/denmark.pm.pdf
- 덴마크 아빠놀이방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51623911631/?fref=ts>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family.seoul.go.kr/popup/images/2015_father.jpg
-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http://www.seoul.go.kr/01parents/training.asp?active=3&active=0&active=1>
- 스웨덴 전문직 노조 연맹, <http://erc-online.eu/gendertoolkit-etuc/initiative/swedish-confederation-professional-employees-tco/>
- 시흥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http://workingfamily.or.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유럽연합 스웨덴 소개,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l_4000/dl_60061/dl_60062.jsp
-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EgovPageLink.do2011> 좋은아버지회 활동사례-제주인화초, <http://www.parents.go.kr/cp/lbs/selectBoardArticle.do>

Abstract

A Study of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Empowerment of Paternal Involvement

Lee Yunjin, Kim Ahreum, Lim Junbum

The importance of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has been proved via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s many studies consistently proves the positive effect on child's development and father's active involvement in parenting, the term "father's effect" from Parke(2000)'s study is widely used as a common noun. Also, in order to vitalize the father(male)'s involvement in parenting, the government is announcing new policies such as enhancing the use of paternity leave(5% in 2016 to 30% in 2030).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paternal involvement of fathers with infants, toddlers and first and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 ways of empowering the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00 fathers and 1,500 mothers(fathers and mothers are not married; not paired sampling) with infants, toddlers and first and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order to measure father's competency of child rearing, revised and modified version of "parent competency self-list for happy infants and toddlers" was used which was develop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2013. "parent competency self-list for happy infants and toddlers" includes three areas of awareness, implement, development and four areas of development and play, health, safety and guidance, family relations, physical environment of household and local community. Total number of questions are fifty one.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only small number of fathers actually used the paternal leave. About 18~20% of fathers used paternal leave and only 10.1% of fathers completed father education program. Seco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fathers'

social economic background and competency of child rearing. Fathers' competence of child rearing was high among fathers who are living in the city rather than country(farming and fishing village), and college graduates working in white-collar job with high income. Third, fathers who has previously used paternal leave, fathers who completed the father education program, fathers with short working hours per week, fathers who had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during childhood had higher competency of child rearing. Fourth, among the four areas of development and play, health, safety and guidance, family relations, physical environment of household and local community, usually score of physical environment of household and local community was low compared to other area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fathers' child rearing competency is high in relationship between person to person such as father-child-couple. However, weak in person to institution(preschool,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person to local community

Fif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score that fathers gave to themselves and the score of their wives gave them. This shows that the gap exists between competency of child rearing that fathers evaluate themselves and how their wives evaluate. Sixth, child rearing competency was high among the fathers who had good father-son relationship during childhood years. Many fathers replied as "I want to be better father than my father". Their desired father image was attentive and friendly father. They grew up with strict child rearing method from their fathers however, wanted to be attentive and friendly to their child. Seventh, about 90% of participants said father education is necessary and mothers' response of necessity of father education was higher than the fath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fathers to participate in child rearing and "father education program support system" to empower father's competence of child rearing. Especially the study suggests "guideline for father education" that considered father's life cycle and to make the father education possible whenever and wherever.

부 록

- 부록 1.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영아용)
- 부록 2.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유아용)
- 부록 3.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초등학생용)
- 부록 4.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영아용)
- 부록 5.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유아용)
- 부록 6.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초등학생용)
- 부록 7. 아버지 양육참여 면담지
- 부록 8. 현장전문가 양육참여 면담지(건강가정센터장용)
- 부록 9. 현장전문가 양육참여 면담지(육아종합지원센터장용)
- 부록 10. 2013년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

부록 1.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영아용)

『아버지 양육참여 및 역량 측정 체크리스트』

(영아용: 생후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아버지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아빠양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본 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문항은 간단한 양육실태와 양육역량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대전 | |
| ⑤ 광주 | ⑥ 인천 | ⑦ 울산 | ⑧ 세종 | |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SQ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군) ③ 읍/면지역

SQ 3. 귀하는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1,2 학년의 자녀가 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

- ① 있다 ☞ 계속 ② 없다 ☞ 설문 중단

SQ4. [SQ3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② 생후 36개월 ~ 취학전
③ 초등 1,2학년 자녀
④ 초등 3학년 이상 자녀 ☞ 하나만 선택한 경우 설문 중단

SQ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아내)가 있습니까?

- ① 예 ②아니다

☞ [SQ4 선택한 자녀 유형 표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설문 진행

=> 1,2 선택한 경우는 생후 36개월~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3,4 선택한 경우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단, 생후 36개월~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I. 자녀특성(생후12개월~36개월 미만 생후36개월 취원 초등2학년 자녀중 로에 맞는 문구 취)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월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형제관계	총 _____자녀 중 _____번째 자녀
[큰 아이 기준, SQ4의 ③ 제외] 4. 현재 만일제 이상 다니고 있는 기관 종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기타() ⑥ 다니고 있지 않다

II.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1. 해당 자녀를 위해 귀하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① 사용함 ☞ 사용년도 __년 __월 ~ __년 __월 ② 사용하지 않음
2. 주중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3. 주말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4. 아버지교육(부모교육)이수 여부	① 받은 적 있다 ☞ _____회 ② 받은 적 없다
5. 주당 근무 일	주 _____일
6. 평소 출퇴근 시간	오전 _____시 _____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_____시 _____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7. 지난 한달 기준으로 주당 평 균 초과 근무 횟수 (회식·야근 포함)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매일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자녀용 설문]

※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양육참여에 대해 응답
해주세요.

Ⅲ.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되는 숫자에 √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에서 ‘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녀’는 내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 발달과 놀이(13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1	2	3	4	5
4. 나는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6. 나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1	2	3	4	5
7. 나는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8. 나는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1	2	3	4	5
9.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1	2	3	4	5
10. 나는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1	2	3	4	5
11. 나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12. 나는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1	2	3	4	5
13.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하다	1	2	3	4	5

II.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15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자녀가 예방접종 받을 때 같이 간다	1	2	3	4	5
18. 나는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나는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0. 나는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21. 나는 영아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	1	2	3	4	5
22. 나는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수면시간, 식습관, 배변)을 지도한다	1	2	3	4	5
24. 나는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25. 나는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26.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나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1	2	3	4	5
27. 나는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1	2	3	4	5
28. 나는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1	2	3	4	5

Ⅲ. 가족관계(11문항)

※ 문32-35의 경우, SQ5에서 ② 응답 시, 문항을 숨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0. 나는 내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31.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32. 나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33. 나는 아내와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1	2	3	4	5
34. 나는 아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35. 나는 지금도 아내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36. 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1	2	3	4	5
37. 나는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8. 나는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39. 나는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IV.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12문항)

※ 해당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I 세션 4 번 문항 ⑥응답자), 문42, 문49 문항 숨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0. 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1. 나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2. 나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영어유치원, 놀이학교) 기관명, 반이름,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1	2	3	4	5
43. 나는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1	2	3	4	5
44. 나는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1	2	3	4	5
45. 나는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1	2	3	4	5
46. 나는 자녀의 생필품(기저귀, 분유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해둔다	1	2	3	4	5
47. 나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1	2	3	4	5
48. 나는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1	2	3	4	5
49. 나는 어린이집(영어유치원, 놀이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1	2	3	4	5
50. 나는 지역사회(어린이집/영어유치원/놀이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V. 아버지와의 관계(10문항)

※ 응답자의 어린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비해당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비 해 당
51. 나의 양육관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1	2	3	4	5	
52. 나의 실제 양육방식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1	2	3	4	5	
53. 나의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우셨다	1	2	3	4	5	
54.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체벌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5. 나는 유년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1	2	3	4	5	
56.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	1	2	3	4	5	
57. 나의 아버지(친할아버지)와 나의 자녀는 친밀하다	1	2	3	4	5	
58. 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 (명절, 생신, 제사, 기념일에 찾아뵙는 것은 제외)	1	2	3	4	5	
59. 나는 아버지의 양육관이나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60.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1	2	3	4	5	

[공통질문]

VI.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정책

문 62. 다음 중 귀하의 양육방식(양육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를 골라주십시오.

- ① 나의 부모(가족)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② 나의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③ 아빠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④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문 63.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본인의 아버지 상(像)과 본인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아버지 상(像)을 나타내는 단어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① 엄격함 ② 권위적 ③ 자상함 ④ 민주적 ⑤ 독재적 ⑥ 무관심 ⑦ 친구
 ⑧ 효자 ⑨ 안내자 ⑩ 본보기 ⑪ 경제력 ⑫ 존경 ⑬ 삶에 지친

지금 본인의 아버지 상(像)	본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문 64.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65. 다음 중 제시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중, 현실적으로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②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때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③ 주중 저녁 또는 주말에 집 근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④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 ⑤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배문1.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배우자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십시오).

본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배문2.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⑪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문3.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⑪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문4.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유아용)

『아버지 양육참여 및 역량 측정 체크리스트』

(유아용: 생후 36개월 이상 ~ 취학 전)

— 아버지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아빠양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본 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문항은 간단한 양육실태와 양육역량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대전 | |
| ⑤ 광주 | ⑥ 인천 | ⑦ 울산 | ⑧ 세종 | |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SQ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군) ③ 읍/면지역

SQ 3. 귀하는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1,2 학년의 자녀가 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

- ① 있다 ☞ 계속 ② 없다 ☞ 설문 중단

SQ4. [SQ3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② 생후 36개월 ~ 취학전
③ 초등 1,2학년 자녀
④ 초등 3학년 이상 자녀 ☞ 하나만 선택한 경우 설문 중단

SQ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아내)가 있습니까?

- ① 예 ②아니다

☞ [SQ4 선택한 자녀 유형 표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설문 진행

=> 1,2 선택한 경우는 생후 36개월~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3,4 선택한 경우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단, 생후 36개월~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I. 자녀특성(생후12개월~36개월 미만 생후36개월 추천 초등2학년자녀중 로에맞는 문구추기)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월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형제관계	총 _____자녀 중 _____번째 자녀
[큰 아이 기준, SQ4의 ③ 제외] 4. 현재 만일제 이상 다니고 있는 기관 종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기타() ⑥ 다니고 있지 않다

II.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1. 해당 자녀를 위해 귀하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① 사용함 ☞ 사용년도 __년 __월 ~ __년 __월 ② 사용하지 않음
2. 주중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3. 주말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4. 아버지교육(부모교육)이수 여부	① 받은 적 있다 ☞ _____회 ② 받은 적 없다
5. 주당 근무 일	주 _____일
6. 평소 출퇴근 시간	오전 _____시 _____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_____시 _____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7. 지난 한달 기준으로 주당 평 균 초과 근무 횟수 (회식·야근 포함)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매일

[생후 36개월 ~ 취학전 자녀용 설문]

※ 생후 36개월 ~ 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Ⅲ.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되는 숫자에 √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에서 ‘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녀’는 내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 발달과 놀이(13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놀이가 아동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1	2	3	4	5
4. 나는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나는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6. 나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1	2	3	4	5
7. 나는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8. 나는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1	2	3	4	5
9.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1	2	3	4	5
10. 나는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1	2	3	4	5
11. 나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1	2	3	4	5
12. 나는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1	2	3	4	5
13.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하다	1	2	3	4	5

II.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16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자녀가 예방접종 받을 때 같이 간다	1	2	3	4	5
18. 나는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나는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0. 나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22. 나는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 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3. 나는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1	2	3	4	5
24. 나는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칫솔질 등)을 지도한다	1	2	3	4	5
25. 나는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26. 나는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27.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나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1	2	3	4	5
28. 나는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1	2	3	4	5
29. 나는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1	2	3	4	5

Ⅲ. 가족관계(11문항)

※ 문33~36의 경우, SQ5에서 ② 응답 시, 문항을 숨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0. 나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1. 나는 내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32.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33. 나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34. 나는 아내와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1	2	3	4	5
35. 나는 아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36. 나는 지금도 아내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37. 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1	2	3	4	5
38. 나는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9. 나는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40. 나는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IV.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11문항)

※ 해당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I 세션 4번 문항 ⑥응답자), 문44, 문50 문항 숨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2. 나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3. 나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1	2	3	4	5
44. 나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의 기관명, 반이름,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1	2	3	4	5
45. 나는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1	2	3	4	5
46. 나는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1	2	3	4	5
47. 나는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1	2	3	4	5
48. 나는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1	2	3	4	5
49. 나는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1	2	3	4	5
50.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1	2	3	4	5
51. 나는 지역사회(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놀이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V. 아버지와의 관계(10문항)

※ 응답자의 어린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비해당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이 다	매 우 그 렇 다	비 해 당
52. 나의 양육관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1	2	3	4	5	
53. 나의 실제 양육방식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1	2	3	4	5	
54. 나의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우셨다	1	2	3	4	5	
55.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체벌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6. 나는 유년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1	2	3	4	5	
57. 나와 아버지는 대화를 많이 한다	1	2	3	4	5	
58. 나의 아버지와 나의 자녀는 친밀하다	1	2	3	4	5	
59. 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 (명절, 생신, 제사, 기념일에 찾아뵙는 것은 제외)	1	2	3	4	5	
60. 나는 아버지의 양육관이나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61.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1	2	3	4	5	

[공통질문]

VI.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정책

문 62. 다음 중 귀하의 양육방식(양육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를 골라주십시오.

- ① 나의 부모(가족)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② 나의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③ 아빠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④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문 63.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본인의 아버지 상(像)과 본인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아버지 상(像)을 나타내는 단어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① 엄격함 ② 권위적 ③ 자상함 ④ 민주적 ⑤ 독재적 ⑥ 무관심 ⑦ 친구
⑧ 효자 ⑨ 안내자 ⑩ 본보기 ⑪ 경제력 ⑫ 존경 ⑬ 삶에 지친

지금 본인의 아버지 상(像)	본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문 64.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65. 다음 중 제시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중, 현실적으로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②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때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③ 주중 저녁 또는 주말에 집 근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④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 ⑤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배문1.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배우자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십시오).

본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배문2.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⑪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문3.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⑪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문4.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아버지대상_초등학생용)

『아버지 양육참여 및 역량 측정 체크리스트』

(초등학교 1학년 ~ 2학년)

— 아버지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아빠양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본 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역량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 문항은 간단한 양육실태와 양육역량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대전 | |
| ⑤ 광주 | ⑥ 인천 | ⑦ 울산 | ⑧ 세종 | |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SQ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군) ③ 읍/면지역

SQ 3. 귀하는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1,2 학년의 자녀가 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

- ① 있다 ☞ 계속 ② 없다 ☞ 설문 중단

SQ4. [SQ3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② 생후 36개월 ~ 취학전
 ③ 초등 1,2학년 자녀
 ④ 초등 3학년 이상 자녀 ☞ 하나만 선택한 경우 설문 중단

SQ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아내)가 있습니까?

- ① 예 ②아니다

☞ [SQ4 선택한 자녀 유형 표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설문 진행

=> 1,2 선택한 경우는 생후 36개월~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3,4 선택한 경우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단, 생후 36개월~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I. 자녀특성(생후12개월~36개월 미만 생후36개월 취원 초등2학년 자녀중 로에 맞는 문구 취)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월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형제관계	총 _____자녀 중 _____번째 자녀
[큰 아이 기준, SQ4의 ③ 제외] 4. 현재 만일제 이상 다니고 있는 기관 종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기타() ⑥ 다니고 있지 않다

II.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1. 해당 자녀를 위해 귀하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① 사용함 ☞ 사용년도 __년 __월 ~ __년 __월 ② 사용하지 않음
2. 주중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3. 주말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4. 아버지교육(부모교육)이수 여부	① 받은 적 있다 ☞ _____회 ② 받은 적 없다
5. 주당 근무 일	주 _____일
6. 평소 출퇴근 시간	오전 _____시 _____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_____시 _____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7. 지난 한달 기준으로 주당 평 균 초과 근무 횟수 (회식·야근 포함)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매일

[초등 1,2학년 자녀용 설문]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Ⅲ. 아버지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되는 숫자에 √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에서 ‘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녀’는 내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 발달과 놀이(13문항)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은 편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자녀와 함께 동화책을 자주 읽는다	1	2	3	4	5
4. 나는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나는 아동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 양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6. 나는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1	2	3	4	5
7. 나는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1	2	3	4	5
8. 나는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1	2	3	4	5
9.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1	2	3	4	5
10. 나는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 도록 유도한다	1	2	3	4	5
11. 나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1	2	3	4	5
12. 나는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1	2	3	4	5
13. 나는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하다	1	2	3	4	5

II.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15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8. 나는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19. 나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21. 나는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 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2. 나는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칫손질 등)을 지도한다	1	2	3	4	5
24. 나는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25. 나는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26. 나는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나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1	2	3	4	5
27. 나는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1	2	3	4	5
28. 나는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1	2	3	4	5

Ⅲ. 가족관계(11문항)

※ 문32-35의 경우, SQ5에서 ② 응답 시, 문항을 숨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9. 나는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0. 나는 내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31. 나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32. 나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33. 나는 아내와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1	2	3	4	5
34. 나는 아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35. 나는 지금도 아내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36. 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1	2	3	4	5
37. 나는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8. 나는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39. 나는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IV.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12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0. 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1. 나는 지역사회에서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도서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2. 나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1	2	3	4	5
43. 나는 자녀의 현재 학교명, 학급 반·번호,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1	2	3	4	5
44. 나는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1	2	3	4	5
45. 나는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1	2	3	4	5
46. 나는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1	2	3	4	5
47. 나는 자녀가 읽을 책을 직접 고른다.	1	2	3	4	5
48. 나는 지역사회에서 자녀교육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49. 나는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1	2	3	4	5
50. 나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1	2	3	4	5
51. 나는 지역사회(초등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V. 아버지와의 관계(10문항)

※ 응답자의 어린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비해당에 표시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 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비해 당
52. 나의 양육관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1	2	3	4	5	
53. 나의 실제 양육방식은 나의 아버지와 비슷하다	1	2	3	4	5	
54. 나의 아버지는 나를 엄격하게 키우셨다	1	2	3	4	5	
55.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체벌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6. 나는 유년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1	2	3	4	5	
57.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	1	2	3	4	5	
58. 나의 아버지와 나의 자녀는 친밀하다	1	2	3	4	5	
59. 나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뵈는다 (명절, 생신, 제사, 기념일에 찾아뵈는 것은 제외)	1	2	3	4	5	
60. 나는 아버지의 양육관이나 양육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61.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1	2	3	4	5	

[공통질문]

VI.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정책

문 62. 다음 중 귀하의 양육방식(양육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를 골라주십시오.

- ① 나의 부모(가족)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② 나의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③ 아빠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④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_____)

문 63.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본인의 아버지 상(像)과 본인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아버지 상(像)을 나타내는 단어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① 엄격함 ② 권위적 ③ 자상함 ④ 민주적 ⑤ 독재적 ⑥ 무관심 ⑦ 친구
⑧ 효자 ⑨ 안내자 ⑩ 본보기 ⑪ 경제력 ⑫ 존경 ⑬ 삶에 지친

지금 본인의 아버지 상(像)	본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문 64.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65. 다음 중 제시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중, 현실적으로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②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때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③ 주중 저녁 또는 주말에 집 근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④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 ⑤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배문1.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배우자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십시오).

본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배문2.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⑪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문3.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⑪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문4.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영아용)

『아버지 양육참여 및 역량 측정 체크리스트』

(영아용: 생후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어머니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아빠양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본 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본 배우자(남편)의 양육역량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문항은 배우자의 간단한 양육실태와 양육역량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광주 ⑥ 인천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군) ③ 읍/면지역

SQ 3. 귀하는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1,2 학년의 자녀가 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

- ① 있다 ☞ 계속 ② 없다 ☞ 설문 중단

SQ 4. [SQ3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② 생후 36개월 ~ 취학전
 ③ 초등 1,2학년 자녀
 ④ 초등 3학년 이상 자녀 ☞ 하나만 선택한 경우 설문 중단

SQ 5. 귀하는 현재 배우자(남편)가 있습니까?

- ① 예 ☞ 계속 ② 아니다 ☞ 설문중단

☞ [SQ4 선택한 자녀 유형 표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설문 진행

=> 1,2 선택한 경우는 생후 36개월~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3,4 선택한 경우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단, 생후 36개월~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I. 자녀특성(생후12개월~36개월 미만 생후36개월 추천 초등2학년자녀중 로에맞는 문구추)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월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형제관계	총 _____자녀 중 _____번째 자녀
[큰 아이 기준 SQ4의 ③ 제외] 4. 현재 반일제 이상 다녀하고 있는 기관 종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기타() ⑥ 다니고 있지 않다

II. 남편의 양육참여 및 근무 현황

1. 해당 자녀를 위해 남편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① 사용함 ☞ 사용년도 _ 년 _ 월 ~ _ 년 _ 월 ② 사용하지 않음
2. 주중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3. 주말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4. 아버지교육(부모교육)이수 여부	① 받은 적 있다 ☞ _____회 ② 받은 적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주당 근무 일	주 _____ 일
6. 평소 출퇴근 시간	오전 _____시 _____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_____시 _____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7. 지난 한달 기준으로 주당 평 균 초과 근무 횟수 (회식·야근 포함)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매일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자녀용 설문]

※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Ⅲ. 남편의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 다음의 문항은 남편의 양육역량을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해당 되는 숫자에 √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에서 ‘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녀’는 내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 발달과 놀이(13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남편은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남편은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1	2	3	4	5
4. 남편은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남편은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6. 남편은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1	2	3	4	5
7. 남편은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8. 남편은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1	2	3	4	5
9. 남편은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1	2	3	4	5
10. 남편은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1	2	3	4	5
11. 남편은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1	2	3	4	5
12. 남편은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1	2	3	4	5
13. 남편은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	1	2	3	4	5

II.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14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남편은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남편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남편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남편은 자녀가 예방접종 받을 때 같이 간다	1	2	3	4	5
18. 남편은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남편은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0. 남편은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21. 남편은 영아돌연사증후군, 흔들림증후군을 고려하여 양육한다	1	2	3	4	5
22. 남편은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남편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수면시간, 식습관, 배변)을 지도한다	1	2	3	4	5
24. 남편은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25. 남편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26. 남편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본인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같다	1	2	3	4	5
27.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1	2	3	4	5
28. 남편은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1	2	3	4	5

Ⅲ. 가족관계(11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잘 모름
29. 남편은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잘 모름
30. 남편은 본인의 양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31. 남편은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32. 남편은 자녀 앞에서 나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33. 남편과 나는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1	2	3	4	5	
34. 남편은 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35. 남편과 나는 지금도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36. 남편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1	2	3	4	5	
37. 남편은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8. 남편은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39. 남편은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잘 모름

IV.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11문항)

※ 해당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I 세션 4번 문항 ⑥응답자), 문42, 문49 문항 숨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0. 남편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1.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2. 남편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영어유치원, 놀이학교) 기관명, 반이름, 담임 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1	2	3	4	5
43. 남편은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1	2	3	4	5
44. 남편은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1	2	3	4	5
45. 남편은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1	2	3	4	5
46. 남편은 자녀의 생필품(기저귀, 분유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해준다	1	2	3	4	5
47.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1	2	3	4
48. 남편은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1	2	3	4	5
49. 남편은 어린이집(영어유치원, 놀이학교)에서 보내주는 알림장을 확인한다	1	2	3	4	5
50. 남편은 지역사회(어린이집,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공통질문]

VI.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정책

문 50.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남편의 현재 아버지상(像)과 귀하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像)을 나타내는 단어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 ① 엄격함 ② 권위적 ③ 자상함 ④ 민주적 ⑤ 독재적 ⑥ 무관심 ⑦ 친구
 ⑧ 효자 ⑨ 안내자 ⑩ 본보기 ⑪ 경제력 ⑫ 존경 ⑬ 삶에 지친

지금 본인의 아버지 상(像)	본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문 51.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52. 다음 중 제시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중, 현실적으로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②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때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③ 주중 저녁 또는 주말에 집 근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④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⑤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배문1.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

본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세

배문2.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배문3.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배문4.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유아용)

『아버지 양육참여 및 역량 측정 체크리스트』

(유아용: 생후 36개월 이상~취학전)

— 어머니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아빠양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본 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본 배우자(남편)의 양육역량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문항은 배우자의 간단한 양육실태와 양육역량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광주 ⑥ 인천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군) ③ 읍/면지역

SQ 3. 귀하는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1,2 학년의 자녀가 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

- ① 있다 ☞ 계속 ② 없다 ☞ 설문 중단

SQ 4. [SQ3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② 생후 36개월 ~ 취학전
 ③ 초등 1,2학년 자녀
 ④ 초등 3학년 이상 자녀 ☞ 하나만 선택한 경우 설문 중단

SQ 5. 귀하는 현재 배우자(남편)가 있습니까?

- ① 예 ☞ 계속 ② 아니다 ☞ 설문중단

☞ [SQ4 선택한 자녀 유형 표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설문 진행

=> 1,2 선택한 경우는 생후 36개월~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3,4 선택한 경우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단, 생후 36개월~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I. 자녀특성(생후12개월~36개월 미만 생후36개월 추천 초등2학년자녀중 로에맞는 문구추)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월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형제관계	총 _____자녀 중 _____번째 자녀
[큰 아이 기준 SQ4의 ③ 제외] 4. 현재 반일제 이상 다녀하고 있는 기관 종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기타() ⑥ 다니고 있지 않다

II. 남편의 양육참여 및 근무 현황

1. 해당 자녀를 위해 남편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① 사용함 ☞ 사용년도 _년 _월 ~ _년 _월 ② 사용하지 않음
2. 주중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3. 주말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4. 아버지교육(부모교육)이수 여부	① 받은 적 있다 ☞ _____회 ② 받은 적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주당 근무 일	주 _____일
6. 평소 출퇴근 시간	오전 _____시 _____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_____시 _____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7. 지난 한달 기준으로 주당 평 균 초과 근무 횟수 (회식·야근 포함)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매일

[생후 36개월 ~ 취학전 자녀용 설문]

※ 생후 36개월 ~ 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Ⅲ. 남편의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 다음의 문항은 남편의 양육역량을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해당 되는 숫자에 √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에서 ‘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녀’는 내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 발달과 놀이(13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남편은 놀이가 아동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남편은 자녀에게(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자주 읽어준다(읽는다)	1	2	3	4	5
4. 남편은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남편은 아동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6. 남편은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1	2	3	4	5
7. 남편은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8. 남편은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1	2	3	4	5
9. 남편은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1	2	3	4	5
10. 남편은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1	2	3	4	5
11. 남편은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1	2	3	4	5
12. 남편은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1	2	3	4	5
13. 남편은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	1	2	3	4	5

II.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16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다
14. 남편은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남편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남편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남편은 자녀가 예방접종 받을 때 같이 간다	1	2	3	4	5
18. 남편은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남편은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0. 남편은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1	2	3	4	5
21. 남편은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22. 남편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3. 남편은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1	2	3	4	5
24. 남편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칫솔질 등)을 지도한다	1	2	3	4	5
25. 남편은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26. 남편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27. 남편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본인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같다	1	2	3	4	5
28.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1	2	3	4	5
29. 남편은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1	2	3	4	5

Ⅲ. 가족관계(11문항)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0. 남편은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잘 모 름
31. 남편은 본인의 양육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32. 남편은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33. 남편은 자녀 앞에서 나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34. 남편과 나는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1	2	3	4	5	
35. 남편은 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36. 남편은 지금도 나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37. 남편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1	2	3	4	5	
38. 남편은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9. 남편은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40. 남편은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잘 모 름

IV.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11문항)

※ 해당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I 세션 4 번 문항 ⑥응답자), 문44 문항 숨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남편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2.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3. 남편은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1	2	3	4	5
44. 남편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의 기관명, 반이름,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1	2	3	4	5
45. 남편은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1	2	3	4	5
46. 남편은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1	2	3	4	5
47. 남편은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1	2	3	4	5
48.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	1	2	3	4	5
49. 남편은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1	2	3	4	5
50. 남편은 지역사회(어린이집/유치원/영어유치원/놀이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공통질문]

VI.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정책

문 50.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남편의 현재 아버지상(像)과 귀하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像)을 나타내는 단어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 ① 엄격함 ② 권위적 ③ 자상함 ④ 민주적 ⑤ 독재적 ⑥ 무관심 ⑦ 친구
⑧ 효자 ⑨ 안내자 ⑩ 본보기 ⑪ 경제력 ⑫ 존경 ⑬ 삶에 지친

지금 본인의 아버지 상(像)	본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문 51.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52. 다음 중 제시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중, 현실적으로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②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때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③ 주중 저녁 또는 주말에 집 근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④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⑤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배문1.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

본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배문2.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배문3.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배문4.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6. 아버지 역량 체크리스트(어머니대상_초등학생용)

『아버지 양육참여 및 역량 측정 체크리스트』

(초등학생용: 초등학교 1학년 ~ 2학년)

— 어머니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아빠양육”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힘입어 본 연구소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본 배우자(남편)의 양육역량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문항은 배우자의 간단한 양육실태와 양육역량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SQ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광주 ⑥ 인천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군) ③ 읍/면지역

SQ 3. 귀하는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1,2 학년의 자녀가 있습니까?

(조사시점 기준)

- ① 있다 ☞ 계속 ② 없다 ☞ 설문 중단

SQ 4. [SQ3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생후 12개월 ~ 36개월 미만
 ② 생후 36개월 ~ 취학전
 ③ 초등 1,2학년 자녀
 ④ 초등 3학년 이상 자녀 ☞ 하나만 선택한 경우 설문 중단

SQ 5. 귀하는 현재 배우자(남편)가 있습니까?

- ① 예 ☞ 계속 ② 아니다 ☞ 설문중단

☞ [SQ4 선택한 자녀 유형 표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큰 아이 기준으로 설문 진행

=> 1,2 선택한 경우는 생후 36개월~취학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3,4 선택한 경우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단, 생후 36개월~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큰 아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I. 자녀특성(생후12개월~36개월 미만 생후36개월 추천 초등2학년자녀중 로에맞는 문구추)

1. 출생년도	_____년 _____월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형제관계	총 _____자녀 중 _____번째 자녀
[큰 아이 기준 SQ4의 ③ 제외] 4. 현재 반일제 이상 다니고 있는 기관 종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유아대상영어학원(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기타() ⑥ 다니고 있지 않다

II. 남편의 양육참여 및 근무 현황

1. 해당 자녀를 위해 남편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	① 사용함 ☞ 사용년도 _ 년 _ 월 ~ _ 년 _ 월 ② 사용하지 않음
2. 주중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3. 주말 해당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일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4. 아버지교육(부모교육)이수 여부	① 받은 적 있다 ☞ _____회 ② 받은 적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 주당 근무 일	주 _____ 일
6. 평소 출퇴근 시간	오전 _____시 _____분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_____시 _____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7. 지난 한달 기준으로 주당 평 균 초과 근무 횟수 (회식·야근 포함)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매일

[초등 1,2학년 자녀용 설문]

※초등 1,2학년 자녀를 기준으로 배우자(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Ⅲ. 남편의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 다음의 문항은 남편의 양육역량을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해당 되는 숫자에 √ 체크해 주십시오.

※ 문항에서 '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자녀'는 내 아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 발달과 놀이(13문항)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남편은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남편은 놀이가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알고 있다	1	2	3	4	5
3. 남편은 자녀와 함께 동화책을 자주 읽는다	1	2	3	4	5
4. 남편은 자녀와 스킨십을 자주 한다	1	2	3	4	5
5. 남편은 아동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1	2	3	4	5
6. 남편은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1	2	3	4	5
7. 남편은 자녀가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8. 남편은 자녀의 장난감을 살 때,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고려한다	1	2	3	4	5
9. 남편은 자녀와 함께 놀 때 힘이 부친다	1	2	3	4	5
10. 남편은 자녀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1	2	3	4	5
11. 남편은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한다	1	2	3	4	5
12. 남편은 자녀와 놀아주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1	2	3	4	5
13. 남편은 자녀와 함께 놀 때 행복해 하는 것 같다	1	2	3	4	5

II. 건강·안전 및 생활지도(15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남편은 자녀의 건강상 특이사항(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남편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상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남편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17. 남편은 심폐소생술(CPR)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8. 남편은 자녀에게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화상 등) 예방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19. 남편은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1	2	3	4	5
20. 남편은 위험한 물건들을 자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21. 남편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유괴 등의 위험상황과 그 대처법을 알려준다	1	2	3	4	5
22. 남편은 자녀가 편식할 때 야단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남편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식습관, 정리정돈, 칫손질 등)을 지도한다	1	2	3	4	5
24. 남편은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25. 남편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충분히 칭찬한다	1	2	3	4	5
26. 남편은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본인의 양육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같다	1	2	3	4	5
27.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한다	1	2	3	4	5
28. 남편은 자녀를 위해 흡연을 자제한다	1	2	3	4	5

Ⅲ. 가족관계(11문항)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다	
					5	잘 모 름
29. 남편은 행복한 부부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잘 모 름
30. 남편은 본인의 양육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	1	2	3	4	5	
31. 남편은 하루에 최소 한 끼는 자녀와 함께 식사한다	1	2	3	4	5	
32. 남편은 자녀 앞에서 나와 언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33. 남편과 나는 양육관 차이로 다툰다	1	2	3	4	5	
34. 남편은 내가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육아, 가사일로부터 휴식을 갖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35. 남편은 지금도 나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1	2	3	4	5	
36. 남편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다	1	2	3	4	5	
37. 남편은 자녀를 다른 사람(형제자매 및 지인 등)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38. 남편은 자녀의 성향(기질)을 존중한다	1	2	3	4	5	
39. 남편은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잘 모 름

IV. 가정 내 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 연계(11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0. 남편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1.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도서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2. 남편은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1	2	3	4	5
43. 남편은 자녀의 현재 학교명, 학급 반·번호, 담임선생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1	2	3	4	5
44. 남편은 자녀가 원하는 물건(장난감, 과자 등)은 사준다	1	2	3	4	5
45. 남편은 집이 지저분하면 직접 정리정돈하거나 청소한다	1	2	3	4	5
46. 남편은 자녀 앞에서 미디어(TV,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1	2	3	4	5
47. 남편은 자녀가 읽을 책을 직접 고른다	1	2	3	4	5
47.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자녀교육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48. 남편은 자녀 또래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교류한다	1	2	3	4	5
49. 남편은 지역사회(초등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부모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공통질문]

VI. 정부에 바라는 아버지 양육지원정책

문 50. 다음 보기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남편의 현재 아버지상(像)과 귀하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像)을 나타내는 단어를 순위별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 ① 엄격함 ② 권위적 ③ 자상함 ④ 민주적 ⑤ 독재적 ⑥ 무관심 ⑦ 친구
 ⑧ 효자 ⑨ 안내자 ⑩ 본보기 ⑪ 경제력 ⑫ 존경 ⑬ 삶에 지친

지금 본인의 아버지 상(像)	본인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 상(像)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문 51.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지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52. 다음 중 제시한 아버지 교육 실시 방법 중, 현실적으로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1개 골라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② 민방위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때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③ 주중 저녁 또는 주말에 집 근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④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부모교육
 ⑤ 직장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기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Ⅶ.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배문1.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를 기입해주세요.

본인	배우자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만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세

배문2. 본인과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3년)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배문3.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 [보기]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배문4. 귀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주세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150만원 미만
 ③ 15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250만원 미만
 ⑤ 250만원 ~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⑦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⑧ 5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7. 아버지 양육참여 면담지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 아버지용 질문지 —

일 시 :

장 소 :

주요 면담 내용

1. 귀하는 평소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 1-1. 귀하의 출·퇴근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1-2. 주중에 자녀(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 1-3. 주말에 자녀(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2. 귀하는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 2-1. 자녀가 어렸을 때 기저귀 갈기, 분유, 이유식, 목욕 등을 혼자서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 2-2. 자녀와 함께 놀이 또는 운동할 때, 주로 무슨 놀이 또는 운동을 하십니까?
 - 2-3.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를 직접 등·하원 시키시거나 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도서관, 학원 등에 아버님이 같이 가신 적이 있습니까?
 - 2-4.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학부모 교실에 자주 참석하십니까?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십니까?
 - 2-5.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놀이, 장난감, 자녀 친한 친구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2-6.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버지 역할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 귀하의 양육관 및 양육방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허용적 vs 엄격?)
 - 3-1. 자녀·아빠와 어떠한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라 생각하십니까?
 - 3-2. 귀하의 양육관 및 양육방식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4. 아버지 교육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4.1. 경험이 있으시다면 인지경로, 주최 기관, 교육내용, 교육의 효과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4.2. 경험이 없으신 경우, 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4.3.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5. 직장 근처에서 점심시간 때 아버지 교실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 직장에서 이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입니까? 아버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6. 정부차원에서 임신,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1. 고운맘카드, 양육수당, 누리과정 지원비 등을 받을 때 연동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육아휴직제도, 직장어린이집, 아버지 교육 관련 등등).

※응답자(아버지) 일반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학력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4년제미만) 졸업 (3)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4) 대학원 이상
3. 동거가구 구성원수(본인포함) (명)
4. 본인 및 배우자 직업 (본인: 배우자:)
5. 월평균 가구 소득 (약 _____만원)

※자녀의 일반 특성(2명 이상일 때 큰 아이 기준으로 작성)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출생년도(연령) _____년 _____월
3. 출생순위 (총_____명 중 몇 째)
4. 자녀의 주 양육자 (1) 엄마 (2) 아빠 (3) 친조부모 (4) 외조부모 (5) 기타 친인척 (6) 비혈연 인력 (7) 기타()
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여부 (1) 다니고 있다 ⇔ 5-1 (2) 다니고 있지 않다 5-1. 기관종류: _____, 이용시작 시기: _____

부록 8. 현장전문가 양육참여 면담지(건강가정센터장용)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 현장 전문가 면담지 —

일 시 :

장 소 :

※ 응답자 일반 특성

1. 인 적 사 향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_____세
	최종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아동학 ③ 초·중·등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경력	총 _____년_____개월 (서울시센터 경력)			
	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직위/ 업무				
2. 센터 현황	설립연도	_____년 _____월			
	직원수	약 _____명			
	남성대상교육	_____년부터 시작			

주요 면담 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 현재(2016년 4월 기준) 전국에 몇 개의 시도 및 시·군·구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나요?

3.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남성대상교육, 아버지교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 차이는 없는지요? 아버지교실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3-1. 다문화가족의 아버지와 일반가정 아버지의 참여도 차이가 있는지요?

4. 귀 센터에서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실적(참여 기업 수, 참여인원, 만족도 등),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진 구성, 아버지들의 호응도 등 전반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데, 육아종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1. 건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육아종 또는 유사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6.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7. 센터장님께서서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교육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8. “아버지 교실” 사업의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 본 연구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연구내용이나 희망하는 정책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관련 자료 협조 :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결과보고서(사업별), “아버지교실” 사업 관련 자료 등

부록 9. 현장전문가 양육참여 면담지(육아종합지원센터장용)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강화 방안」
— 현장 전문가 면담지 —

일 시 :

장 소 :

※ 응답자 일반 특성

1. 인 적 사 항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_____세
	최종 전공	① 유아교육학 ② 보육학·아동학 ③ 초·중등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경력	총 _____년_____개월 (서울시센터 경력)			
	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직위/ 업무				
2. 센터 현황	설립연도	_____년 _____월			
	직원수	약 _____명			
	남성대상교육	_____년부터 시작			

주요 면담 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 현재(2016년 4월 기준) 전국에 몇 개의 시·도 및 시·군·구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나요?

3.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남성대상교육, 아버지교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 차이는 없는지요? 아버지교실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3-1. 다문화가족의 아버지와 일반가정 아버지의 참여도 차이가 있는지요?

4. 귀 센터에서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실적(참여 기업 수, 참여인원, 만족도 등),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진 구성, 아버지들의 호응도 등 전반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1. 건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유사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6.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7. 센터장님께서서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교육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8. “아버지 교실” 사업의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9. 본 연구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연구내용이나 희망하는 정책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관련 자료 협조 :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결과보고서(사업별), “아버지교실” 사업 관련 자료 등

부록 10. 2013년도 부모 양육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

<부록 표 1> 2013년도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결과(유아용)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문1	217	4.20	0.61	0.41	0.85
문2	217	4.00	0.81	0.61	0.83
문3	217	3.97	0.77	0.60	0.83
문4	217	3.86	0.83	0.67	0.82
문5	217	4.00	0.70	0.56	0.83
문6	217	3.84	0.68	0.66	0.82
문7	217	3.95	0.79	0.58	0.83
문8	217	3.76	0.96	0.60	0.83
문9	217	3.86	0.86	0.61	0.83
문10	217	3.91	0.80	0.59	0.83
문11	217	4.12	0.75	0.38	0.85
문12	217	4.19	0.72	0.41	0.84
문13	217	4.07	0.75	0.50	0.84
문14	217	3.84	0.81	0.52	0.83
문15	217	3.94	0.78	0.60	0.83
문16	217	3.95	0.91	0.63	0.82
문17	217	3.88	0.88	0.60	0.83
문18	217	4.05	0.79	0.59	0.83
문19	217	3.76	0.96	0.64	0.88
문20	217	4.09	0.70	0.44	0.89
문21	217	3.99	0.75	0.49	0.89
문22	217	3.78	0.80	0.56	0.89
문23	217	3.98	0.85	0.45	0.89
문24	217	3.83	0.87	0.60	0.89
문25	217	3.77	0.80	0.49	0.89
문26	217	4.06	0.80	0.58	0.89
문27	217	3.90	0.81	0.67	0.88
문28	217	3.63	0.96	0.56	0.89
문29	217	3.91	0.77	0.56	0.89
문30	217	3.88	0.79	0.62	0.89
문31	217	3.94	0.79	0.55	0.89
문32	217	3.55	0.94	0.56	0.89
문33	217	3.66	0.83	0.65	0.88
문34	217	4.01	0.81	0.46	0.89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문항 변별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문35	217	4.05	0.69	0.50	0.75
문36	217	3.98	0.73	0.49	0.75
문37	217	3.82	0.76	0.53	0.75
문38	217	3.78	0.86	0.55	0.74
문39	217	3.87	0.93	0.36	0.78
문40	217	3.81	0.88	0.45	0.76
문41	217	4.10	0.79	0.53	0.75
문42	217	3.76	0.93	0.49	0.76
문43	217	3.82	0.86	0.62	0.90
문44	217	4.07	0.66	0.49	0.91
문45	217	4.21	0.73	0.49	0.91
문46	217	4.12	0.69	0.44	0.91
문47	217	3.94	0.81	0.65	0.90
문48	217	3.95	0.74	0.65	0.90
문49	217	3.81	0.78	0.63	0.90
문50	217	3.96	0.81	0.64	0.90
문51	217	3.91	0.82	0.61	0.90
문52	217	3.87	0.83	0.61	0.90
문53	217	3.80	0.80	0.62	0.90
문54	217	3.82	0.76	0.67	0.90
문55	217	3.76	0.91	0.70	0.90
문56	217	3.71	0.94	0.71	0.90
문57	217	3.80	0.81	0.47	0.52
문58	217	3.83	0.73	0.53	0.51
문59	217	3.99	0.71	0.34	0.57
문60	217	3.00	1.12	-0.02	0.73
문61	217	4.02	0.68	0.40	0.55
문62	217	3.74	0.82	0.51	0.51
문63	217	3.77	0.81	0.29	0.58
문64	217	3.46	0.90	0.65	0.77
문65	217	3.60	0.88	0.68	0.75
문66	217	3.66	0.81	0.62	0.78
문67	217	3.62	0.87	0.61	0.78
전체 신뢰도(부모)		0.96	전체 신뢰도(아버지)		0.97

연구보고 2016-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9
<http://www.kicce.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87-5 93330